

대학 비진학 청년들의 빈곤경험과 노동경험 : 일반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박진아(경인교육대학교)

공동연구자: 남미자(경기도교육연구원)

이혜정(경기도교육연구원)

목 차

I. 서론	5
1. 문제제기	5
2. 선행연구검토	8
가. 고졸 비진학 청년들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관한 연구	9
나. 고졸 비진학 청년 취업 현황과 노동 환경에 관한 연구	9
다. 고졸 비진학 청년의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11
라. 근로 빈곤 청년의 삶에 대한 연구(고졸 비진학과 빈곤 사이의 관계 등)	11
3. 주요 연구내용	12
가. 일반고 출신 대학 비진학 빈곤 청년의 일상생활과 노동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12
나. 대학 비진학 빈곤 청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육과 사회의 역할	13
4. 연구추진방법	13
가. 문헌 분석	13
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한 질적 분석	14
II. 비진학 빈곤 청년에게 있어 대학의 의미	20
1. 수진에게 있어 대학이란	20
가. “가고는 싶었는데요”	20
나.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라고”	24
다. “(대학 안 나오면) 막 대하게 될 것 같아요”	28
2. 성호에게 있어 대학이란	32
가. “배우는 게 없는”	32
나. “취업에 도움은 되지만”	36
다. “필요할 때 가면 되는”	38
3. 현규에게 있어 대학이란	39
가.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던 고등학교 시절	40
나.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한 대학 진학	41
다. 빈곤의 걸림돌이 없는 곳, 대학	42

Ⅲ. 비진학 빈곤 청년의 노동 경험	44
1. 수진과 일	44
가. “맞는 걸 찾기 위해서”	44
나. “어른”을 만나는 곳	48
다.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49
2. 성호와 일	52
가. 일상적으로 해온 일: 아르바이트	52
나. 꿈이었지만 포기한 일: 요리사	55
다. 급선무인 돈을 버는 일: 대기업 생산 공장 일용직	60
3. 현규와 일	64
가. 일: “사고”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버는 일	64
나. 일터: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공간 & 열악한 노동의 공간	67
다. 악착같이 일해서 얻은 작은 성공	70
Ⅳ. 비진학 빈곤 청년의 빈곤 경험	72
1. 수진의 빈곤 경험	72
가. “엄마 아빠 주고 싶은데”	72
나. “미안하죠”	75
2. 성호의 빈곤 경험	76
가. 일상적인 포기과 참기	76
나. 가족 모두가 애쓰고 있지만 넘지 못하는 빈곤이라는 벽	81
다. 흩어지는 가족	85
3. 현규의 빈곤 경험	88
가. 가난의 역사=빛의 역사	88
나. 빈곤한 몸, 아픈 몸	92
다. 가족을 위해 포기하는 것들	93
라. 그럼에도 계속되는 불안	96

V. 결론	98
1. 요약	98
2. 연구의 의미와 시사점	100
참 고 문 헌	104

표목차

<표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4
<표 2> 한수진의 아르바이트 경력	45

그림목차

<그림 1> 최성호의 생애사 요약	16
--------------------------	----

I. 서론

1. 문제제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청년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들은 일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고,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인 빈곤선을 넘지 못하는 근로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대학 졸업장을 가졌다 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2015년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8%일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의 대학은 물질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계층 상승의 수단이었다(조한혜정 외, 2016: 33-34). 이에 따라 대학 진학이 사회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고등교육이 팽창하면서 대학 졸업장의 가치는 이전에 비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장이 다수가 소지한 자격증이 되면서 오히려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렸다(조한혜정 외, 2016: 34). 그러나 한국 사회 현실에서 교육을 통한 계급 간 사회적 지위 이동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대학 졸업장의 소지 여부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이 간파되기 시작했고, ‘학력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와 함께 지나치게 높은 대학 진학률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각자 특기를 살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함이 역설되어 왔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은 어떠한가? 이 연구는 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했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동시에 대학 비진학 청년들의 비율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고졸 비진학 청년의 규모는 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김지경·이광호, 2013),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국내 대학 비진학 청소년 수는 2008년 16.2%에서 2010년 27.5%로 11.3% 상승했으며 2015년 대학 비진학 청소년은 17만9천812명으로, 전체 고등학생 대비 29.2%이며, 이는 고졸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김민찬, 2013). 특히 일반적으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에도 변화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2000년에는 일반고 고등학교 졸업자 중 83.9%가 대학으로 진학했으나 2003년 90.2%를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여 2010년에는 81.5%가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고 전체 졸업자 중 비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 18.5%로 2003년 대비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는 24.2%(113,777명), 2014년에는 10년 전에 비해 약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이처럼 고등학교 졸업자 중 비진학자 비율과 일반

고 졸업자 중 비진학자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 진학률이 70%를 상회하는 한국 사회에서 고졸 비진학 청년들은 사회·정책적인 관심과 담론에서 배제되어 있다(김지경·이광호, 2014). 그중에서도 일반고를 졸업한 비진학 청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더욱 더 공론화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들의 존재가 가시화되는 경우에도 일반고 졸업 비진학자들은 대학 진학에 실패한 존재로 간주됐으며, 일반고 졸업 비진학 현상 역시 개인의 노력 및 능력 부족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일반고의 설립 취지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일반고 학생을 입시교육의 대상으로만 여겨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고 졸업 비진학 청년은 그동안 사회적·교육적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이들 존재와 이들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사회적 사실’로 설명되지 않았다(김민찬, 2013).

이들 존재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계속되는 동안 일반고 졸업자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비율은 계속 증가해왔다. 그렇다면 이들 일반고 졸업 비진학자들은 왜 대학에 가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한국 사회에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이 더 이상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데 크게 유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자격증이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반고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대학 진학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적 지위 이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고졸과 대졸 학력 간 임금격차는 물론 내부노동시장의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지만 아무 대학이나 나와서는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일 수 있다(조한혜정, 2014)¹⁾. 이들은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자수성가한 산업화 세대와는 달리 ‘해도 안 되는 것’, 자신들의 노력에 보답이 없으리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아차린 세대이기 때문이다(조한혜정 외, 2016: 198-200). 혹은 어디로 향하는지 질문하고 성찰하지 않는 질주가 무모하고 위험한 질주임을 알아차려 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또 다른 한편으로 대학을 다니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대학을 다닐 시간에 스스로의 생계와 가족 부양 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빈곤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반고를 졸업하고도 비진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빈곤층 청년들은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 트랙의 바깥에 놓여지게 된다. 따라서 일반고 졸업 비진학 청년의 문제는 노력하지 않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한 청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빈곤으로 인해 교육기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대학을 나온다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한국 사회 구조의 문제일 수 있다.

이 연구는 청년의 빈곤 및 노동 문제를 청년 개인의 노력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

1) 조한혜정(2014)은 비진학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에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등장은 저성장-고실업 사회에서 발생하는 시대적 산물로서 비진학을 저성장-고실업 사회에서 나타나는 ‘주체성의 한 형식’으로 보고 있다. 일반고-대학-취업이라는 ‘생애사적 기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간파’한 청소년들은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닌 한국 사회 기본 설계에 대한 문제이자, 단순히 일자리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삶’에 대한 문제로 보고자 한다(조한혜정 외, 2016: 194).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일반고 졸업 후 빈곤으로 인해 대학에 비진학한 청년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반고 졸업 비진학 청년 문제는 특히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들은 특성화고 학생들과는 달리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필남(2014)의 연구에서도 일반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은 특성화고 학생들과 달리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학 진학 경쟁에서 뒤쳐진 후 뚜렷한 향후 진로계획 없이 무직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일반고 청소년들은 고졸 취업에 대한 정보 접근 또는 학교 내 사회적·물리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특성화고 청소년들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이 불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조한혜정, 2014).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반고 졸업 비진학 청년들에 대한 연구는 특성화고 졸업 비진학 청년들에 대한 논의와 구분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학진학이 존재의 이유라고 여겨지는 일반고를 졸업하고 대학 비진학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는 거의 모든 교육활동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는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청년들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당시 그들의 대학 진학에 관한 의지가 있었는지와 언제, 어떤 연유로 대학 비진학을 결정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당연히 하는 교육 풍토 속에서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문제는 대학진학에 실패한 ‘개인의 문제’로 환원 시켜 온 사회적 인식이 있었으며, 이처럼 일반고 졸업 비진학 청년들을 조기 낙오자, 학업 실패자로 보는 기존 논의들에서는 이들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들의 취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고졸취업자들을 위한 고용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때에도 물론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은 특성화고 졸업생들로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는 일반고 졸업 비진학 청년들이 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대학 비진학에 이르는 과정은 무엇인지, 이들이 비진학을 선택하게 되는 개인적·구조적인 요인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은 제기되기 어렵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사회에 진출하여 일을 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점도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또 다른 이유이다. 경제적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청년들은 적절한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할 여유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고 졸업 비진학 청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한 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취업 중인 청년들 역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는 관련되지 않은 단기근로와 소모적인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근무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보고된다(윤민

종 외, 2015).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반고를 졸업하고도 대학에 비진학한 청년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고 졸업 비진학 청년으로 살아가며 이들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고 있을까? 일반고 졸업 비진학 청년들에게 빈곤은 무엇이며, 빈곤 경험을 통해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실체는 어떤 것이며, 그 감정은 무엇을 매개로 형성되는가? 대학 비진학의 원인인이 된 빈곤 경험을 통한 그들 자신 및 세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어떠한가? 이 연구는 이러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반고 졸업 비진학 청년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은 특성화고 학생들과는 또 다른 조건에서, ‘일반고’ 졸업이라는 출신으로, 또래들보다 일찍 사회로 진출하여 일하는 가운데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가고 있는지를 그들 삶의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가운데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일반고 졸업 비진학 청년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겪는 빈곤 경험과 노동 경험은 무엇이며 그 둘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맥락적 차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정, 직장, 친구관계 등을 비롯한 일상 생활세계의 맥락과 (고졸 비진학) 청년에 대한 정부 정책과 같은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일반고 졸업 비진학 청년들의 인식과 대응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삶을 이해해보고, 그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사회 속에서 자신의 특기와 역량을 발휘하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꾸려가는 데 학교를 포함한 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들 청년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청년들을 추상적인 청년 일반이 아니라 개개인 존재로서 볼 수 있어야 하며, 개별 청년의 삶을 맥락적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반고 졸업 비진학 청년들의 빈곤경험과 노동경험을 ‘다층적인 맥락들(multi layered contexts)’이 상호작용 하는 관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다층적 접근을 통해 이들의 삶과 경험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대학 비진학의 원인이 개인의 능력부족과 노력부족에 있다고 간주하거나 대학 진학을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획일화된 담론적·비담론적 실천을 문제 삼는 데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서덕희, 2011).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삶이 개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다차원적인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

2. 선행연구검토

그동안 이루어진 고졸 대학 비진학 청년 관련 연구는 고졸 비진학 청년들의 진로 및 직업 교육, 고졸 비진학 청년 취업 현황과 노동환경 연구, 고졸 비진학 청년의 생활실태와 의식 연구 그리고 고졸 비진학과 빈곤 사이의 관계 등 근로 빈곤 청년의 삶에 대한 연구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 중 대부분의 연구는 통계 자료를 분석한 양적

연구이며 설문지 조사방법과 함께 면담방법이 병행된 연구의 경우에도 면담의 내용은 부분적·부수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질적연구방법을 통한 연구는 빈곤 청년들의 삶에 주목하는 연구 정도로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가. 고졸 비진학 청년들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관한 연구

고졸 비진학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 선택이나 취업 요인 등을 분석하거나, 고졸 청년의 노동시장에서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김지경·김종성, 2014).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특성화고의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남미자·김희연·이수지·이주영, 2013; 신현석·정주영, 2009; 이지혜·정철영, 2010; 임기흥·조인형, 201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학력과 학벌이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단순히 특성화고의 취업교육을 강조하면서 취업률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비진학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겪는 다양한 문제현실을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외에 일반고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대학 비진학 청년들에 대한 진로 및 직업 교육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 속에서 진로교육은 대부분 중학생에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반고 진로 교육의 경우에는 일반고 졸업생의 진로를 대학 진학으로 단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초점이 대부분 대학진학에 맞추어져 있다. 이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개발과 결정은 개인과 가정에 크게 의존하게 되고 학교에서의 진로지도는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황여정, 2007). 따라서 일반고 재학생 혹은 졸업생 가운데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진로에 대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고교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진로 결정이 개인과 가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가정에서 진로 결정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타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빈곤층 청년들은 진로에 관한 의사결정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의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진학 또는 취업’이라는 이분법적 선택지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협소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청년 존재를 학교 및 사회 제도에 무조건 맞추고 적응해야 하는 수동적 대상으로만 보는 진로교육의 비교육적 접근과 관점에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나. 고졸 비진학 청년 취업 현황과 노동 환경에 관한 연구

2010년 이후부터는 대학 진학률이 80% 수준에 육박하면서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주로 고졸 청소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 상승 등에 집중되었다. 이는 연구 동향에도 반영되면서 2000년대 이후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주

로 고용·노동분야에서 청소년 고용기회의 양적 확대에 집중되어 왔다(윤민종 외, 2015). 그러나 비진학 청년들을 노동공급 인력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프레임으로는 이들의 노동경험과 경험에 대한 인식에 관심을 갖기 어려우며, 이들 청년들이 노동경험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김지경·이광호, 2013).

그 와중에 비진학 청년의 취업 현황과 노동 환경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기도 하였는데, 비진학 청년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편의점 등의 사업장에서의 노동 조건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으로 이상준·이수경(2013)의 연구는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빵집을 대상으로 최근 비진학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 노동 환경을 조사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위와 같은 업체에 취업해있는 비진학 청년들 중 대다수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50% 가량만이 근로계약을 쓰고 일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의 부당한 노동 행위에 대한 이들 청소년들의 대응은 주로 일을 그만 두거나 참고 일하는 등 개인적이고 순응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취업 상태에 있는 비진학 청년들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누리고 있지 못한 현실을 드러낸다.

한편, 비진학 청년의 취업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채창균·양정승(2015)의 연구는 전문대 졸업자나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취업가능성, 정규직 취업 가능성, 임금 등의 여건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4년제 대졸자들은 고졸자들에 비하여 많게는 2배 이상 취업가능성이 높고, 정규직 취업가능성의 경우도 약 1.5배 높다. 임금의 경우는 전문대졸과 4년제 대졸자가 고졸에 비하여 1.2, 1.5의 비율로 더 높다. 고졸 취업의 문을 넓히고 고졸 취업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최근의 정책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학력에 따른 취업가능성과 임금 등의 노동 여건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진학 청년의 취업 현황과 노동 환경을 보여주는 이러한 연구들은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드러내고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일반고 졸업자 중 비진학 청년들을 별도로 주목하고 있지 않다. 고졸 비진학 청년 중 일반고 출신 청년들은 대학 입시를 최우선으로 삼는 일반고를 졸업하고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성화고 출신에 비하여 더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취업에 적절한 인력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취업의 문이 상대적으로 더 좁고 취업 후의 처우 등에 있어서도 더 열악하다. 따라서 비진학 청년 중에서도 일반고 출신에 대한 별도의 조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연구들은 설문조사 등의 양적 연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진학 청년의 입장에서 경험되는 노동과 삶의 국면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어렵다. 비진학 청년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삶의 여건은 이들이 이후의 삶에서도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사회적 배제는 사회구조적인 조건의 차이로 인한 기회의 박탈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의례나 자아정체감,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주체로 구성되는 과정 등 미시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빈곤과 노동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목과 고찰이 필요하다.

다. 고졸 비진학 청년의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고졸 비진학 청년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윤민종 외(2015)의 연구와 김지경·이광호(2013)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 중에서도 김지경·이광호(2013)의 연구는 19세~24세 청소년들 중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상생활 및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취업자, 구직자, 준비자(진학·취업·창업), 니트(NEET)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 사이의 일상생활 및 의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그들의 입장에서 대학 비진학의 경험, 비진학의 이유나 결과로서의 빈곤 경험 그리고 노동 경험이 어떻게 해석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진학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여 어떤 노동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일을 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운데 비(非)형식·무(無)형식적으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²⁾, 그들의 노동경험과 빈곤경험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와 같은 질문들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라. 근로 빈곤 청년의 삶에 대한 연구(고졸 비진학과 빈곤 사이의 관계 등)

고졸 비진학과 빈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로는 정수남 외(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정수남 외(2012)의 연구는 빈곤 청년들의 삶을 생애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빈곤층 청년의 주관적 삶의 의미와 생활을 정체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가정에서 그들은 돌봄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를 비롯한 가정 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그들은 학교생활에서 요구되는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지 않아서 혹은 학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배제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보를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얻을 수 없었으며, 대부분 스스로 찾고 결정했다. 결국 그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실상 경제적 독립이 거의 불가능한 불안정한 노동자인 아르바이트로 살아간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청년문제를 계급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빈곤 청년들에게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특히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윤민종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고 출신 청소년들 중에서 대학에 진학

2) 평생학습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면서, ‘학습’이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됨은 물론 다양하고 확장된 학습 형식의 포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학교교육으로 대표되는 형식교육 외에도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과 같이 인간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일어나는 전일적인(holistic) 과정으로서 학습이 새롭게 개념화되었다(Kolb, 1984: 31-32). 이러한 의미에서의 학습은 교실의 교수-학습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세계 전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 않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비진학을 결정한다. 현실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당장 가족 생계에 보탬이 되어야 하며,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대학 진학 자체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빈곤층 청소년들은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돈을 번다. 학습과 동시에 생계노동을 하는 이들은 학교 공부에 신경을 쓰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학교성적이 좋을 리가 없다. 이러한 낮은 성적은 다시 비진학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근로 빈곤 청년들의 삶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고졸 비진학과 빈곤의 관계를 드러내고 고졸 비진학 근로 빈곤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대학 비진학 청년들이 니트(NEET)로 남아있거나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고졸 비진학 청년들의 근로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대부분이 취업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 이는 고졸 비진학 청년들의 근로 빈곤 문제의 원인을 청년 개인의 능력부족으로 돌리는 프레임의 재생산에 다름 아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프레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졸 비진학 청년들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통찰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3.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지금 한국 사회의 청년 문제가 빈곤의 문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일반고 졸업 비진학 청년들 중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청년들의 삶을 그들의 일상생활과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경유하지 않은 채 대학 ‘밖’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는 빈곤층 청년들의 삶의 서사를 분석하고 이들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이 국가와 사회를 통해 보호될 수 있다는 공공적 해결에 대한 감각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국가와 기성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비진학 빈곤층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이 청년들을 위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과 역할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가. 일반고 출신 대학 비진학 빈곤 청년의 일상생활과 노동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일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청년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삶을 희망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마음을 품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듣고자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금껏 주목하지 않았고

귀 기울이지 않았던 억압된 목소리를 가시화하는 것이자 그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한 가족과 학교와 사회와 문화와 역사가 어땠는지를 대학 비진학 빈곤 청년들의 언어로 드러내는 작업이다. 한 사람의 삶의 궤적에는 그간의 한국 사회와 노동의 현실, 담론의 변화가 깊게 새겨져 있다(조한혜정 외, 2016: 106). 따라서 대학 비진학 빈곤 청년들의 삶의 궤적과 노동의 서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대학 비진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이 청년들의 빈곤경험 및 노동경험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더불어, 이 연구는 대학 비진학 빈곤층 청년들 내부의 맥락을 드러내고 맥락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그들을 추상적이고 단일한 대학 비진학 빈곤 청년 일반이 아닌 개개인 존재로 보고 그들의 위치성, 언어, 성격, 사고방식, 세계관을 통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진들 자신의 위치성, 언어, 사고방식, 통념과 편견을 성찰하는 것이 면담에 앞서 선행되고 면담 과정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작업이라 본다. 우리가 만날 청년들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일은 그들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경청하고 인정하며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안미선, 2016).

나. 대학 비진학 빈곤 청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육과 사회의 역할

이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학 비진학 빈곤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의 책임과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누군가 한국 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돕고 마땅히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물어야 한다. 즉, 대학에 가지 않고도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가 이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청년들이 삶의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이 사회를 냉소하며 타인과 자신을 혐오하는 가운데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한 경제 위기를 오롯이 개인과 가족이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과 태도에서 전환하여 최소한의 안전망 마련을 위해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회적 토대와 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연구의 말미에 담아내고자 한다.

4. 연구추진방법

가. 문헌 분석

이 연구는 일반고를 졸업 후 대학에 비진학한 청년들에 대한 관련 담론과 선행연구 검토를 위해 문헌 분석을 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련 연구들의 이론적 공헌을 파악하는 동시에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제시하고자 했다.

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한 질적 분석

이 연구는 일반고 졸업 비진학 청년들의 입장에서 빈곤경험과 노동경험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를 전면에 드러내기 위해 심층면담 중심의 질적연구방법론을 활용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문제는 빈곤의 문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이 연구에서는 대학 비진학 청년들 중에서도 일반고를 졸업하고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 청년들이 초·중등학교, 가정, 지역사회, 직장을 비롯한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겪은 다면적인 경험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연구자들은 그들이 다양한 시공간적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이 연구가 면담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주변의 고등학교 교사 등을 통해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제적 문제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 중 면담이 가능한 청년들을 수소문 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일반고 졸업생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것은 터부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를 졸업하고도 대학에 가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무능력이나 불성실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고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빈곤한 가정 상황 또한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숨겨야 할 사실로 여겨지기 때문에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은 더욱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구자들은 예상보다 긴 기간 동안 연구 참여자를 찾아야 했고, 주변의 고등학교 교사들이 지인을 통해 다시 알아본 결과, 3명의 연구 참여자를 만날 수 있었다. 아래 <표 1>은 연구참여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다.

<표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이름	나이/성별	직업	거주지
한수진	19/여	구직 중	충청도 소도시
최성호	21/남	대기업 생산공장 일용직	충청도 소도시
이현규	30/남	백화점 악세서리 매장 매니저	수도권 소도시

면담에 참여한 청년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한수진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지방 도심에서 나고 자랐으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5층에 살면서, 중1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전세대출금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다. 수진은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며 두 살 위 오빠가 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당직으로 홀서빙이나 주방보조 일을, 아버지는 22년째 우체국에서 등기와 택배 업무를 맡고 있다. 오빠는 대학 진학 후 현재는 군복무 중이다. 수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 곳 정도에서 일했다. 현재는 새로운 일을 찾는 중이다. 중학교 때 친구들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후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맺기를 꺼리며, 그 영향으로 학교와 공부에 대해서도 흥미를 잃었다.

최성호는 충북의 한 농촌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형과 누나 2명,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가까이에 떡집을 운영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다. 가정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서울의 한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교수생활을 하는 아버지와 성당에서 사무 보조로 일하던 어머니의 월급으로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했었다. 그러다 성호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에 어머니가 보습학원을 차리면서 빚을 지게 되었고, 아버지가 외국 대학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려는 사업을 하려다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형은 그 대학에 입학했다가 일년 만에 그만두고 사이버 대학으로 학위만 취득하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을 했다. 큰누나도 대학에 합격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사이버 대학에서 학위만 취득했다. 현재도 빚이 많이 남은 상태다.

성호의 부모님은 공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 때문에 성호는 버스로 두 시간 가까이 걸리는 인근 도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지역에서 명문고의 지위를 가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는 했지만 장거리 통학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며 자연스럽게 학교 공부와 멀어지게 되었다. 성호의 어린 시절 꿈은 아버지와 같은 대학 교수였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공부와 담을 쌓으면서 요리사라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요리사라는 꿈도 접은 상태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유명 태국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로 3개월 정도 일했지만 높은 업무 강도, 낮은 급여, 비인격적인 처우 등 때문에 그만두었다. 지금은 집 근처의 대기업 생산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어머니가 학원을 접었고 아버지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중이라 현재 집안에서 유일하게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그림 1> 최성호의 생애사 요약

이현규는 수도권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다. 현규의 어린시절 아버지는 개인택시 운전을 하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는데 택시 수입이 넉넉했기 때문에 꽤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현규가 중학생이 되던 무렵, 아버지가 개인택시 일을 접고 어머니가 동네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부모 간 갈등이 시작되었고, 이 때부터 가세도 기울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음주운전 사고와 뒤이어 일어난 사건 사고 등으로 현규의 가족은 빚을 많이 지게 되었고, 부모 간 갈등도 더 악화되었다. 현규는 중학교 때까지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체중감량과 집중 훈련이 너무 힘들어 고등학교는 일반고를 진학했다.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 경찰행정학과에 응시해서 합격했지만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서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현규는 급식비 등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이것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입대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제대 후에는 부모가 이혼을 했고, 현재는 어머니, 두 살 아래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현규가 제대 후 처음 들어간 직장은 스포츠 매장이었다. 현규는 그 때부터 가족의 생계와 대출 상환 등을 위해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해 왔다. 가끔은 경찰 공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고 싶어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는 현규 삶의 첫 번째 고려사항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가족들을 책임지는 것이다. 25살부터 백화점 악세서리 매장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본사에 고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 사업자로서 안정적이지 않은 수입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 얼마 전에 은행 대출을 통해 구입한 집과 자동차 때문에 현규는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2) 심층 면담

연구 참여 청년들과의 면담은 연구진이 함께 작성한 반구조화된 질문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하여 연구 참여자별로 3~4회 진행했다. 면담 질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금의 한국 사회는 낙오와 탈락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대학진학이 필수코스가 되어버린 사회, ‘대학생’이 마치 그 또래 청년층을 지칭하는 말처럼 되어버린 사회이다(천주희, 2016: 47). 대학을 나와도 기대하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게다가 더욱이 대학진학 또는 재수라는 두 가지 길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일반고를 졸업하고도 빈곤으로 인해 대학에 가지 못한 청년들은 누구인가?
- 이들은 어떤 구체적인 경험과 이유로 대학에 비진학하게 되는가?(빈곤경험과 초·중등 학교교육의 경험 등)
- 이들에게 ‘빈곤’은 무엇이며 어떻게 경험되는가? 빈곤 경험을 통해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실체는 어떤 것이며, 그 감정은 무엇을 매개로 형성되는가?
- 대학 비진학 이후 이들은 어떤 삶의 경로를 거쳐 왔으며, 각 경로에서 이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는가?
- 일반고 출신이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대학 비진학자’라는 정체성이 이들의 삶을 어떻게 틀지어 왔는가?
- ‘고교 졸업 후 취업’이라는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아온 특성화고 학생들과는 달리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를 졸업한 후 대학이 아닌 사회로 진출한 청년들은 어떤 노동 경험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는가?
- 이들의 빈곤경험과 노동경험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 이들은 자신과 세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는가?

연구진은 이 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연구 참여자와 ‘어떤 관계로 만나는지’일 것으로 판단했다. 어떤 연구에서든 연구자-연구 참여자 간 래포(rapport)형성이 중요하겠지만, 이 연구의 경우 연구 참여자가 선뜻 드러내어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는 ‘빈곤’, ‘대학 비진학’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래포 형성이 중요했다. 따라서 심층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그간 살아온 이야기, 드러나지 않게 깊이 묻어두었으면서도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가벼워지고 싶기도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해 각별한 노력과 고민을 했다³⁾.

3) 최현숙은 ‘여전히 내내 잡초들이 희망이다’라는 글에서 화자-청자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듣는 이가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낙인과 수치심과 자책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풀어내자면, 듣는 이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는 내내 중요하다. 믿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구술생애

면담은 2017년 봄에서 가을 무렵까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상의하여 정한 카페 혹은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첫 만남에서는 복수의 연구자가 연구 참여 청년을 만나기도 했지만, 2차 면담 때부터는 한 사람의 연구자가 한 사람의 청년을 만났다. 이러한 방식의 면담이 연구 참여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면담 시간은 1회 당 약 1시간 정도였고, 대부분은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면담은 연구자의 질문과 연구 참여 청년들의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막지 않고 들으려고 했다. 그리고 모든 면담은 연구 참여 청년의 동의 하에 녹음되었고, 모두 전사되었다.

3) 면담 자료 분석

- 분석의 기반: 생애사적 접근과 내러티브 탐구

이 연구는 대학 비진학 빈곤 청년들의 경험을 생애사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했다. 생애사적 접근은 연구 참여자의 특정 경험을 그의 전 생애 흐름 속에서 보는 것이다. 면담을 통해 연구에 참여하는 비진학 청년들은 세계와 삶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했고, 이는 연구자에 의하여 재해석되는 해석의 과정이었다(윤택림, 2004). 자본주의와 학벌주의 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빈곤 청년들은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목소리를 얻기 어렵다. 이 청년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은 스스로를 사회 속에 위치지우고 자신의 삶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이 될 수 있었다(김성례, 2002).

생애사적 접근은 또한 이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를 '세대적인 특징'으로 포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특징의 경험들(학교교육, 빈곤, 노동)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되었으며, 이 역사적 맥락 안에서의 해석은 이들의 삶이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비진학 청년들은 대체로 자라면서 빈곤을 경험해왔고 그러한 경험은 비진학 결정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그들의 삶을 생애사적으로 접근하여 그들 삶의 역사성 안에서 구성되는 이야기를 파악한다면 대학 비진학 청년들의 과거와 현재적 삶, 나아가서 미래의 삶을 포괄한 총체적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했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존중하고 귀 기울이는 것을 통하여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구성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살아내고, 말하고, 다시 살아내고, 다시 말하는" 과정이 내러티브 연구이다(Clandinin, 2007). 또한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에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재구성

사 작업은 시종일관 화자(話者, 말하는 사람)와 청자(聽者, 듣는 사람이자 쓰는 사람)의 밀고 당기기다. 화자는 청자의 표정과 맞장구와 질문과 끼어들기를 통해, 청자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계속 간본다. 그러면서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말할지를 끊임없이 전략한다. 말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서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는가는 듣는 사람의 역량이자 품이다."(최현숙, 2015)

되는 과정이다. 때문에 연구자의 경험이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내러티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남미자, 2013).

- 분석 과정

연구진은 면담 전사 자료를 읽으면서 1차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다음번 면담에 반영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과 분석의 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하면서 연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찰하였다. 자료 수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는 Bogdan과 Biklen(1992)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메모를 작성하고 코드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초기 코딩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묶어 다시 코드화하는 심층코딩을 하였다. 연구진은 심층 코딩 결과를 통해 연구 참여 청년의 빈곤 경험과 노동 경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청년들에게 있어 대학의 의미, 노동의 경험, 빈곤의 경험 등을 중심으로 코드를 재구조화하고 분석을 체계화하였다.

Ⅱ. 비진학 빈곤 청년에게 있어 대학의 의미

1. 수진에게 있어 대학이란

가. “가고는 싶었는데요”

1) 두 번의 사고

수진에게 대학은 막연하게 가고 싶은 곳이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 전 오빠가 낸 두 번의 사고(차사고, 오토바이사고) 후 수진은 대학에 갈 생각을 접었다. 사고비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까지 비싼 대학등록금으로 집에 부담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 가고는 싶었는데요, 오빠가 좀 사고 쳐가지고.

연구자: 뭐 어떤?

한수진: 렌트해서 주차를 했는데 뒤에 오는 차 받아가지고 300만원 물어주고. 또 오빠 킥 배달하다가. 비가 엄청 왔는데요, 배달을 시켜야 되나 봐요, 가게에서.

연구자: 오토바이로?

한수진: 네. 근데 여자 한 명을 쳤대요. 그것 때문에 850만원 나가고. 그래서 보험에서 450주고 저희가 550 내가지고 천만 원 들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졸업 전이라서 그런 거 대학교 가는 거 쓰잖아요, 어디 가고 싶냐고.

연구자: 어디다 쓰는 거?

한수진: 종이에다가 어디 하고 막 그 뭐지 그...

연구자: 대학지원서?

한수진: 네, 네 그런 거. 그런 거 할라 했는데...가고 싶은 데는 있죠, 저도. 근데 못했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내가지고, 엄마가 일도 쉬지도 않고 당일로 받고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내고 그랬는데. 그렇게 일 터졌는데 저까지 가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일부러 안 갔어요.(한수진, 2-3)

수진이 대학비진학을 결정한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지원서를 쓸 무렵 오빠의 사고가 일어난 때였지만 그 전에도 수진이 대학에 반드시 진학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다른 친구들이 수시전형에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학에 진학하면 어떨까 하는 관심을 가지기도 했고, 담임교사와 함께 수진의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를 같이 찾아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학에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러던 중에 오빠의 사고가 “터졌고” 집에 미안한 마음 때문에 수진은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 수진씨가 고3 때 대학을 안가겠다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한수진: 그거 이게 오빠 일 터지고 나서 안 가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연구자: 그럼 오빠 일 터지기 전까지는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한수진: 그때도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애들이 수시 넣고 그러니까 관심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또 일이 그렇게 터지니까 가면 집안에 또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안 가겠다 했어
 요.(한수진, 2-6)

2) 꿈이 있어야 가는

수진에게 대학은 꿈이 있어야 가는 곳이다.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자동차 관련 학과에 가고 싶은 꿈이 있던 오빠와 달리, 수진은 자신이 대학을 꼭 가
 야 할 만큼 확실한 꿈이 없다고 했다.

연구자: 오빠가 큰 사건이 두 번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타이밍이 안 좋아서 수진씨가 대학
 을 가기 어려운 형편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오빠는 대학을 갔잖아. 그런 거에 대해
 서 수진씨 마음은 어땠는지가 궁금하더라고.
 한수진: 저는 아직까지 꿈이 없지만 오빠는 꿈이 있어요. 자동차.
 연구자: 언제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한수진: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수진씨도 사회복지학과 들어가고 싶어했잖아.
 한수진: 남들 도와주는 건 좋은데요. 내신 때문에.
 연구자: 그건 현실적인 조건이니까...그래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한수진: 못 간다 했어요, 쌤이.
 연구자: 고3때 선생님이?
 한수진: 네.
 연구자: 그래도 선생님이 고3때 지원하고 그럴 때 뭔가 써주려고 하고 그러셨잖아.
 한수진: 도와주긴 했어요. 이거 가고 싶냐 저거 가고 싶냐 그럴 때 제가 안 가고 싶다고 그랬
 어요.
 연구자: 왜? 집안 사정 때문에?
 한수진: 네.(한수진, 3-19)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은 수진은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수진
 의 내신 성적으로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기는 어려웠다. 대신 담임교사는 수진의 내
 신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찾아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진은 그
 런 교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다. 집안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
 지 않았기 때문이다.

3) 등록금이 아까운

수진은 집에 큰 부담을 지워야 하는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까지 대학에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수진은 어릴 적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할 때에도 꼭 필요한 곳 아니면 받은 용돈을 다시 모아두었다가 부모님께 돌려드리곤 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 대부분을 집에 보태면서 생활해왔다. 그래서인지 대학에 가기 위해 필요한 큰 액수의 등록금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부탁드려야 하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 보였다.

: 학교에 돈 주면서 학교 다닐 그걸, 그건 별로라서 이렇게 놀면서 그냥 돈 벌고 알바하고 당일 알바도 해보고 그랬어요.

연구자: 그 전에는 대학에 대한 생각은 어땠어요

한수진: 가면 술 먹을 것 같아서...(한수진, 1-1)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드리면서까지 대학에 간다 해도 수진에게 대학은 “가면 술 먹을 것 같”은 곳이다. 기껏 가면 술이나 먹을 것 같은 대학에 비싼 돈까지 주고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수진은 대학을 가는 대신 자유롭게 놀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삶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일(아르바이트)을 하며 지내온 수진은 여전히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수진이 그동안 해 온 일들이 대학 재학 또는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이다.

연구자: 또 대학을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한수진: 다 알바만 해봐서, 학교 다닐 때라. 그냥 간단한 서빙 같은 거 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안 느껴봤어요.(한수진, 2-6)

4) 주변으로부터 권유받지 않는

수진의 주변에 대학 진학을 권유하는 사람은 없다. 가족들도 수진에게 대학 진학을 권유하거나 이를 위해 사교육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하지도 않는다. 즉, 수진의 집에서 수진의 대학 진학은 온 가족이 나서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아니다⁴⁾.

4) 신명호(2015)는 『왜 잘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나』라는 책에서 아버지가 대졸 이상 학력의 사무직인 중산층 부모와 자녀, 고졸 이하 학력의 노동계층 부모와 자녀를 합쳐 총 29명을 심층 인터뷰해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의 양육 관행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생계유지가 우선인 저학력·노동계층 부모들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는 경향이 강하고, 학벌 인식·위기인식·교육열망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저학력일수록 학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사회 통념과 달리 저학력일수록 학벌인식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은 사회구조 속에서 겪는 생애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저학력 노동자가 일하

: 오빠도 한 학기 지나고 군대 가니까 아빠가 돈 아깝다고 그러더라구요. 등록금 냈는데 한 학기도 안 끝나고 바로 군대 가니까. 오빠 자퇴한대요.

연구자: 자퇴는 누구 생각인 거예요?

한수진: 오빠 생각이요.

연구자: 아빠는?

한수진: 아빠도 하라 했는데.

연구자: 자퇴하라는 건 아빠가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수진: 네. 저도 별로 안다녔다 자퇴할 것 같아서 안 갈라구요.

연구자: 수진씨 생각에?

한수진: 네.(한수진, 3-15)

수진의 아버지는 수진이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일을 하기 바랐다. 그런 아버지에게 수진은 원망이나 서운함 대신 ‘미안함’을 느낀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일을 해서 집에 보태왔던 수진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더더욱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될 때면 아버지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이 미안하다.

연구자: 그러면 아빠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한수진: 아빠는...미안하죠.

연구자: 어떤 게?

한수진: 혼자 일하게 해서.

연구자: 아빠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이 생긴 건 언제부터였어요?

한수진: 일 설 때. 지금.

연구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아빠가 일을 하는 게 미안한 마음은 아니었구나?

한수진: 그럴 걸요.

연구자: 근데 졸업하고 나서?

한수진: 일 잘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른 거 하고 그랬다가 그래서 미안하죠. 집에 있으면 “일 안 가냐?” 그러면 “나 잘렸어” 그러면 “잘 한다 잘해” 이려고 그게 다예요. 별말 안 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러니까.(한수진, 3-14~15)

수진의 어머니도 수진이 꼭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고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수진의 어머니에게 중요한 건 수진의 ‘고등학교 졸업’이었다. 남편과 자신 모두 중학

는 시장은 학력이나 학벌 차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에 따르면, 저학력 노동자층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오는 자신감 및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모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자녀의 학업 진로를 이끌지 못하고, 또 부유한 가정에 비해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했다는 자격지심 때문에 공부 안 하는 자녀를 단호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위와 같은 발견을 통해 볼 때, 저자는 학업 성적의 차이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계급적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교 졸업이라는 학력으로 살아오고 일해 오면서 겪은 경험들 때문인지 자녀들만은 반드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기 바랐다.

수진의 담임교사 역시 수진을 챙겨 어떻게든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자 돕는다. 그러나 고등학교에도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해서는 “돈 버리”는 일로 여긴다.

: 학교 분위기로 보면, 대학을 가야된다는 분위기였어요? 대학을 보내려는 분위기였어요?

한수진: 받은 보낼 것 같고 받은 안 보내는 그런...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만 따로 불러서 내신 좀 더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주고. 안 가는 애들은 그냥 너네 가도 똑같이 할 것 같다고.

연구자: ‘똑같이’라는 게 어떤?

한수진: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 보면, 선생님들 다 그렇잖아요, 너 대학교 가도 똑같이 할 거다 라면서 가지 마라. 돈 버리지 말고 그냥 좀 쉬다가 일 하라고 그랬어요.(한수진, 2-3)

나.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라고”

1) 엄마의 바람

중학교 학력으로 살아온 어머니는 수진의 고등학교 ‘졸업’에 큰 의미를 두었다. 평소 수진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지만, 수진이 학교 친구들과 싸우고 가출했을 때 수진의 어머니가 가장 크게 걱정했던 건 수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까 봐 였다.

한수진: 엄청 크게 싸운 적은 있어요. 중학교 때 가출했을 때.

연구자: 중학교 때 언제?

한수진: 중3때. 애들이랑 싸우고 나서 다니기 싫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그냥 다니라고 해가지고 하루 가출했다가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맞았어요 많이, 처음으로. 엄마가 너 말 안 들으면 죽겠다고 그런 얘기 하고. 그래서 어찌다가 졸업은 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좋아해가지고.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도와주기도 하고.

연구자: 관계가 좋아졌어요?

한수진: 네. 그때 이후로는 더 많이.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좋아졌어요. 안 싸워요.

(중략)

한수진: 엄마 아빠 다 중졸이에요. 그래서 오빠도 고등학교 졸업은 시키고 싶고 저도 시키고 싶었는데 애들 때문에 안다닌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가다가 졸업 못하면 어떻게 하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연구자: 수진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하는 이유를 엄마가 말씀해주셨어요?

: 엄마가 중졸. 중학교 졸업생이라서. 그래서 오빠랑 저라도.
연구자: 고등학교는 졸업하라고...
한수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구자: 엄마가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한수진: 직접 얘기했어요.(한수진, 1-6)

어머니의 바람대로 수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수진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중학교 때 학교 친구들에게 당한 폭력으로 인해 수진이 고등학교에도 아예 진학하지 않으려 하고, 우여곡절 끝에 오빠를 따라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까 하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늘 걱정이었다. 그런 수진이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으니 어머니에게는 큰 소원을 이룬 셈이다.

연구자: 엄마랑은 좀 말이 통해요?
한수진: 친구 같아요.
연구자: 엄마가 수진씨를 많이 이해해 주시나보다.
한수진: 중3때부터 고2때까지는 안 해줬는데...
연구자: 그 때는 이해 안 해주고 고3 때 갑자기?(웃음)
한수진: 그 때는 막바지니까 잘 하라고. 공부하라는 소리는 없었어요. 졸업장만 따라고. 따서 가져오니까 좋아하던데요. 고맙다고 그러던데요.(한수진, 1-6)

2) 고등학교 졸업의 의미

누구보다 수진의 어머니는 수진이 고등학교만은 잘 다니고 졸업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수진에게 고등학교는 흥미를 느낄만한 곳이 아니었다. 수진에게 고등학교는 “독서실 같은 곳”이었다.

연구자: 고등학교는?
한수진: 독서실 같은 곳.
연구자: 독서실이 수진씨에게 어떤 곳인가?
한수진: 고1 때는 편했는데 고2 때부터 고3 올라갈 때가 제일 바쁘잖아요.
연구자: 고1 때랑 달리 고2로 올라가면서 확 바뀌는 분위기 그런 걸 느꼈어요?
한수진: 더 빡세게 가르치잖아요. 애들 대학 가겠다고 공부하고 있는데 시끄럽게 하면 조용히 하라고. 그때 진짜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입 다물고. 쉬는 시간에도.
연구자: 쉬는 시간에도?
한수진: 네. 자습 때도. 저는 공부를 안 하니까 떠드는 데 애들이 시끄럽다고. 다른 애들 보면 다 자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싸운 적도 많아요.(한수진, 4-8)

조금은 여유가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고등학교 1학년 때와는 다르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학교의 분위기는 대학을 준비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학에 꼭 가야한다는 생각이 없던 수진에게 학교는 쉬는 시간에 조차도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있어”야 하는 곳이었다. 시끄럽게 할 거면 차라리 조용히 잠을 자주는 것이 권유되는 곳이었다.

수진은 학교 수업이 재밌었던 유일한 때를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업으로 기억한다. 고1 담임교사의 수업이었던 영어수업에서는 교과서 외에도 교사가 따로 재구성해서 준비한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았다. 그 외 대부분의 다른 수업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과서에 줄을 긋거나 칠판에 적은 내용을 공책에 적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수진에게 그런 수업들과 교사의 지시들은 그 필요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지루하지만 견뎌야 하는 것이었다.

: 학교 수업이 재밌었던 때가 있었어요, 혹시? 초중고 뭐 다 합쳐가지고?

한수진: 고1 때.

연구자: 고1 때는 수업 재밌었어?

한수진: 네.

연구자: 무슨 수업이 재밌었어?

한수진: 영어

연구자: 어.

한수진: 담임샘이 영어라서.(웃음) 남자샘인데요 재밌게 해줬어요. 안 지루하게. 그냥 막 프린트 같은 것도 막 일일이 다 짜가지고 샘이 직접 해주고. 또 녹음한 거 있어가지고 찍어서 그거 막 보여주고 그랬어요.

연구자: 다른 샘들은?

한수진: 그렇게 안 해요.

연구자: 어떻게 해요?

한수진: 그냥 책 피라 하고, 그냥. 줄그러라 그러고 칠판에 쓸 테니까 그거 적어 쓰라고. 요약집 같은 거 보면 다 똑같이 다 나와 있어요. 한국사는 6.25전쟁부터 싹 다 쓰라고. 그거 안하면 벌점 주고 태도 점수 깎고 막 그랬어요.

연구자: 수업 시간에 그걸 그냥 쓰래요?

한수진: 그냥 그걸 다 적어요. 칠판에 적으시고 저희보고 적으라 하고 또 설명을 해요. 그것도 요약집에 있어요.(한수진, 1-3~4)

이처럼 수진에게 고등학교는 ‘지루한 곳’, 잠으로 “시간 때우러 가는 곳”이었다. 그러면서도 학교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심심함을 달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친구들과 밥을 먹고 화장을 하며 학교 끝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곳이기도 하다.

: 수진씨에게 학교는 어떤 곳이었어요?

한수진: 시간 때우러 가는 곳.

연구자: 어떻게 시간을 때웠어요?

한수진: 잤어요.

연구자: 자고.

한수진: 밥 먹고, 또 자고 일어나서 또 화장하고 알바가고.

연구자: 학교가 화장하는 곳이라고 하는 게 집에 갈 때는 화장을 다시 지웠어요?

한수진: 아니요, 그냥 그 상태로.

연구자: 근데 왜 집에서부터 화장을 안 하고 학교에 가서 화장했어?

한수진: 답답해서요. 그래서 아침에서는 그냥 생얼로 갔다가 6교시까지 있으면 한 4-5교시 사이.

연구자: 그때 왜 화장을 하지? 나갈 준비 하는 건가?

한수진: 알바 때문에.

연구자: 그러면 알바 하는 곳에서 화장하고 오라 그래?

한수진: 아니요. 하나 안하나 신경 안 써요. 그냥 머리만 묶으라고. 머리카락 날린다고.

연구자: 그럼 그냥 수진씨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였어?

한수진: 심심하니까.(웃음)(한수진, 4-9~10)

또한 수진에게 수업은 수진에게 폭력을 가했던 친구들과 모둠으로 만나야 하는 건
 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수업에서는 교사가 모둠을 정해주지 않고 학생들이 알아서 하
 고 싶은 사람끼리 모둠을 만들어보라는 경우가 많았고 모둠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수
 업이 많았기 때문에 수진은 이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연구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런 마음이 든 게 언제부터인 것 같아?

한수진: 중1때부터. 애들 때문에.

연구자: 근데 친구들이 싫어도 수업이 좀 재밌으면 재미를 붙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수진: 조를 짜서 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안했어요.

연구자: 조를 짤 때 그 친구들이랑 같이 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어?

한수진: 무리지어서, 조 짤 때 짝수니까, 여섯 명씩 하고 싶은 사람끼리 해라 그러니까.

연구자: 그렇게 되면 힘들었을 수 있었겠다. 그럼 조를 안 짜는 수업은 없었어?

한수진: 거의 대부분은 있었어요.

연구자: 다 조를 짜서 수업을 했어?

한수진: 네.(한수진, 4-10)

지루함을 견디고 심심함을 달래며 수진은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나이를 기준으로 아직까지 미성년자인 수진에게 고교 졸업장은 별 쓸모

를 갖지 못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수진이 기뻐던 건 ‘가기 싫었던 학교를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 학교 가기 싫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샘이 해줘서 졸업했잖아요. 졸업장 갔다주니까 엄마가 되게 기뻐했잖아. 본인한테는 어땠어요? 2월8일. 2017년 2월8일.
한수진: 제가 빠른 년생이라 술을 못 먹잖아요. (모두 웃음) 쓸모가 없어요. 있어봤자...다른 애들은 졸업장 들고 가서 애들이랑 같이, 졸업했으니까 술 먹자고. 그런데 전 못 먹으니까...좀 그랬어요. 막 자랑하던데요, 단톡에다가, “야 술 먹는다” 이러고.
연구자: 그래도 조금 뭐랄까, 약간 기뻐할 것 같기도 해요.
한수진: ‘학교 안 간다’ 이 생각.(모두 웃음)(한수진, 1-7)

다. “(대학 안 나오면) 막 대하게 될 것 같아요”

1)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수진은 중학교 때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이후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이 때문에 만약 대학에 갔을 때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꼈다. 수진이 고등학교 때 직업위탁반을 신청하지 않았던 이유 역시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연구자: 고등학교 때 직업위탁반이 혹시 있었어요?

한수진: 네. 있었어요.

연구자: 수진씨는 거기 갈 생각은 안했어요?

한수진: 거기 가면 또 다른 애들이랑 친해져야 하니까 귀찮아질 것 같아서.

연구자: 직업반이 한 반이었어요?

한수진: 다른 데로, 애들이 원하는 데로 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전 안 갔어요.(한수진, 3-13)

수진은 중학교 때 친구들과의 심한 갈등으로 학교와 공부에 흥미를 잃었다. 친하게 지냈던 친구3명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싸운 후 온라인상에서 심한 언어폭력을 당하고 친구들의 의견에 맞춰주며 계속 “끌려 다녀”야 하기도 했다.

연구자: 애들이랑은 안 좋게 싸우고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한수진: 그냥 각자 의견 안 맞아가지고 싸운 게 좀 많았어요. 그냥 자기들은 이거 하고 싶은데 한 명이 안 하고 싶다고 그러면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연구자: 무리를 지어서? 아니면 1:1?

한수진: 3:1이요.

: 수진씨 어디예요? 3이에요, 1이에요?

한수진: 1이요. 그래서 번호 바꾸고 막 학교 안 가고 그랬다가 다시 또 가니까 웃으면서 반겨 주더라고요. 가식적이어서 그냥 그때 다시 또 나오고 그랬어요.

연구자: 그때가 중...

한수진: 중3때.(한수진, 1-4~5)

중학교 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심한 어려움을 겪고 학교생활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웠던 수진은 교사들과도 갈등을 겪었다. 근본적 원인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에 있었지만 교사들에게 수진은 학교에 나오기 싫어하고 교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불성실한 학생으로 비춰졌다.

연구자: 고1 때가 재밌었고, 중학교 때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한수진: 중학교 때는 쌤들이랑 다 싸워가지고.

연구자: 왜?

한수진: 저 하는 거 맘에 안 든다고.

연구자: 뭐가 맘에 안 든대요?

한수진: 막...학교 똑바로 안 다니고 그런다고. 쌤들한테 대든다고. 그래서 시험 때도 아예 안 오고.

연구자: 왜 안 갔어요, 시험 때?

한수진: 그냥 애들 얼굴 보기 싫어서. 그래서 막 혼자 다녔어요. 그래서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고 막 애들처럼 막 무리지어서 한 10명씩 다니는 것 보다는 짝수로 좀 적게 다니는 걸 좀.

(중략)

연구자: 어떻게 싸워요? 말로?

한수진: 보통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막. 그니까 제가 밀려가지고. 한 명이 욕하면 따라서 다 이렇게 욕이 날라 오니까. 나가면 다시 또 초대하고 또 욕하고.

연구자: 탈퇴해야겠네.

연구자: 카톡 탈퇴해야겠다.

한수진: 해도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문자로 다시 또 욕 써놓고 그래요.(한수진, 1-4~5)

중학교 때 친구들, 교사들과의 심한 싸움과 갈등으로 자퇴까지 하려고 했던 수진에게 고등학교는 우여곡절 끝에 “그냥 오빠 따라서 그냥” 갔던 곳이다.

연구자: 근데 왜 보통은 일반고에 가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니니까 대학을 가려니 하고 사람들도 흔하게 생각하고. 근데 수진씨는 어땠어요, 일반고 가면서?

한수진: 그냥 고등학교는 그냥 오빠 따라서 그냥 갔어요. 중학교 때는 애들이랑 싸워가지고 잘 안 다녔어요, 중학교 때는. 막 자퇴하겠다고 그랬는데 쌤이 그럴 거면 오빠 있는 데로

해가지고 오빠 땀에 잘 다녔어요.(한수진, 1-1)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교사의 권유로 나이로는 두 살 위의, 학년으로는 한 학년 위의 오빠와 같은 고등학교에 가게 되고, 오빠 주변 친구와 오빠 선배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수진은 계획에 없던 고등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연구자: 그때는 왜 오빠가 수진씨를 소개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수진: (3초 후) 엄마가 좀 챙겨주라 해가지고. 중학교 때도 안 다니겠다 하는 걸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챙겨주라고 해가지고 편하게 다녔어요. 제일 편하게 다녔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애들이랑 싸워가지고 다니기 싫었는데 다니니까...

연구자: 뭔가 아는 사람도 있고, 오빠 친구도 있고.

한수진: 또 반에 복학생 오빠가 몇 명 들어왔어요. 저희 반이 제일 많았어요. 1학년 때. 다른 반 한 2-3명 될 때 저희는 7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중에 오빠 친구 몇 명 있고. 여자 2명 빼고 다 오빠 아는 사람이라구요. 다 친해지고 막.(한수진, 2-7)

그러던 수진은 오빠가 1년 먼저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학교에 대한 흥미를 다시 잃게 된다. 그만큼 수진에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학교를 다니기 싫게도, 다니고 싶게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안 가면 차별 당할 것 같은

수진에게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에 비하면 관심의 대상도 주변으로부터 권유 받는 곳은 아니었지만 막연히 가고 싶은 곳이기는 했다. 수진에게 대학에 흥미롭고 궁금했던 건 “움직이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수진에게 대학은 고등학교 때까지와는 다르게 수업과 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대학이 어떤 곳인지 수진이 듣고 접할 수 있는 통로는 TV나 친구들이다. 수진은 가족들을 비롯한 가까운 주변에서 대학이 어떤 곳인지 들을 기회가 거의 없다.

연구자: 수진씨에게 대학교 수업은 어떤 이미지에요

한수진: 큰 대학교에서 움직이면서 강의 같은 거 듣잖아요.

연구자: 움직이면서

한수진: 학교에서는 앉아서 선생님 얼굴만 바뀌는데. 재밌어보여요.

연구자: 그런 건 상상을 한 건가

한수진: 티비나 애들 하는 얘기 들으면서.(한수진, 3-15)

수진에게 대학은 막연히 가보고 싶은 곳이면서 취업 이력서 학력란(대학, 학과, 학

점)을 채울 때 필요한 이력이다. 수진은 취업 이력서를 쓸 때 대학을 들어갔어야 했나 라는 생각을 한다.

: 수진씨는 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한수진: 취직할 때 이력서에... (4초 후) 근데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지 않아요? 근데 안 나왔
다 하면 취직하기 좀 힘들어 보여요.

연구자: 실제로 그렇게 느꼈던 경험이 있어요?

한수진: 대기업 같은 데... 이력서 다시 쓰라 해 갖고 넣으라 했던 데 있어요. 그래서 넣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연구자: 이번처럼 대기업에 취업할 때 대학졸업장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건 수진씨가 그
냥 느끼는 거구나?

한수진: 네. 만약에 대학에 다녔다가 졸업해도 여기 학교 나왔고 학과 나왔고 학점이 몇 점이
다 그걸 쓰고는 싶었는데요. (5초 후) 별로...(한수진, 2-5)

또한 수진에게 대학은 안 나오면 차별 당할 것 같은 곳이다. 취업을 한다 해도 거
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연구자: 일할 때 필요할 것 같진 않고?

한수진: 취업할 때. 나중에 직장 다닐 때 필요할 것 같아요.

연구자: 나중에 직장 다닐 때는 왜 필요할 것 같아요?

한수진: 대학 나온 사람이랑 안 나온 사람이랑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자: 예를 들면?

한수진: 안 나오면 좀 차별할 것 같긴 해요. 좀 더 막 대하게 될 것 같애요.

연구자: 그런 걸 뭐 아직 몸으로 느낀 건 아닌 거죠? 경험해본 건 아니고?

한수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연구자: 또 대학을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한수진: 다 알바만 해봐서, 학교 다닐 때라. 그냥 간단한 서빙 같은 거 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안 느껴봤어요.(한수진, 2-5~6)

수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아르바이트 경험 밖에는 없기 때문에 일을 하면
서 대학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실제 경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 사
회에서 대학에 다니지 않거나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
의 간접 경험을 수진은 이미 내면화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대학 비진학이라는 자신
의 조건이 취업할 때 그리고 취업 후 직장에 다니면서 폭력과 차별의 근거나 빌미로
작용할 것이라고 수진은 예상했다.

2. 성호에게 있어 대학이란

가. “배우는 게 없는”

1) 공부란,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최성호의 아버지는 서울의 한 대학의 평생교육원 교수였고 어머니는 보습학원을 운영했다. 부모님이 모두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학업성적을 강조하는 집안 분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성호도 초등학교 때 방학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진행되는 필리핀 영어연수에 참여하면서 영어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때는 진짜 재밌었는데, 공부하는 게. 중학교 때는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었어요. 어렸을 땐데 영어를 배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 필리핀에 가면 1:1로 수업을 해요, 필리핀 선생님이랑. 처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예 몰라요. 자기 혼자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해를 했냐고 물어봐요. 그럼 그것도 못 알아듣죠.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1주일 지나면 아 이 선생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아요. 사전도 찾아보고 단어를 알면 이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국을 왔는데 다른 애들이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제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공부를 더 했죠. 3학년 때 6학년 문제도 풀어보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가 제일 저한테는 그래도 주특기였죠, 영어가. 경시대회도 나가고, 상도 받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3때 수능 같은 거 보면 3등급 이렇게 나오고 그 정도로 잘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공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갑자기. 몸이 너무 힘들니까 하기도 싫고. (최성호, 1-8)

최성호는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배움의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꼈다. 그렇게 자기의 것으로 만든 배움은 어딘가에 쓸모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최성호는 삶에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 배울만한 것으로 보았다.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공부에 흥미를 가져본 적이 없지만 지금도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 외국인을 만나게 될 수 있으며, 그럴 때 영어를 할 줄 알아야 외국인에게 자신의 요리를 설명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 아, 그럼 성호씨한테 ‘배울만하다’ 라고 하는 건 뭔가 쓸 수 있는 거네요?

최성호: 제 거가 돼야죠. 공부도 내 거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싫었고.

연구자: 영어 되게 좋아했잖아요.

최성호: 지금도 영어 공부 다시 하고 싶어요.

: 영어는 공부해서 써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안했어요?

최성호: 음...외국인이랑 얘기하는 건 재미있었죠. 엄마 아빠가 학원하셨었거든요. 학원에 원 어민 선생님이 있으니까. 지금은 안하는데. 남들은 언어민이랑 얘기를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았고. 외국인이랑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의 생활을 알잖아요. 그런 것도 재밌고. 잘못된 표현들을 알려주세요. ‘니가 방금 말한 건 잘못됐다’ 다시 알려주면 정확히 배우니까. 언어를 배우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싶은 이유가 요리를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원했던 것처럼 가게를 차릴 수도 있지만 어느 호텔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외국 손님이 와서 주방장한테 요리 좀 설명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원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게를 차려도 주방이 나와 있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요리를 하는 요즈음 그런 식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왜냐면 대부분의 주방은 다 안쪽에. 되게 답답해요, 안쪽에서 일하면. 그리고 손님들이 이 요리를 할 때, 더러울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못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보여주면서 우리 가게는 이 정도로 깨끗하다 이런 것도 보여줄 수도 있고. 손님들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 알려줄 수도 있고. 좀 그런 식으로 차려 보고 싶기도 하고. 외국인이 왔는데 내가 한 요리를 내가 설명을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내가 요리한 걸 설명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최성호, 1-16)

최성호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면 자신의 다양한 일(아르바이트) 경험을 배움과 연결지었다. 직접 몸으로 경험해보는 것 자체를 배움이라고 생각했고, 몸의 경험을 통한 배움을 통해서 습득한 기술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좋아했다.

이곳 저곳에 많이, 좀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뭐라도 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 학교 안 간다면, 방학 때도 전 학교 안 나갔어요, 나가기 싫어서. 그럼 그 때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택배도 뛰어 보고. 일식집에서도 일했었거든요, 횡집에서. 그런 것도 해보고. 아닌 것 같으니까 그만 두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직업을 가져보는 거예요. 서빙도 해보고 ‘서빙은 좀 내 체질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알아가는 거. 그러다가 일식주방에 들어갔는데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요리를 꿈꾸고 나서였죠. 일단 주방에 들어가봐야겠다, 그게 우선이겠다 생각을 해서 주방을 들어가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일식은 힘든 게, 초밥을 만들거나 뭐 그런 일식이면 솔직히 할 만한데, 횡집은 살아있는 거를 때려잡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냄새가 엄청 나요, 비린내가. 샤워를 막 몇 번을 해도 냄새가 나요. 살아있는 생물 잡는 게 좀 그게 좀. 칼로 머리 자르고 기절시키고 해야 되니까. 근데 또 하다보면 재미가 있고. 제가 일식집에서 오래는 안 했어요, 학교 때문에. 한 달 일하고 물고기 잡을 줄 알게 됐는데. 태국요리전문점을 갔는데 물고기 잡는 요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도움이 된 거죠. 여기는 죽어 있는 거를 손질하는 거. 오히려 더 쉽죠, 죽어 있는 거니까. 살아있는 건 막 이렇게 왔다갔다 거리고 괜히 잘못 치면 손 날라 가고. 죽어있는 거니까 손질만 하고 튀기고 이렇게 하니까. 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얻는 게 내 거가 되니까.(최성호, 1-16).

최성호는 지식 그 자체를 배우는 것보다 삶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배우는 과정을 즐긴다. 요리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도 배우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성호는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면서 각자의 레시피를 공유하면서 서로 가르치고 배웠다.

제가 개보다 훨씬 빨리 배웠죠, 모든 걸 다. 왜냐면 개네는 사람이 많았는데 개도 그냥 그 위치에서만 일을 한 거예요. 개가 들어오니까 “너가 튀김하고”, 6개월 간 튀김했던 사람은 다른 걸 배울 기회가 온 거죠. 개가 들어왔으니까. 애는 계속 튀김 한 거예요, 저는 다 배울 때까지.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알려주고. 니가 나중에 배울 때 좀 수월하라고 레시피도 적어서 주고.. 그러다 개가 두 달 쯤 될 때 그 때 샐러드를 배웠나봐요. 저는 다 아니까 집에서 쉬면 개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요리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배우면 제 거가 되는 거예요. 요리사들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뭘 먼저 넣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 다르니까, 제 거가 되는 거죠. 제가 완전 그 사람랑 똑같지가 않으니까. 저는 제 거를 개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개는 지가 해보고 지가 더 편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둘이 서로 얘기할 때 둘이 서로 넣는 순서도 다르고 다 달라요. 너는 그렇게 넣냐고, 나는 이렇게 넣는다고.(최성호, 1-5).

성호는 한 때 대학교수를 꿈꿨고 외고에 진학할까를 고민했던 적이 있다.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좋은 편이었다. 중학교 때까지 어머니의 학원에서 어머니로부터는 영어를, 형으로부터는 수학을 배웠다.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성호의 성적은 곧 학원의 성공과도 연결되었고 어머니와 형은 성호의 성적에 예민하게 되었는데, 성호는 점점 배움의 즐거움을 잃어갔고 혼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 스스로 쓸모를 찾지 못한 공부에는 점점 흥미를 잃게 되었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어머니와 형이 공부를 강요하지 않게 되면서 공부와는 답을 쌓고 지내게 되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6학년 때까지는 와, 진짜 너무 재밌고 단어도 혼자 외우고 맨날 그랬는데 중학교 내신공부하면서부터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죠. 하기도 싫고 혼나기도 싫으니까. 안 혼나려고 영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가 나한테 그런 존재가 돼 버린 거죠.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되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지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놔 버렸죠.(최성호, 1-18).

가정형편이 극도로 나빠졌지만 성호의 부모님은 성호를 인근 도시의 명문고등학교로 굳이 진학시켰다. 자취를 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성호는 하루에 왕복 4시간 가까이 걸려 통학을 했는데, 최성호는 자신이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된 이유를 통학 때문이

라고 생각했다.

1: 멀리까지 고등학교에 가게 된 거는?

최성호: 그냥 뽕뽕이죠.

연구자1: 근데 보통은 집 근처로 가지 않아요?

연구자2: 지방이라 가지고 학교가 많지 않아서 그런가?

최성호: 근데 저희 아빠랑 형도 저랑 똑같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아빠는 엄청 좋아하는 거죠.

근데 형은 또 “너 이제 큰일났다. 멀다” 왜냐면 집에서 1시간 40분.

연구자1: 형도 그랬었고?

최성호: 근데 형은 자취방을 얻어줬었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가게 사정이) 힘들었고, 형이 다닐 때는 그래도 집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그래서 (저는) 아침에 6시에 맨날 일어나서 학교 가니까 가면 잠만 자는 거예요.(최성호, 1-9)

자신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학교교육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던 차에, 하루에 4시간 가까운 시간을 버스에서 보낸다는 것은 최성호가 학교 공부에 손을 놓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굳이 고등학교 3년을 다닌 이유는 자퇴를 하더라도 별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자: 자퇴가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졸업 한 거잖아요.

최성호: 그냥...다시 못 오잖아요. 내 포레 애들이랑 다시 수업 못 듣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학창시절은 학창시절이니까 끝까지 지내보고 싶기도 하고. 학교 친구들이 너무 좋았어요, 학교 애들이.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 내가 3학년이 되면 달라질 수도 있겠다, 남들 다 공부하니까 나도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버텼는데 공부는 진짜 그때까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애들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은 많이 했죠, ‘아, 나도 공부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졸리고 피곤하니까 자고.(최성호, 1-18).

2) 내 것으로 만들 게 없는 대학교육

최성호에게 배움은 쓸모와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다. 그런 면에서 대학교육이 자신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최성호가 대학을 배우는 게 없는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학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에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생각 없이,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과 달리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최성호는 대학교육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가, 그만큼의 돈과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와 같은 대학의 효용가치를 꼼꼼히 따지게 되었다. 최성호는 나름

대로 대학이 “그렇게, 막,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

: 그런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리학과? 전문대학에...그런 직업을 갖기 위한 학과는 생각 안했어요?

최성호: 저는 이제 저희 집이 좀 어려워가지고 대학을 막 가고,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막 이렇게...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솔직히 도움이 그렇게 막 많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가봐서 주방에서 직접 일을 해보고 좀 돈도 버니까.(최성호, 1-1)

최성호가 그런 생각을 하는 데에는 주변 사람들의 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성호는 대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술 먹는 거 말고는 배우는 게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 주변에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뭔가를 배운다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자: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해?

최성호: 학교는 휴학 냈어요.

연구자: 아, 다시 안 갈 거야?

최성호: .제가 봤을 때는. 대학은 정말 별 것이 없어요. 배울 게 없는 곳이에요. 정말 술 문화 밖에 없어요, 대학은. 제가 봤을 때. 아니 뭐 내년에 이제 새내기 들어오고(말끝을 흐림)
(최성호, 3-9)

하고 싶은 걸 솔직히 말하면 남들보다 빨리 찾은 거잖아요. 제 친구들 보면 지금 이제 종강해서 다 술만 먹고 있거든요. 저도 물론 먹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대학교 가도 맨날 과제에 시달려 있고 술만 먹고 하는데 저는 제 걸 만들고 돈도 벌고 좀...그래서 대학을 안 갈려고 했던 것도 솔직히 많아요. 대학에 있으면 뭔가 시간낭비 하는 것 같고 딱히 도움이 되는 게 없고 돈만 나가고...(최성호,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성호는 평생교육원 학위과정에 들어갔다. 여전히 대학은 배울 게 없다고, 오히려 식당에서 주방보조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평생교육원은 휴학할 거라고 말했다. 최성호에게 대학은 술 먹고 노는 것으로 대표되는 일종의 문화향유의 공간이다. 대학은 별 것 없다고 말하면서도, 내년에 새내기가 들어오면 뭔가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다며 말꼬리를 흐리는 최성호에게 대학은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돈과 시간을 투자할 가치는 없지만 돈과 시간이 있다면 누리고 싶은 시공간이다.

나. “취업에 도움은 되지만”

1) 졸업장으로서의 의미

최성호의 형과 누나는 사이버대학에서 학위만 취득했다. 최성호도 올해 아버지가 일했던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학위과정을 등록했다. 최성호의 형은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유치하려고 했던 대학의 첫째 입학생이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총장으로 있던 대학에 문제가 생기면서 최성호의 형도 자퇴를 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최성호의 형은 어머니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사이버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성호의 큰 누나는 건국대학교 사범대학에 합격했지만 대학 등록금과 서울에서의 생활비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사이버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으며, 형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학원에서 강사로 최근까지 일을 해왔다.

: 형은 대학 갔어요?

최성호: 형은...이제...좀 얘기하면 긴 데. 아빠가 대학교를 차렸었어요. 미국대학교를 한국에 가져와서 차렸는데, 형이 거기를 다녔어요. 저희 집에 힘들어지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아빠가 차렸는데 안 좋게 일이...안 좋아져서 형도 이제 사이버대학교로(최성호, 1-9)

연구자: 누나들은 대학교 다 갔어요?

최성호: 첫째 누나는 건대. 둘째 누나는 교통대. 첫째 누나도 학원에서 선생님 하는데, 대학교 필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사이버로 학점만 따갔고. (최성호, 1-9)

최성호의 형과 누나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일을 하면서 대학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사이버대학이다. 최성호는 형과 누나를 보면서 사이버대학이 대학 졸업장을 가질 수 있으면서도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효과적인 곳이라고 생각했다.

연구자: 성호씨가 수업을 들으러 가는 건물은 세종대 평생교육원이겠네요? 사이버는 아니고 오프라인일테니까.

최성호: 그렇죠. 본대에서도 수업을 받고 거기서도 수업을 받고. 어떻게 보면 세종대학교생이랑 똑같은 걸 배우는 건데 들어온 과정이 다르죠. 세종대학교 애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고.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과가 수능 정시가 1등급대일 거예요. 평생교육원 오는 학생들은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는 시험 딱히 안 보고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오면 세종대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거랑 똑같이 배우는 거죠. (중략) 어차피 배우는 건 똑같고 얻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나중에 취업하거나 이럴 땐 다르겠죠. 이 사람은 본대고 애는 위탁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이 사람 뽑을 테니까 그런 게 좀 다르겠죠.(최성호, 1-10)

2) 학벌의 효력

최성호는 소위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다. 요리사가 되려고 하더라도 호텔 같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굳이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높은 호텔 그런 데 갈 게 아니면. 일단은 어차피 그런 그냥 음식점에서 일을 할 거잖아요. 호텔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호텔은 그런 걸(학벌을) 보죠. 애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스펙을 보니까. 근데 웬만한 음식점은 그런 거 안 본단 말이에요. 제가 갔던 회사가 좋은 게 그거예요. 자격증 그런 거 필요 없고 하고 싶은 의지만 보이면 뽑아줘요. 왜 하고 싶고. 요리가 어떤 점이 매력이나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런 것만 얘기해주면, 애가 할 마음이 있구나 하면 바로 통과예요. 그런 게 좀 좋죠. 다른 데는 뭐 있어야 되고. 특히 호텔이 그런 게 심하구요.(최성호 1-12)

최성호의 부모님은 대학 졸업장이 어쨌든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최성호의 형과 누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머니의 학원에서 일을 했지만 사이버대학에서라도 대학공부를 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최성호에게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로라도 학위과정을 이수하기를 바랐다. 한학기를 다닌 최성호는 “배운게 하나도 없”다면서 휴학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세종대학교에 학점은행제 라는 게 있어요. 제가 원래 대학 안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대학을 그래도 거기서 좀 배우고 일하는 거랑 안 배우고 일하는 거랑 다를 거다. 갔는데 전 솔직히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학교 사람들이랑 그냥 술이나 먹는 거나 배웠지 (최성호, 1-2).

최성호에게 대학 졸업장은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굳이 돈과 시간을 쓰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 최성호에게 대학은 돈과 시간이 있으면 굳이 거부할 것이 아니지만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사치품일 뿐이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사지 않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최성호에게 대학도 그와 같은 소비재의 일종이다.

다. “필요할 때 가면 되는”

최성호는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필요를 느끼게 되면 가면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언제든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여긴다. 최성호는 대학 진학을 유예한다고 믿고 있다.

들어서, 제가 요리를 하는 데 대학이 필요한 조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또 공부를 해서 가야겠죠, 원하는 대학교를. 그런 생각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딱히 그렇게 ‘나는 대학을 꼭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원래. (최성호, 1-1)

빈곤층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대체로 철이 빨리 든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 돈이 드는 일에 대해서 훨씬 고민을 많이하고 결정한다. 최성호는 남들 가니까 대학 가는 친구들에 대해서 생각 없고 철없는 것으로 여겼으며, 대학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은 사무직과 같은 화이트칼라를 의미하는데, 최성호는 자신의 미래 직업에 화이트칼라의 직업은 애초에 배제하고 있었다.

최성호: 제 생각은, 대학은 취업을 위한 도구? 그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대학 가보면 배우는 거 진짜 없고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하고 술이나 먹고. 딱 이름.

연구자: 음...이름을 돈 주고 사는 거네? 나중에 좋은 데 취직하려고?

최성호: 그렇죠. 서울대. 뭐 서울대 애들은 어떨지 모르겠죠.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은 배우겠는데. 솔직히 대부분의 아이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남들 가니까 가고, 취업할 때 대학이 필요하니까 가고 그런 것 같아요. 대학, 대학교가 딱히 의미를 주는 것 같진 않아요. 필요할 때 갈 수 있으니까.(최성호 2-15)

현재는 대학의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기도 하지만 집안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 요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대학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략)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리 하는 게. 요리 한 걸 집에 가져와서 엄마를 해주니까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래 갖고 대학은 가야겠다는 생각이 원래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너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갖고. 왜냐면 나중에 필요하면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최성호, 1-1)

최성호에게서 대학에 대해 쓸모없다고 대학을 다니는데 쓰는 시간과 돈이 아깝다고 말하면서도 대학 졸업장은 필요할 수 있다는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즉 최성호는 대학 졸업장이 앞으로의 삶에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있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만 현재 대학에 진학해서 시간과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자신이 대학 비진학을 선택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3. 현규에게 있어 대학이란

가.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던 고등학교 시절

이현규는 유치원에 다닐 무렵부터 배웠던 태권도에 소질이 있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해오다가 대회 출전하기 전 체중감량 등이 너무 힘들어서 중학교 3학년 때 태권도를 관두고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이 때 현규의 진로가 ‘운동’에서 ‘공부’로 바뀌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쯤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공부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현규에게 기억되는 고등학교 시절은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그것은 운동선수였던 시절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학교의 일상과 호의적이었던 친구들 덕분이었다.

때도 뭐 다 큰 사고는 아닌데, 자잘하게 하는 사고들은 많죠. (중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길러보고, 남자애들 하고 싶은 거 해 보고. 머리 길렀다가 머리 깎이고. 그냥 평범하게, 잘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재밌었어요(이현규, 2-8).

이렇게 재미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고등학교 시절,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열악했기 때문에 이현규의 부모는 급식비 등의 돈을 지원해줄 수 없었다. 그래서 현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신이 직접 벌어서 학교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당했다.

이현규: 근데 그때 집이 어려워서 수업 끝나고 야자 끝나면 알바를 했었어요.

연구자: 음...야자 끝나고?

이현규: 네. 급식비랑 뭐 내는 것 때문에.

연구자: 야자 끝나면 밤이잖아요.

이현규: 그때 말해서 편의점 알바랑 주유소 알바랑.

연구자: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던 거야?

이현규: 거의 11시부터 해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4시인가? 3시?(이현규, 2-3)

이러한 상황을 현규는 친구들에게 이야기 할 수는 없었다. “애들에게는 내색을 할 수 없는 게, 친구들이 워낙 밝아서(이현규, 2-4)”였다. 현규의 친구들은 같이 놀고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보낼 뿐만 아니라 현규의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다. 학교가 집에서 멀어 외할머니댁에서 등하교를 했던 현규에게 이 무렵의 친구들은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공부) 기초가 아예 없으니까.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죠, 옆에서. 거의 매일 꼴찌였는데 도와줘서 그나마 꼴찌보다는 좀 위로...(웃음) 그때 좀 많이 도와줘서 그래도 중간 아니면 중간 아래 왔다갔다하고(이현규 2-2).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현규는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미를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잘 안되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독서실을 끊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공부를 하기도 했다.

부분들이 많아서. 좀 재밌게 가르치는 선생님들 옆에 계셨고. 과학이랑 국사랑 국어랑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해주시고. 중국어. 그거는 되게 잘 재밌게 잘 했고. 영어는 아예 기초가 없으니까. 그때 야자 끝나고 독서실, 정 안되겠다 싶어서 한 달을 끊었어요. 친구들이랑 가서 하루 이들은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애들이, 남자 애들끼리만 가니까 노래방 가자, 게임방 가자. 이럴 거면 여기 뭐 하러 여기 한 달 끊었어? 그렇게 한 보름을 까먹은 거예요. (연구자: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네. 그 중에 제일 친한 두 명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개네 둘한테는 붙어 있었어요. 개네는 잘 가지를 앓으니까. 붙어서 맨날 어떤 게 나올 거 같냐고 물어보고. 뭔가 저는 좀 적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적고 막 붙이고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중략) 그때 그렇게 다니면서 저를 열심히 가르쳐줬던 애한테 도움 많이 받아서 그때 점수도 많이 올랐어요(이현규, 2-6).

나.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한 대학 진학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대학 입시 공부를 해왔던 이현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몇 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에 합격을 했다. 그러나 대학 진학은 포기했다. 부모로부터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현규: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 낼 돈이 없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연구자: 그게 언제쯤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이현규: 그거, 뭐지 수능합격 했다고, 어느 대학교 합격했다고 통보 받고 등록금 내야 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든 해주겠다고 하시고, 이제 어머니는 꼭 가야되겠냐고. 엄마 말 들었죠.

연구자: 근데, 음...그러면 지원까지 했구나.

이현규: 네, 다 했죠. 그땐 몰랐어요. 지원하고, 경찰행정학과 그걸로 해서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중략) 통보 전화 받고 그리고 등록금 내야 된다고 했을 때 엄마가 그 얘기를 해서 ‘아 힘들구나’ 라고 생각 들고 하니까. 그냥 굳이 대학 안 가도 그때 얘기한 것처럼 시험 공부하러 학원 다니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이현규, 2-4).

그래서 현규는 대학 입학 대신 군입대를 서둘러 하게 되었다. 군대를 다녀와야 취업 등에도 유리할 것이고, 만약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전역한 후가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 입대를 서둘러 할 수 있는 ‘동반입대’를 선택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2007년 가을 입대를 했다.

같은 친구들끼리 같이 입대를 해서 군대에서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근데 일반

할라 그랬더니 내년, 그때 2007년 말고 2008년으로 넘어가더라구요. 동반입대가 제일 빨리 입대가 된다고 해서 저는 빨리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나이에 제 생각은. 어차피 대학을 안 갔으니까 빨리 군대를 갔다 와야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군대를 빨리 갈 생각을 했죠(이현규, 1-1).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현규에게는 대학 진학이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현규에게 지금이라도 대학 진학을 고민해보라고 조언한다. 현규는 “그래도 야간대라도 나오는 게 어떡냐.” 혹은 “사이버대학교도 많고 그러니까(이현규, 2-4).”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다. 빈곤의 걸림돌이 없는 곳, 대학

이현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2007년은 일반고 졸업자 중 대학 진학자가 80% 이상이었을 때이다.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 중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 일하고 있는 백화점에서도 고졸자를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현규도 당연히 대학 졸업을 했을 것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물어보면 저는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써요. 제가 먼저 얘기해요, 고졸이라고. 왜냐면 부끄럽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쨌든 상황이 그래서 그랬지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어 고졸이라고. “왜?” 물어보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럼 “그냥...대학 가서 뭐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빙지고 한 것 때문에 안 갔다고 그런 집안 얘기는 안하고. 어차피 공부도 그렇게 막 잘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한다고 얘기는 하죠.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대학 안 갔다고 해서 대학을 나왔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고졸인데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사람 성향이고 신경 안 쓰고. 누가 물어봤을 때 대학 왜 안 갔냐 그러면 굳이 가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또 보면 지금 여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까워해요. 괜히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그렇다고 자기가 어느 과에 갔는데 그 전공을 살려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전공을 또 일선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나들도 그러더라구요 괜히 갔다고. 저를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신경 안 쓴다고. 대학의 낭만, 캠퍼스 그런 건 당연히 한번 해보고 싶긴 하죠. 근데 그것뿐이지 내가 뭐 거기 가서 저기 할 것도 아니고. 갔으면 열심히 공부를 했겠지만 굳이..(이현규, 3-12~13).

대학 경험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때, 현규는 자신이 먼저 고졸임을 이야기하는 편이다. 왜 대학에 가지 않았냐는 질문이 이어지면, 현규는 집안 사정 이야기보다는 현재 일을 하는 데 있어 대학 공부가 불필요함을 이야기한다. 대학 다니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규에게는 대학 공부에 대한 전망이 있다. “대학의 낭만, 캠퍼스” 같은 것들은 한 번 경험해보고 싶은 것이다. 특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경찰공무

원의 꿈과 관련이 있는 학교와 학과는 더욱 가서 공부하고 싶은 곳이다.

: 혹시 시간이나 돈이 주어진다면 대학에 가보고 싶긴 해요?

이현규: 그렇죠.

연구자: 어디? 경찰대?

이현규: 아, 제가 그 정도까지 머리가 좋으면 가고는 싶죠.(웃으며)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갈 수 있을만한 학교가 있다고 하면, 시험 봐서 그 성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가고 싶은데요.

연구자: 뭐가, 뭐가 좋을 거 같애? 공부하고 막 그런 거?

이현규: 제가 꿈꾸고 있는 거랑 관련된 거요. 왜냐면 경찰이 목표니까 어쨌든 그걸 공부 하고. 하다보면 적성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맞아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열심히 하겠죠.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이현규, 3-13).

이현규는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현재의 일은 “좋아하지 않는 일”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것은 “힘든” 일이다.

어...네. 어떻게 보면 본사. (6초 후) 아니면 가끔 매니저들끼리. 아직까지는 저희나라가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요즘은 워낙 대졸에 대해서 저기 하지는 않는데, 대놓고 저기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게 있기는 하죠. “어디 나왔어요?” “어느 대예요?” 그리고 안 나왔다고 그러면. (중략) 거리를 두죠. 그런 사람들 몇 명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본 게 아니라 대학을 본 거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었어요. 멀어지면 ‘아, 그래 멀어지는구나.’ 저런 사람이니까 멀어져도..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니까(이현규, 3-13).

학력주의 사회에서 현규는 고졸자로서 차별의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규는 그것이 차별이며 부당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가 대학을 선망하는 것은 학력(學歷)이나 졸업장 때문이 아니라, 대학에 가면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빈곤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현규에게 꿈을 좇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그에게 대학은 그 걸림돌이 치워져있는,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공간이다.

Ⅲ. 비진학 빈곤 청년의 노동 경험

1. 수진과 일

가. “맞는 걸 찾기 위해서”

1) 한정된 일자리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열아홉 살인 수진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주류를 판매하는 곳 등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부모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수진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한정적이다. 따라서 수진은 부모 동의 없이 좀 더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 일자리 찾을 때 보통 조건이?

한수진: 나이 대를 좀 많이 봐요. 다 스무 살 이상이니까 저 나이포래로 되는 데를 봐요.

연구자: 지금 수진씨가 열아홉 살이잖아요. 그럼 일거리 찾을 때 아무래도 제약이 있는 거죠.

한수진: 부모동의.

(중략)

연구자: 지금 열아홉이라서 뭐 하고 싶은 데 못하는 거 있어요?

한수진: 부모동의가 걸리는 거예요. 술집 같은 거.

연구자: 술집에서 서빙 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맥주집 이런 데?

한수진: 호프집. 집 근처에도 있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3분 거리밖에 안 되는 데 못해요. 성인 이 아니라서. 서빙 같은 것도 부모동의 필요하더라구요. 횡집 다녔을 때도 그랬어요. 거 기도 술 나가고 그러니까.(한수진, 2-15)

수진이 쉽게 떠올리는,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일은 식당 서빙 같은 일로 보통 아침 10시반에 시작해서 밤10시반에 끝나는 12시간 풀타임 노동이며, 이러한 노동 시간 및 강도를 수진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연구자: 일은 어떤 일 하고 싶어요?

한수진: 서빙 같은 거, 풀타임으로. 아침10시 반에 갔다 10시 반에 끝나는.

연구자: 아예 딱 그렇게 생각해 놓은 거예요?

한수진: 아니, 원래 다 그래요, 풀타임은. 그게 12시간 풀로 하는 거예요.(한수진, 2-15)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학교를 가야하는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났다는 점과 현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취업할 곳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인지 수진은 12시간 풀타임이라

는 노동강도나 밤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 야간근무 같은 노동시간 같은 힘든 여건을 별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 밥을 9시에 출근해가지고 아침7시에 끝나니까.

연구자: 아침9시?

한수진: 밤9시에 시작해서 아침7시에. 야식으로 매운 거 먹고.

연구자: 그렇지. 야식으로 먹는 게 다 약간 자극적인 거니까.

한수진: 그리고 또 늦으면 배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굶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많이 먹고 나서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새벽에 야식을 또 먹고.

연구자: 얼마나 했어요, 야간알바?

한수진: 휴대폰 만진다고 해서 싸워가지고 잘렸어요. 딱 2분 만졌는데...새벽3시에 잘려서 집에도 못 가고 아침 첫 차까지 버스 기다렸다가 집 가서.

연구자: 그날 바로?

연구자: 나가래요?

한수진: 너는 필요 없다 이러면서 가라 해서. 오늘 지금 그냥 가라고.(한수진, 1-7~8)

수진은 대기업 같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수진은 대기업에 지원할 생각이 없다. 그 대신 (식품을 포장하는) 공장 같은 곳에 취업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2) 취업이 아닌 ‘아르바이트’

수진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짧게는 1일, 길게는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대부분은 사장의 일방적 해고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표 2> 한수진의 아르바이트 경력

순서	시기	업종	기간	담당 업무
1	고2~고3	횃집	6개월	서빙
2		해물전골집	1개월	서빙
3		족발집	1주일	서빙
4		족발집	1일	서빙
5		횃집	3-4개월	서빙
6	고교 졸업 후	휴대폰대리점	1주	판매
7		소개팅 업체	3주	소개 및 매칭
8		휴대폰대리점	1주	판매
9		휴대폰대리점	2주	전산
10		볼링장	1개월	서빙 및 기타

이처럼 다수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수진은 “맞는 걸 찾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일들을 해본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진이 많은 곳에서 짧게 일해 왔던 이력은 사장의 입장에서 보기에 “맞는 걸 찾기 위해서”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 또는 사장이나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나 갈등 때문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3) 쉬운 일만 시키는

직전에 일했던 볼링장에서의 야간근무 때문에 위장 질환을 앓고 있는 수진은 잠시 일을 쉬면서 다른 일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수진은 다시 일을 구한다면 고등학교 때 일해본 적이 있는 “Hits 집 같은 데”에서 다시 일하고 싶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일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 다시 일을 구하면 Hits 집 같은 데를 제일 구하고 싶은데 잘 안 구해진다고 그랬잖아요.

한수진: 그건 겨울 때요.

연구자: 근데 왜 Hits 집에 가고 싶었어요?

한수진: 잘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연구자: 어떤 면이 잘 맞는 것 같애.

한수진: 일이 힘드니까.

연구자: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한수진: 일을 하면서 힘들게 한 적이 Hits 집 밖에 없어요. 그릇이 많으니까. 단체 손님 오면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2때 처음으로 그렇게 해서 힘들게 번거니까. 엄마 주고 그래도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구할 수 있으면 Hits 집 다시 구하고 싶긴 해요.

연구자: 근데 일이 힘들면 보통은 하기 싫잖아요.

한수진: 저는 계속 쉬운 것만 했다가 Hits 집 때 엄청 힘들게 했는데 다른 거 다 하다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중략) 일이 쉬우면 시간이 별로 안 가요. 근데 일이 힘들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가더라구요.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정직원으로 하고 싶은데. 한 달 풀로 10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그런 걸로.(한수진, 3-8)

치워야 되는 그릇이 많고 단체 손님이라도 오는 날이면 Hits 집에서의 일이 몇 배로 고되고 힘들지만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다는 데 수진은 보람을 느낀다. 또한 일이 쉬우면 시간이 별로 안 가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이 힘들면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수진은 매일 1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구하기를 바라며, 수진은 이를 ‘정직원’이 하는 일이라고 부른다.

연구자: 수진씨가 말했던 ‘정직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정규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무시간이 긴 걸 말하는 거예요?

: 알바는 하루에 4-5시간 밖에 못해요. 근데 직원은 알바에 비해 더 오래 있는 게 정직원이에요.(한수진, 3-9)

또한 수진에게 일의 종류보다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느냐’이지만, 여자인 수진에게는 쉬운 일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수진은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고 어려운 일도 잘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만 수진에게 그런 기회 자체가 없을 때가 많다.

한수진: 자꾸 쉬운 일만 시키던데요. 무거운 것 들지 말라 그러고.

연구자: 그건 어디서?

한수진: 음...횃집인 것 같아요.

연구자: 무거운 게 뭐가 있을까?

한수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탑처럼 쌓은 적이 있어요, 제가.

연구자: 음식?

한수진: 접시, 빈접시. 저는 당연히 다 들죠. 들 수 있는데 가져가는 거예요.

연구자: 누가?

한수진: 오빠가. 그래서 왜 가져 가냐고 그러니까 깨지면 다친다고.

(중략)

한수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이것도 잘한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연구자: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다?

한수진: 네.(한수진, 4-6~7)

수진이 일터에서 자신을 여자로 인식하게 되는 때는 일과 관련된 자신의 의지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다는 것과 더불어 남자 손님들에게 전화번호를 요구받거나 손님들에게 팁을 많이 받을 때이다.

연구자: 일하면서 여자이기 때문에 겪은 건 없었어요?

한수진: 볼링장에서 번호 좀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연구자: 어떻게 접근하는데?

한수진: 계속 막 쳐다봐요. 라인 쪽에 있으면 계속 막 쳐다봐요. 오빠가 설 때가 있어요. 오빠가 월요일날 쉬고 저는 화요일날 쉬었거든요. 오빠가 쉬는 날에 하필이면 그때 남자들이 와가지고, 다 끝났다 가겠다 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계속 쳐다본 이유가 뭐는지 아냐고 다짜고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했죠. 맘에 든다고 번호 달라고 그래서, 그때가 하필 오빠랑 싸웠을 때라 췌긴 췌는데 연락하다 걸려가지고 싸웠어요, 더 크게.

연구자: 연락해서 뭐라 그랬어요? 만나자고?

한수진: 그건 아닌데 그냥 밥 먹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밥 싫어한다고 그랬어요.(한수진, 4-6)

나. “어른”을 만나는 곳

1) 격려해주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수진에게 일터는 학교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 곳이다. 수진에게 학교는 “밥 먹고 잠자고 화장하고 알바 갈 준비를 하는”, “애들이랑 싸우는”, 쉬는 시간에도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독서실 같은” 곳이었다. 반면에 수진에게 일터는 “재밌는”, 힘들지 않은지 물어봐주고 고생한다고 말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 수진씨는 학교랑 일 중에서 뭐가 더 재미있었어?

한수진: 일.

연구자: 일 하면서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일을 선택한 이유는 어떤 점에서?

한수진: 재밌어요.

연구자: 어떤 점이 재밌었어?

한수진: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가 재밌어요.

연구자: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좀 다른 의미로 다가왔나?

한수진: 어른이니까.

연구자: 어른이니까. 어른이라서 어떻게 달랐어?

한수진: 힘드냐고. 힘들게 돈 벌어서 뭐하냐고.

연구자: 손님들이?

한수진: 네. 안 힘들다고 괜찮다고. 고생하라고. 그러면 좀 힘나던데요.(한수진, 4-10~11)

2) 잘해도 무시하는

그러나 일터에는 수진에게 힘이 되는 존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진에게 일터는 사장과 같이 “갑”질하는 어른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못하면 가차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해버리는 사장은 수진에게 절대적 “갑”이었고 “잘리”지 않기 위해 수진은 잘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 그러나 사장에게 돌아오는 건 “눈에 띄게 행동하지 말라”는 욕이었다. 사장의 지시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사장 말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잘난 척” 하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연구자: 수진씨에게 사장은 어떤 존재였어요?

한수진: 갑. 못하면 잘리잖아요. 그래서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잘해도 무시하고.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연구자: 잘해도 무시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 오히려 더 잘하면 욕하던데요? 왜 잘하냐고.(웃음)

연구자: 어디서? 잘하면 사장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닌가?

한수진: 잘하면 좋은 건데요. 눈에 띄게 행동하지 말라고.

연구자: 예를 들면?

한수진: 상 치울 때. 제가 꼼꼼해요, 제가. 오빠들은 막 대충 닦고 가는데 저는 한 번 더 가서 열심히 닦는데 어차피 종이로 닦을 건데 뭐 하러 그러냐고, 사장이. 그래서 사람들 앓을 자리인데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잘난 척하지 말라고.(한수진, 4-7)

수진은 일터에서 만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친구 같아서” 싫었다고 표현한다. 말로는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일터에 들어갔을 때 수진은 자기들끼리 ‘가족’으로 뭉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해왔다. 그래서 수진에게 다른 직원들은 ‘가족’이 아니라 ‘친구’ 같은 존재였는데, 이때 수진에게 ‘친구’란 보통의 의미와는 다르게,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진은 배제시키는 사람을 가리킨다.

한수진: 가족 같이 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족 같진 않던데요. 새로 들어오면 여기 원래 있던 사람들은 다 가족 같은데 저만 소외되고. 가족 같이 해준다고 해놓고 원래 있는 직원들만 가족 같이 행동하고 저는 소외되고 그런 게 좀.

연구자: 어떨 때 소외시킨다고 느꼈어?

한수진: 밥 먹을 때요. 와서 먹으라고 얘기 안하고 지들끼리 먹고.(한수진, 4-7)

다.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1) 가족에게 보탬이 되고자

수진에게 일은 ‘가족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수진의 어머니는 현재 아파서 일을 쉬고 있고, 오빠는 군대에 있기 때문에, 수진의 가족은 현재 아버지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 수진은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전세 대출금 이자를 내는 데 보태기도 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왔다.

한수진: 제가 당일로 돈[면담비] 받는 이유가 (애인) 만나서 놀라고. 알바도 안하니까. 엄마가 돈 좀 달라 해가지고 준다고, 있다 가서.

연구자: 어머니도 일 안하시니까?

한수진: 엄마도 아파서 쉬고 있으니까. 아빠만 일하고. 아빠가 가장이니까. 오빠도 군대에 있고. 그래서 아빠 맨날 너 왜 이렇게 쉬냐고 그러면서 일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아 애 아픈데 그냥 냅두라고.

연구자: 아빠는 수진씨가 일 했으면 좋겠구나.

한수진: 네. 그때 일하면서 집에 이자 낼 거 있다고 해서 거의 30인가 그렇게 주고. 아빠 용돈

좋아하더라구요.(한수진, 2-1~2)

수진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해결한다. 몸이 아파 일하기 힘든 어머니와 고된 우체국 택배 업무로 힘들다 말하는 아버지에게 수진은 돈 얘기를 꺼내는 게 미안하다.

연구자: 그럼 보통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얘기하는 편이에요?

한수진: 큰돈이 아니면 달라고 안해요.

연구자: 왜?

한수진: 제가 일하면 되니까.

연구자: 그렇게 말하는 게 미안해?

한수진: 네.

연구자: 졸업하고 나서?

한수진: 네.(한수진, 3-20)

2) 일상이 된 가불(假拂)

수진에게 일은 자녀를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수진에게 “좋은 집”이란 큰 집이 아니라 돈 부족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집이다. 현재 수진이 살고 있는 집은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 때문에 평소에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힘들지만 짐 같은 걸 옮겨야 할 때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의 불편함을 몸으로 실감한다.

연구자: 그럼, 수진씨에게 일은 어떤 의미예요?

한수진: 애 낳으면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요.

연구자: 수진씨가 생각하는 좋은 집이라는 건 어떤 집이에요?

한수진: 큰 집은 아니어도 그냥 살 수 있는 집. 돈 안 부족하고 살 수 있는.

연구자: 지금 살고 있는 집에는 ‘좋은 집’이라고 하는 요건 중에 어떤 게 없는 것 같아요?

한수진: 엘리베이터.

연구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구나.

한수진: 짐 같은 거 있을 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거의 한 김 장 담을 때도 하나씩 들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통에 담겨 있는 거, 만든 거 가지고.

(한수진, 4-2)

수진은 바로 앞의 주택에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사는 건물 5층으로 옮겨와야 했다. 전에 살던 집이 도시가스로 바뀌면서 월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는 얼마나 살았어요?

한수진: 중1때 온 것 같아요.

연구자: 지금 집에서 옮기지 않고 살았던 이유는?

한수진: 이사 오기 전 집이 바로 앞의 주택집이었어요. 근데 가스를 도시가스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더 오른대요. 그래서 갑자기 이사 간다고 해가지고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 건물로 갔어요. 전셋집.

연구자: 요 전에 살았던 집은 몇 층이었어요?

한수진: 1층. 2층 주택이었는데요. 2층에는 주인집 살고, 1층에 저희.(한수진, 4-2~3)

수진은 월 꼭 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도 경제적으로 늘 여유가 없다. 그러다보니 일하는 곳에서도 미리 가불을 할 때가 많다. 면담 직전 일을 하다 그만둔 볼링장에서도 처음에 (165만원 중) 50만원 가불을 하고 나서 일을 그만두고 마지막에 나올 때에는 나머지 115만원을 받아서 나왔다. 아르바이트와 같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없는 수진에게 가불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다.

한수진: 집 이자 나가고, 휴대폰 값 나가고.

연구자: 집 이자가 얼마더라?

한수진: 28만원인데 지금 좀 적은 걸로 바꿨대요. 16인가 15로. 그리고 휴대폰값 나가고.

연구자: 저축 같은 건 하세요?

한수진: 모아둔 거 있다고 하는데 거기 모아둔 거에서 전세 이자 나가고 전기세 나가고. 집이 전세니까 그런 거 뭐지 그런 것도 나가고 그래요. 집에서 내는 거 있다는데.(한수진, 2-14)

필요한 돈을 그때그때 마련해서 생활해야 하는 수진은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할 때에도 면담이 끝난 직후 바로 면담비를 입금해 줄 수 있는지, 다음 면담을 앞두고 면담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지 물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수진은 월200만원 정도 안정적으로 벌면서 월100만원 정도는 꾸준히 적금을 넣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연구자: 어떤 게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한수진: 적금 넣는 거. 꾸준히 달마다 넣고 싶은데 알바를 하다 안하다 하다 안하다 하니까.

연구자: 적금을 얼마씩 넣고 싶어요.

한수진: 만약 200 정도 번다 하면 100.

연구자: 아, 반 정도. 그럼 월200정도는 안정적으로 벌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구나

한수진: 네. 요즘 서빙 같은 거 해도 100도 안돼요.

연구자: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한수진: 웃으면서.

: 뭐하면서 살고 싶어요?

한수진: 일하면서 집에 좀 보태주면서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한수진, 2-15)

그러나 수진의 바람과 달리 아르바이트로는 월100만원을 벌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고 부모님께도 조금 보태드리면서 살고 싶은 수진의 소박한 바람은 현재로서는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연구자: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겠구나.

한수진: 모아서 그냥 엄마 아빠 주고 싶은데.

연구자: 수진씨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건 없어요?

한수진: 100 있잖아요. 통장을 2개를 만들거예요. 50으로 써도 돼요. 50은 제 거 적금 해놓고 100은 엄마 아빠 거.

연구자: 그럼 200 중에 50 남는 거네?

한수진: 그걸로 쓰면 되죠. 버스비 밖에 안 쓰니까.

연구자: 한 달에 50으로 살 수 있을 거 같아요?

한수진: 그냥 버스비 하고 그러면 돼요.(한수진, 2-15)

수진이 바라는 월200만원은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일상이 된 가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달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나머지 돈으로도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수진은 가족의 갑작스런 사고 때문에 대학에 대한 생각을 아예 접고, 사장의 부당해고에도 자신의 불성실함을 탓하며 부모님께 줄곧 미안해한다. 또한 자신의 꿈이 뭔지 탐색할 겨를도 없이 빈곤의 해결을 구직의 제1기준으로 삼으며, 부모님의 바람대로 직업군인이 될 수 없는 자신의 약한 몸을 탓하며 또 미안해한다. 그런 수진에게 월200만원은 빈곤에 잡아먹히지 않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자기 삶의 주체로 사람답게 사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수입을 의미한다. 수진이 빈곤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빈곤 때문에 자신이 만날 세상을 축소시켜버리지 않으며, 부모님께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2. 성호와 일

가. 일상적으로 해온 일: 아르바이트

최성호는 어느 시점 이후로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은 적이 없다. 어딘가에 돈이 필요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돈을 마련했다. 최소한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짐 지우는 일을 하기 싫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다보니 최성호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줄곧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부터 주방보조, 식당 서빙을 비롯해서 각종 공장에서의 일용직까지 아르바이트의

종류도 다양하다.

뭘 갖고 싶어도 엄마 아빠한테 말을 못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신발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살 때 되면 엄마 아빠가 신발 사라고 돈 주고. 맨날 거의 다 찢어질 때까지 신었는데. 아니면 제가 일해가지고 알바 뛰어서 사고. 엄마 아빠한테 내가 노는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그 이외의 피해는 주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냥 그래서 알바도 좀 하고. 용돈을 진짜 안 받았어요. 애들 다 어디 놀러간다 그러면 저는 놀러간다고 약속날짜를 잡으면 그 전부터 알바해서 벌고 가고 그런 적이 많아요. 엄마 아빠한테 찡찡대고 그런 건 진짜 어렸을 때 했던 게 기억이 나고 완전 애기였을 때, 좀 잘 살았을 때 (하락)(최성호, 1-18)

연구자: 지금까지 했던 일, 뭐뭐뭐 있어요 알바? 어떤 거? 어렸을 때부터?

최성호: 그냥 진짜 사소한 것까지 다요? 전단지들. (어) 택배. 다음에 에이원스라고, 그게 못총 쏘는 거 아세요, 총을 딱 쏘면 못이 나오는 거. 무슨 파레트 같은 거 만드는 공장, 거기 도 가 봤고. 그리고 뭐 고깃집 알바하거나. 횃집이랑. 그런 거?(최성호, 3-4)

최성호는 필요한 것은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요리가 꿈이 된 이후, 칼질 연습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사는데도 아르바이트를 했다. 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리고 칼질은 꼭. 저는 제가 알바해가지고 감자 한 박스 사가지고 집에서 다 썰어보고 엄마한테 등짝 막 두드려 맞고.(일동 웃음) 이거 다 어디다 쓸 거냐고. 다 찌먹고 그랬었어요. 양파 한 망 사다가 다 썰어보고. 좀 칼질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하락) (최성호, 1-11)

최성호의 아르바이트는 일상적이다.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학교를 마치고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했다. 최성호가 고등학교 때 통학거리가 멀어 피곤하다고 말했지만, 먼 통학거리 이외에도 최성호의 삶을 고단하게는 하는 것은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아르바이트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최성호는 자신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물류창고에서 택배 상차차를 했던 일을 상기했다.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많이 받아야 일당은 턱없이 작았고 심지어는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문제제기를 한 적은 없다. 단 돈 얼마라도 벌기 위해서는 괜한 문제제기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자: 옛날에 알바, 좀 했어요? 예전에도? 고등학교 때?

최성호: 식당알바랑. 식당알바 많이 했어요.

연구자: 방학 때? 아니면 평소에?

최성호: 평소에.

연구자: 학교 끝나고 저녁에?

: 네. 집에 보탬이 된다고보다는 그냥 저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어가지고. 신발이나 이런 거.

연구자: 언제부터 했어요? 알바의 세계에 뛰어들 건 언제부터야?

최성호: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택배. 택배는 진짜 할 게 못 되구요. 돈을 안줘요.

연구자: 돈을 안줘요?

최성호: 얼마 안줘요, 일하는 거에 비해서.

연구자: 이렇게 뭐 물류창고에서 나르는 거?

최성호: 상하차 하는 거.

연구자: 아.

최성호: 상차하거나 하차하거나.

연구자: 무한도전에 예전에 나왔는데. 하하가 가서 했어요. 하하랑 정형돈이랑.

최성호: 그게 야간택배가 진짜 힘들어요. 한 12시간 정도 일하는데 엄청 큰 트럭이 와요. 진짜 한 버스 두 대 합친 것만큼. 딱 오면 그걸 다 빼요. 하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분 정도 쉬는 시간 있어요. 그때 커피 먹고 담배 필 사람 담배피고 하면 바로 또 차가 들어와요. 12시간 동안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무게에 죽어요, 힘이. 그때 12시간 했는데 많이 받으면 7만원.

연구자: 진짜 짜네요.

최성호: 시급 6천원 밖에 안줘요. 하다가 짜증나서 못하죠. 엄청 뭐라 해요. 욕하고. 싸워서 나간 애들도 많고. 그거 해봤고. 그러다가 이제 서빙 같은 거, 음식점에서. 그래도 음식점에서 일했던 거는 요리가 꿈이 되고 나서. 뭔가 이제 저는 호텔에서 일하기보다는 제가 차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빙 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한가 막 그런 거 궁금해가지고 서빙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주방한 거는 횃집. (최성호, 2-17)

최성호는 요리사의 꿈을 가진 이후에는 아르바이트에도 의미 부여를 했다. 식당 서빙이나 주방보조의 아르바이트가 요리사라는 직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기보다는 일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거나 새로 배우게 된 기술에 주목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횃집에서 일하면서 생선을 손질해 본 경험이 태국 음식점에서 일을 할 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식당 서빙과 일식 요리사가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직업이라는 점을 발견했다는 데에 의의를 두었다. 즉 일의 경험을 배움과 연결 지음으로써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이곳 저곳에서 많이, 좀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뭐라도 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 학교 안 간다면, 방학 때도 전 학교 안 나갔어요, 나가기 싫어서. 그럼 그 때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택배도 뛰어 보고. 일식집에서도 일했거든요, 횃집에서. 그런 것도 해보고. 아닌 것 같으니까 그만 두고. 이렇게 하나하

직업을 가져보는 거예요. 서빙도 해보고 ‘서빙은 좀 내 체질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알아가는 거. 그러다가 일식주방에 들어갔는데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요리를 꿈꾸고 나서였죠. 일단 주방에 들어가봐야겠다, 그게 우선이겠다 생각을 해서 주방을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일식은 힘든 게, 초밥을 만들거나 뭐 그런 일식이면 솔직히 할 만한데, 횡집은 살아있는 거를 때려잡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냄새가 엄청 나요, 비린내가. 샤워를 막 몇 번을 해도 냄새가 나요. 살아있는 생물 잡는 게 좀 그게 좀. 칼로 머리 자르고 기절시키고 해야 되니까. 근데 또 하다보면 재미가 있고. 제가 일식집에서 오래는 안 했어요, 학교 때문에. 한 달 일하고 물고기 잡을 줄 알게 됐는데. 태국요리전문점을 갔는데 물고기 잡는 요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도움이 된 거죠. 여기는 죽어 있는 거를 손질하는 거. 오히려 더 쉽죠, 죽어 있는 거니까. 살아있는 건 막 이렇게 왔다갔다 거리고 괜히 잘못 치면 손 날라 가고. 죽어있는 거니까 손질만 하고 튀기고 이렇게 하니까. 요리가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얻는 게 내 거가 되니까.(최성호 1-16)

나. 꿈이었지만 포기한 일: 요리사

최성호는 고등학교 2학년 즈음부터 요리사의 꿈을 키웠다. 요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간단하다. 평소에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어떤 분야든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일종의 기술 습득으로 여겼으며, 그렇기 때문에 요리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혹 요리사로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음식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요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성호: 제가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학교 축제에는 무조건 나갔었어요. 그래서 버스킹이 제일 먼저였고. 처음에는 하고 싶은 걸 적어봤죠. 번지점프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적다가 그건 하고 싶은 거였고. 가족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 때 이제 요리가 나온 거죠. 나중에 돈을 못 벌어도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요리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요리를 해봐야겠다. 왜냐면 버스킹은 내 자그마한 꿈이고. 저는 지금도 하고 싶어요. (중략) 요리를 중점을 두고. 요리는 돈도 벌 수 있고 내가 얻는 게 많은 게 요리라고 생각해가지고. 노래는 즐기기 위한 거. 스트레스 푸는 거. 그걸로 돈을 벌고 싶지는 않아요.

연구자: 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성호: 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막 노래로 성공해서 막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딱 스트레스 푸는 정도(최성호 1-13)

고등학교 2학년 때 향후 진로를 요리사로 정하고 요리 학원에 다니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학원에 다니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집에서 요리를 해보면서 나름대로 요리의 기초를 닦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요리 학원을 다니기도 했는데, 최성호는 요리하는 일이 너무 재밌었다고 했다.

뭘 하면 엄마가 좋아할까? 공부는 진짜 아닌 것 같고. 생각을 해보다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집에서 요리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되게 좋아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리를 해주면. 요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 때가 고등학교 2학년 초반. 그 때 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된다고, 지원이 안 된다고 아빠가 하신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중략) 요리를 하고 싶었는데. 학원도 다니고 싶고 했는데. 지원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집에서 되대로 연습도 하고 했죠. 칼질 연습도 하고. 그러다가 고3 들어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요리 학원을. (중략)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리 하는 게. (최성호 1-1)

한 때 호텔조리과 교수였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최성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서울에 올라와서 한 프렌차이즈 태국음식점에 수습사원으로 취직을 했다. 요리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최성호는 인턴으로 일하면서 새로운 메뉴를 배우고, 배운 레시피를 적용해서 음식을 만들어보고, 실장에게 검사를 맡고 인정받는 경험들을 떠올릴 때는 목소리의 톤이 높아졌고 크기가 커졌다.

제가 요리를, 어떤 메뉴를 한 가지 배워요. 그게 딱 주문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해 본 요리가 돼요. 그걸 사진을 찍고 실장님한테 검사를 맡죠, 나가도 되냐. 그럼 한 입 드시고 통과가 되면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안 될 때가 많죠,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럼 그냥 버려요 바로, 그냥. 그런 게 기분이 좋았죠. 재밌었고. (좀 더 크고 신나 하는 목소리로) 요리를 하는 건 되게 재밌어요, 원래. 맛을 뭔가 이렇게 첨가한다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똑같은 음식이어도 이게 들어가면 안 들어간 거랑 완전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최성호, 1-3)

최성호는 요리를 좋아했고 직업으로 삼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일은 고되고 힘들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해야 했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주방 막내라서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일하지만 월급은 160만원에 불과했다. 같이 살던 친구와 나눠서 내긴 했지만 매달 40만원의 월세를 내고 식비와 교통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어지는 돈은 얼마 남지 않았다.

연구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했어요?

최성호: 10시까지 출근해서 10시에 퇴근이요.

연구자: 몸도 힘들었겠어요.

최성호: 3일 정도만 힘들었어요, 3일. 3일 동안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만 힘들었고. 손가락 베이고 그런 거는 저는 좀... 그것도 기분은 좀 좋았어요, 처음에. ‘아 내가 이렇게 성장해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무섭게 베인 적도 많았죠. 심하게 베이면 좀 무섭고 그랬는데.

: 3일 정도 후에는 10시에 퇴근하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최성호: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주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연구자: 점심시간 이후에는요?

최성호: 저희가 3-5시까지 브레이크타임이 있어요. 그 때는 자죠.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서 있어야 되고. 제가 막내라서 눈치가 보이죠, 앉아 있으면.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배우려고 해야 되고, 냉장고도 수시로 열어봐야 되고. 그런 게 많았어요. (최성호, 1-3)

근데 원래 주방...160이면 많이 주는 거예요. 수습 끝나면 180이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 보면 수습 끝나도 거의 다 140. 주방이 원래 페이가 약한데, 여기 회사가 페이가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일한 거에 비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일이 쉬운 것도 아니고 위험하고. 그래도 200은 받아야.(하락) (최성호, 1-20)

요리를 하는 것은 즐거웠지만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해야 하는 강한 노동 강도가 버티기 어려웠고, 한 달에 160만원 남짓의 월급이 적다고 여겨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주방에서 같이 일하는 상급 직원의 비인격적인 대우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세 달만에 그만두었다.

오래는 못했고, 한 3개월. 그러니까...좀 후회되는 게 있죠, 나온 게. 3개월 정도, 3개월은 수습을 주잖아요. 3개월 수습 주는 게, 그거를 해봐야 알잖아요, 자기 길인지 아닌지. 제가 3개월 채우고 나왔는데, 되게 어중간한 거예요. 한 달만 더 해볼걸, 이런 후회도 들고. 근데 요리가 싫고 이런 건 아니에요. (최성호, 1-2)

주방의 폭력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최성호는 요리가 불과 칼을 쓰기 때문에 군기가 세다고 이해했다. 즉 최성호는 자신이 납득할만한 상황에서의 폭력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인간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모욕을 참기는 쉽지 않았다. 최성호는 자신의 실수를 고쳐주고 요리를 가르쳐주는 과정으로가 아니라 실수에 대한 처벌로서 폭력이 가해진다고 생각했다. 자신에게만 가혹한 주방 분위기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다.

요리라는 게 불하고 칼을 다뤄서 군기가 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문제점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빙스나 아웃백 이런 데는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많아요, 요리 주방에. 근데 제가 간 곳은 태국요리 전문점인데 되게 어른들이예요, 나이가 좀. 그래서 공감대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감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사회생활도 처음 해봤고. (최성호, 1-2)

연구자: 그렇구나. 그 식당에서 일 할 때, 때리면 어떻게 때려요?

: 발로 차고.

연구자: 요리 하다가? 낮에?

최성호: 주먹으로 때리고.

연구자: 요리하다가? 끝나고?

최성호: 요리하다가 얘기를 하죠. 요리를 멈출 거 아니에요.

연구자: 어디를 때려요?

최성호: (어깨를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칼로 딱

연구자: 똑바로 하라고?

최성호: 칼로 딱 찌르고. 그럼 피가 쪽 나는데 아프지 않아요. 기분이 진짜 나빠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욱하고.(최성호 3-8)

제 판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이제 “뭐하냐?” 라고 말을 해요. 너 뭐하냐고 지금. 저는 제 할 거 하고 있는데 왜 뭐라고 하시냐 그렇게 말을 하면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죠. 성에 안 차니까 화도 내고 막 뭐 던지고 때리고 욱하고 막 이러니까. (최성호, 1-2)

최성호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스무살 청년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과 모욕을 자주 경험했는데, 그 부분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다. 특히 요리사의 대부분이 남성이며, 그들 사이에 형성된 유사 군대의 문화가 존재했다. 군대라는 공통의 경험을 가진 주방 내 요리사들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최성호를 무시했고 그를 그들로부터 소외시켰다.

제가 거기서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그거였어요? 군대 안 갔다 왔으니 니가 뭘 아냐고. 안 갔다 왔으면 모르면 더 알려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무시하는 게 많았죠. 기분 나쁜 걸 표현을 하면 “그럼 니가 이 자리에 올라와” 이런 식으로 얘기 하고. (기가 막힌 듯 웃으며)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최성호, 1-3)

최성호: 저를 제외한 분들끼리만 웃었죠. 소외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연구자: 왕따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었겠어요.

최성호: 왜냐면 전혀 낄 수 없는 얘기들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 끼어들어서 얘기할 만한 그런 것도 없었고. (최성호 1-4)

최성호는 튀김기의 폐기름을 빼고 씻어 놓고 열어두었던 아래쪽 마개를 닫지 않아 새기름이 새는 바람에 주방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요리사인 실장에게 종일 꾸지람을 들었던 날, 실장에게 한바탕 대거리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리고 그것이 그 식당에서의 마지막이었다.

최성호: 그죠. 그러니까 전날에 폐기름을 빼고 다 씻어 놓고, 아침에 물이 마르면 거기에 새 기름을 넣는 건데, 물이 빠져야 되니까 밑에 마개를 열어놔요. 그걸 제가 세 번 정도 실

했거든요. 세 달 다니면서. 실수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달고 기름 부어야 밑에 안 새는데 까먹고 그렇게 한 거죠. 그것 때문에 혼났는데 하루 종일 계속, 그거랑 아침에 혼냈으면 거기서 그만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바쁜 시간에, 뭐 런치일 때 바빠 죽겠는데 그게 누가 말을 걸면 까먹거든요. 계속 옆에서 중얼중얼. 계속 빨리 빨리 움직이라고. 빨리 빨리 움직이라고. 저도 참다 참다 얘기를 했죠. 실장님보다 제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어) 말투 이렇게 착하게 안 했죠. 짜증나니까.

연구자: 실장이 이제 폭발 했겠네.

최성호: 거기서 욕을 하죠, 이제. 뭐라 했냐고, 시발시발 거리면서. 그것도 듣다듣다 저도 짜증 나서 저도 막 욕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고향 내려가고. 친구들이랑 술 엄청 먹고. 안 간다고. 실장님 때문에 내일부터 나 못 나가겠다고. 안 나갔어요. (최성호, 3-9)

최성호는 식당을 그만두면서 요리사의 꿈도 접었다. 면담 과정에서 최성호는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보다 집에서 요리하는 게 즐겁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는데, 그것은 어쩌면 요리사라는 직업을 자신의 삶에서 분리하려는 시도일지도 모른다. 집에서 하는 요리는 훨씬 주도적이지만 식당에서 배우는 요리는 레시피에 의존해야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리고 요리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므로 굳이 직업으로 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연구자: ‘냉장고를 부탁해’ 막 이런 것도 봐요?

최성호: 집에서 맨날 보죠. 보고 따라해 보고. 요즘도 집에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뭐라도. 처음에 제육볶음을 하면 맨날 그것만 해요, 맛있을 때까지. 근데 가족들이 워낙에 고기 같은 거 좋아하고 제가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처음에는 “맛있다” 이렇게 말하다가 제가 맨날 하니까 문제점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 맛이 좀 이상하다.” “오늘 한 거 맛이 좀 이상하다” 그럼 공책에 적어보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걸 다음부터 안 넣어야겠다. 그럼 다음에 또 해보고. 근데 재밌어요, 집에서 요리하다 보면. 주방에서 요리하는 거랑 집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집에서 하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제...저 혼자만 하니까 생각하는 대로 넣을 수 있고. 주방에서 하면 억압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얇게 썰어야 되는 데 왜 두껍게 썰었냐. 다 버려라 그래서 다 버리고. 제가 봤을 땐 야채도 두껍게 썰어야 식감도 좋고 맛있는 데 이걸 왜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맛도 안 나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집에서 해보면 그게 더 맛있거든요. 제가 하는 게 더 맛있거든요. (최성호, 1-11)

최성호는 요리사라는 직업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다. 그렇지만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견뎌야하는 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꿈을 위해서 참고 견딜만한 심적 여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아직도 좀 마음 한 구석에 있죠. (응) 아직도 요즘도 티비에 요리 프로그램 나오면, 내가 지금 생 어거스틴에서 일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나도 저기 티비에 쉴 수 있을텐데. 내가

SK 아무리 일을 해봤자 티비에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티비에 나올 수 없잖아요. 물론 티비에 나오는 게 꿈은 아닌데. 티비에 나온다는 게 의미가 좀 있잖아요. 자기가 노력한 거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주위에 요리하는 애들 보면은. 재는 했는데 왜 나는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최성호, 3-22)

최성호가 요리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데는 경제적인 현실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주방 보조를 거쳐 메인 요리사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때까지 인격적인 모욕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궁핍도 견뎌야 한다. 그렇게 견딘다고 하더라도 메인 요리사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노래는 직업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요리도 사적으로 즐기는 일은 되지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급선무인 돈을 버는 일: 대기업 생산 공장 일용직

주방 보조를 그만두고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새로운 일을 찾았다. 집 근처에 있는 대기업 생산공장 일용직 면접을 보러 가면서 꼭 취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와 큰누나는 오랫동안 해오던 학원 강사의 일을 그만두었고, 아버지는 중국에서 새 학원을 열려고 하고 있으며, 큰 형은 군대에 있다. 그래서 현재 최성호의 집에서 동네 PC방에서 알바를 하는 작은 누나를 제외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최성호는 어디든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연구자: 그럼 어쨌든 지금 일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거의 직장처럼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네요. 꼭 요리 아니어도.

최성호: 지금 누나도 일을 그만두고 해가지고 얼른 제가 돈을 벌어야 돼요. 엄마 아빠 누나, 집에 들어오는 돈이 이제 없잖아요. 누나도 그냥 퇴직금 갖고 있으니까(하략) (최성호, 2-17)

최성호: 솔직히 지금 요리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배워보고 싶기도 한데...(3초 후) 거의 지금도 집에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제가 음식을 하는데 집에서 하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중략) 집에서 아무도 터치 안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 굳이 식당까지 가서 욕먹으면서 막 돈 받고 이렇게 해서 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돈을 따로 이렇게 벌어서 그 돈으로 학원을 또 다녀도 되고. 아니면 레시피 같은 게 되게 많으니까, 요즘은. 재료만 사다가 해봐도 괜찮고.

연구자: 그러면 일의 종류는 별로 상관없고? 돈 벌 수 있는 일이면?

최성호: 지금은 급하니까. (최성호, 2-10)

당장 돈을 벌어야하는 시급함은 요리사라는 직업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지금 당장 요리를 해서 돈을 벌기 어려운데, 현재 가정 상황은 한시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에 요리사는 지금의 최성호에게는 사치스러운 직업이다.

최성호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접고 집으로 갔다. 친구 중에 집 근처의 대기업 생산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보달라고 부탁을 했다. 최성호에게 일의 종류나 의미는 중요하지 않았으며,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노동의 대가로 적절한 수준의 임금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월급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 주방 보조로 일할 때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집에서 걸어다니기 때문에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치러야했던 월세, 차비 등과 같은 생활비도 거의 들지 않는다.

: 제가 시켜달라고 했어요.

연구자: 아, 왜?

최성호: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연구자: 으응.

최성호: 그래서 용돈벌이라도 해야 돼서 들어갔어요. (으응) 월급도 세고.

연구자: 월급은 얼마지 물어봐도 돼요?

최성호: 네. 월요일부터 예를 들어서 금요일까지 나오면, 씹, 거의 한 180? 좀 넘고 토요일까지 나가면 한 200. (아) 특근을 하면 이제 거기서 일했을 때보다 훨씬 낫죠. 여기는 거의 하루 12시간씩 일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12시간 일하고, 140 받았는데. (최성호, 3-2)

최성호는 지난 8월 말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급여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 지난 8월에 4일 동안 일을 했는데, 잔업수당과 야근수당 등이 붙으면서 삼십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최성호가 받은 일당 중에 최고 수준이다.

연구자: 4일 일 했다고? 8월 달에?

최성호: 근데 삼십얼마가 들어왔어요.

연구자: 아. 뿌듯했어?

최성호: 그렇죠 (하략) (최성호, 3-8)

최성호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생산 공장에서는 밤낮없이 일할 인부가 필요하다. 최성호가 살고 있는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인구 대부분이 노년층이다. 그러다보니 최성호가 일하고 있는 생산 공장에서 몸을 쓰는 일을 해 줄 청년 인력이 부족하다. 최성호는 추석연휴에도 나와서 일을 했다. 그가 일하는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는 회사이다. 휴일수당을 챙겨주기 때문에 최성호는 추석연휴가 오히려 반갑기까지 하다. 공장의 간부급들은 최성호와 같은 청년은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

최성호: 되게 잘 해주고. 부장님이 요번에 알바들이 막 다 같이 찾아가지고 추석 때, 특근으로

달라 나오겠다 하고, 알겠다 해서 추석 때 애들 다 나갈 것 같아요.

연구자: 같이 찾아갔다고? 우리 나와서 일 할테니까.

최성호: 그죠. 정직원들은 해 주는데, 정직원들은 추석 보너스나 이런 거 다 나오니까. 알바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껌오라도 받으려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다 올라간 거죠.

연구자: 만약에 말 안했으면 그 때 쉬는 거예요?

최성호: 쉬는 건 아니고 일을 해도 원래대로 되는건데. 점 오배가 쳐 지는거죠. 원래 하루 일당이 뭐 8만 8천 원 정도라고 치면은, 특근으로 쳐 지면 12만대. 5일만 일해도 60만원이 되는 거니까(최성호, 3-7)

현재 최성호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물건을 이동하는 단순 업무이다. 업무 강도가 세지만 현재의 일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 현재의 일에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더라도 존댓말을 쓰는 등 인간적으로 존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며, 둘째는 이전의 주방보조와 비교하여 급여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향 친구들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다.

OO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원단이라는 게 있어요.(원단?) 그니까 플러스크이랑 마이너스크을 나눠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만들면 이제 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쪽에서 생산을 하면 그걸 다른 쪽에 받으러 가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뭘 하는데 그걸 저희가 이동을 해 주는 거예요. 원단을 이동해 주는 거예요.(뭘로? 들어서?)아니 끌어야 해요. (아) 엄청 힘들어요. (음) 힘든데, 재밌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고향 친구들?) 재밌어서. 돈도 더 많이 받고 하니까.(최성호, 3-1)

최성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단순 업무이고 보조적인 잔업이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여긴다. 심지어 자신이 매일 물건을 나르면서 이동하는 거리가 20km나 된다면 뿌듯해했다. 또 자신과 같은 일용직이 그만두면 “비상”이 걸리기 때문에 공장에서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했다. 그러한 자기 인식은 공장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데서 비롯되었다. 최성호는 지난 추석에 출근해서 잔업을 하는 대신 특근 수당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는데, 그는 그것을 회사가 자신에게 인간 취급을 해주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이전의 주방 보조의 경험과는 상반된 경험이었다.

최성호: 본사가 있고 밑으로 쪽쪽쪽 내려와서 저희가 있는 거예요. 생산 업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웬만하면 알바들이 생산하는 건 아니고, 잔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필요한 일이지요. 원단을,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저희가 걷는 게 20km 정도 된대요.

연구자: 이렇게 계속 날라야 해?

최성호: 그런 거를 정직원들이 할 시간이 안 되는 거죠. 생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알바들이 만약에 지금 저희가 다 나가버리면 거기는 비상이 걸리는 거죠. 다 막혀버리니

. 일단 그래서 알바들한테 되게 잘 해줘요 (중략) 이게, 딱 쉽게 말하면 인간 취급을 해 주는 거죠. 거기는 그런 게 없었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해줬죠 거기서. 시키는거나 해라. 못 하면 혼내고. 나갈라면 나가라. 시키는 걸 해라. 불만 사항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아무 때나 얘기하면 다 해주고. 그,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하니까. (응) 그런 게 좋죠. (최성호, 3-7)

최성호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군대를 제대한 후에도 하고 싶다고 했다. 심지어는 좀 더 급여가 많은 지역의 공장으로 가서 일할 생각도 하고 있다. 고창으로 가면 돈을 많이 주는데다가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최성호: 군대 갔다 와서도 하고 싶어요.

연구자: 왜?

최성호: 그냥. 재밌으니까.

연구자: 일이 재밌어서?

최성호: 일이 재밌고. 처음 우선은 돈이죠. 돈도 많이 주고.(최성호, 3-23)

제가, 여기 아니면 또. 다른 데도 고창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더 세요.(월급이?) 초급이 250에서. (응)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정직원으로 들어간대요. 애초에 들어갈 때.(미필자여도?) 그건 모르겠어요. 군대 갔다 와서 거길 갈지 여길 갈지.(최성호, 3-7)

그렇게 최성호의 삶은 요리사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현재의 일터에서 일에 대한 만족감은 물론이고 이전의 비인격적 대우와는 달리 인간적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이곳에서 가능하다면 계속 일하고 싶다.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면서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요리사가 되기 위한 길로 들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연구자: 이제 요리는. 요리사 돼야겠다 이 생각은 저 멀리 보내는 중?

최성호: 지금으로서는 우선. 뭐 또 좋은 기회가 오면은 할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이렇게 여러 가지일을 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완전 안 맞았던 걸 수도 있죠.

연구자: 요리사가?

최성호: 별 거 아닌 별거 아닌 일인데 이렇게 재밌는 걸... 하고 싶은 거 해 봤는데 힘들어서 나오는 거 보면.. 적성에 안 맞는 거 같기도 하고.(최성호, 3-23)

최성호는 그렇지만 자신의 꿈이었던 요리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쓸쓸하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망한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애써 요리는 요리사라는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라고, 오히려 지금 일하는 일터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취미로 요리를 배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한다.

: 들어오면 카톡에 초대가 돼요. “식구 한 명이 늘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처음에는 진짜 너무 뿌듯한 거예요. 뭔가 꿈을 이룬 듯한 느낌.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하니깐. 진짜 내가 요리하고 싶다고 해서 요리의 길로 왔구나. (미소를 머금은 듯한 어조로) 되게 좀 신기했죠.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런 얘기. (약간 차분해진 목소리로) 근데 포기를 했으니깐. 근데 뭐 포기했다고 해서 인생 망한 거 아니니까. 요리를 하고 싶은 거는, 요리를 하고 싶은 거니까 굳이 주방에 안 들어가도 집에서 요리할 수 있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룬 걸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요리하면서 사는 것도. 요리사가 꿈이 아니라 요리를 하는 게 꿈이었으니깐. 엄마 아빠 맛있는 거 해주는 게 꿈이었으니깐. 근데 엄마 아빠는 이제 그걸로 좀 더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벌어서 돈도 벌고 하라.

연구자: 하고 싶은 거랑 직업이랑 연결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

최성호: 그렇죠. 저는 딱히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직장이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요리한다고 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직장에서 일하면 여기 뭐 저녁7시면 끝난대요.(최성호, 2-15)

최성호는 좋아하고 하고싶은 일이 직업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직업은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하고 싶은 일은 돈을 벌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성호는 이제 직업에 대한 꿈은 사라졌다. 꿈을 물었을 때 최성호는 “얼른 집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했고, 개인적으로는 “직장 다니면서 돈벌고 하고 싶은 것(요리) 하는” 것을 바랐다. 즉 최성호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직업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으며, 직업과 취미로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의 일과 하고 싶은 활동으로서의 일을 구분짓고 있었다.

최성호: 지금 꿈이요? 씽. 당장에 꿈은 얼른 집이 잘 되는 거. 그리고 제 개인적인 꿈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게,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연구자: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버스킹, 요리 이런 거?

최성호: 버스킹, 요리 진짜. 그런 거? 직업을 꿈꾸는 거 치고는. 어떤 직업을 꿈꾸는 건 없어요(최성호, 3-23)

최성호는 직업에 대해 꿈꾸는 것은 없다. 최성호에게는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 역시 사치스러운 일이다.

3. 현규와 일

가. 일: “사고”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버는 일

이현규에게 일이라는 것은 필요한 돈을 버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그는 장래희

망이나 꿈을 좇아서 직업을 구하거나 인생에 대한 설계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가 일을 시작한 것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 때문이다. 이 때의 사고는 예기치 못한 일들로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왔다.

아프시다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게 좀 생기다보니까. 하다보니까 어느 순간 2년 3년이 훑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저도 서비스를,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한 3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하다보니까 사건이 터져서 어쩔 수 없이. (연구자: 또 돈 벌고 또 돈 벌고.) 네. 직원을 하면 월급이 좀 더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이현규, 1-2).

연구자: 그때는 예를 들어서 ‘한 1년만 돈 벌고 공부하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현규: 네. 이 일을 이렇게 오래할 줄 몰랐었어요. 짧게, 저도 그냥 딱 1년만 돈 벌고 그 돈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사건 사고가...어머니가 그때 다치고 일을 못했으니까. 뭐 되게 안 좋은 일이 많았었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시고.

연구자: 그 스포츠 매장 일 하는 동안?

이현규: 네. 사건 사고가 많았고. 제가 또 거기서 사기를 당하고 그러니까(이현규, 3-5).

이현규에게 아르바이트가 아닌 본격적인 일, 즉 ‘직원’이 되어 시작했던 일은 군 제대 후 스포츠 매장에서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3개월 정도 일하려던 계획이었지만, 가족들에게 “사고”가 생기고, 돈이 필요한 일들이 벌어지자, “월급이 좀 더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직원으로서의 일을 시작했다. 현규에게 첫 이직의 이유 또한 “사고”때문이었다.

그 스포츠 매장 때 사건이 많았었어요. 그 매니저님이, 제 위에 있던 매니저가 사기를 해가지고 그 때 빚을 좀 많이 졌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말씀 못 드릴 그런 거라서. (중략) 사기를 당했었죠. 800? 저희한테는 이제, 직원들 다 당한 거였었어요. 매니저가 이제 ‘그만둔다’ ‘매장재고가 로스가 났다’ 저희한테 1억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금액을 알려줬는데. 근데 저희는 분명히 저희가 맨날 카운팅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럴 리가 없다 했는데. 겨울잠바가 한 200피스 정도 그렇게 된 거예요. (중략) 2천만 원이 나와서 네 명이서 나눠서 내야 되는 거였어요. 내라고 하니까, 그 때는 전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건줄 알고 내라고 하니까. 그때는 어린 나이니까 큰돈이 없잖아요. 집도 어렵고 하니까 대출을 받았죠. (중략) 그래서 이제 내고 매니저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저도 그만뒀죠. 그때 그만 두고 빚이 있으니까 빚도 있고 집도 어려우니까 다른 데 알아봐야지 하고 알아본 게 지인들이 또 소개시켜준 데가 또 (중략) 그러다보니까 그 업계에 관련된 사람들한테서 연락이 와서 다시 또 이쪽 (백화점)으로 들어오게 됐죠. 바로 또 그만두자마자 바로 또 시작하고. 거기서 계속 이 일을 하다 보니까(이현규, 1-3).

이렇게 보면, 이현규에게 일의 의미는 돈을 버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그 돈은 주로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특히,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현규는 일을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군 입대까지 수개월동안 현규가 벌었던 돈의 대부분은 가족 특히 어머니에게 갔다.

. 그래서 많이 번 걸로 집이 워낙 빚이 많으니까 군대 가서 쓸 돈은 따로 있었는데 많이
는 없고 한 5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부모님 드리고. 엄마 냉장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냉장고 바꿔 드리고 나머지는 빚 갚는데 쓰라고 하고(이현규, 3-3).

현규가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을 위해 생계를 책임지고 돈을 버는 것은 부모 간 관계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그에게 어머니는 폭력적이고 불성실한 남편을 자식 위해 견딘 사람이다. 따라서 20대 이후 어머니는 그가 돌보고 모셔야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현규: 그렇죠. 어릴 땐. 좀 더. 그 때 아빠 칼 던져서, 저희들이 엄마 따라서, 외할머니도 오
시고, 겨우 겨우 말리고. 그니까 뭐, 지금 말하는 가정폭력도 있었고, 많이 싸우셨다더라
고요. 그래서 엄마는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 그게 좀 많이 보이죠. 나이 드니까 보
면 볼수록 생각해보면 엄마가 왜 그랬는지. 어떻게 보면 저희 땀에 계속 붙잡고 계신 거
죠. 스무 살 때는 막 그렇게 막, 처음에는 되게 고등학교 때는, 따로 사시니까, 들어오라
고.

연구자: 아 그러면 고등학교 때 이미, 따로 사셨어요?

이현규: 중학교 때부터.

연구자: 중학교 때부터? 엄마 노래방하실 때부터?

이현규: 아뇨. 노래방, 접고 나서부터 따로 사셨죠(중략) 그때 어머니가 되게 많이 하셨어요.
뭐 노래방도 하고 정수기도 하고, 택시 운전, 콜택시도 하고. 몸이 안 좋아서. 약간, 흠,
솔직히 말 하면, 그런 게 좀 있죠(이현규, 2-7).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일을 하는 것이 현규에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에게 일을 하며 사는 것은 “툽니
바퀴” 같은 일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전에는 2시간, 2시간40분 걸리다보니까 진짜 톽니바퀴처럼 그냥 자고 일어나면 출근 또 자
고 일어나면 출근. 처음에는 첫 매니저 달았을 때는 되게 열심히하다보니까 2년이 금방 지
나갔어요. 근데 이제 2년째 댔을 때 갑자기 ‘왜 하는 걸까?’ 제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
더라구요(이현규, 1-7).

쉬거나 놀 수 있는 시간, 돈 버는 일과 무관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현
규에게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현규

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성취감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 성취감 있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 일을 해서 성취감이 들었다 이런 거는 아직은 없었어요.

연구자: 왜, 그때 A백화점에서 일할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

이현규: 그거는 돈 때문에. 돈을 많이 버니까. 일단 엄마도 드린 것도 많고 제가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그냥 좋긴 좋은데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니까 이게. 기회가 와서 하자 한 건데. 막 큰 성취감 같은 거는...지금도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생계 때문에 하는 거니까. 약간 생계형이니까 지금은. 그때 매니저 자리도 추천이 들어와서 하긴 했는데 생계 때문에 빨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저 할래요.” 그래서 그랬지(이현규, 3-12).

이현규에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성취감을 주는 보람 있는 일은 아니다. 그에게 돈을 벌기 위한 일은 가족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지만,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고 보람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 제대 후 7년간 쉼 없이 일을 하며 살고 있다.

나. 일터: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공간 & 열악한 노동의 공간

당연하게도, 이현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돈을 버는 경험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 의식·무의식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배워왔다. 특히, 이십대 초반 일을 하기 시작한 현규에게 일터는 곧 인간관계를 배우고 만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쵸. 결혼하셨었거든요, 매니저가. 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도 자주 가고 같이 맨날 저희가 동생 같다고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저도 형이 없으니까 형님처럼 잘 모셨는데(이현규, 1-3).

처음 일을 시작했던 스포츠 매장에서 만난 매니저는 현규에게 형님 같은 존재였다. 친형이 없었기 때문에 형처럼 생각하며 믿고 따랐던 것이다. 그 이후의 일터에서도 현규는 형, 누나라고 부르고 따르는 선배들을 만난다.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관계에 관해 배우고, 네트워크도 만들어 왔다. 실제로 그가 이직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잘 알고 지내는 (전)직장 동료 등의 소개를 통해서였다.

그런데 이현규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은 동료만이 아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사실 소비자들이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서비스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위 ‘갑질’ 때문에 이현규는 상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을 드리거나 아니면 과일 같은 걸 사가거나 이런 것들도 많았

.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그분들은 그런 게 좀 있어서 백화점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백화점 바이어들이 얘기를 하죠. 블랙리스트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희 사은품이라던지 상품권 같은 거 사서 드리는 거죠. (중략) “직접 와라” 와서 사과를 받고 싶다 라던지.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걸 다시 환불하고 또 나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야겠다 고 해서 물건을 또 다시 달라는 사람들도 많아요(이현규, 2-1).

그리고 현규의 현재 직장인 B백화점의 경우, 노동자들의 이동 수단이나 휴식 공간이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백화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편안함과 만족이기 때문이다.

보통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고객 위주. 근데 이제 너무 고객 위주는 C백화점이 많이 하고. E백화점나 D백화점은 조금 그나마 나은 데. C백화점은 직원화장실 빼고는 고객화장실은 사용 못해요. 에스컬레이터도 사용 못하고 엘리베이터도 사용 못하고. 그럼 저희는 직원 엘리베이터 사용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느리고. 창고가 멀면 뛰어서 계단 내려가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좀 이렇게. 바쁠 때 주말에는 가끔 고객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도 되는데 그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중략) 백화점에 직원 엘리베이터가 2개. 화물 하나랑. 그 2개로 백화점 직원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타면 꼭 차니까 맨날 기다렸다. 그럼 시간이 가면 안 되니까 또 계단으로 그냥 뛰어갔다 왔다갔다. 창고는 대부분 지하1층, 지하 2층. 지하 쪽에 있거나 가끔 매장 뒤편에 있는 데도 있어요. 벽에 있는 데, 뒤편에 있긴 한 데, 어차피 뛰어 다녀야 돼요. (중략) C백화점은 약간 고객 위주. 근데 그런 진상, 한마디로 말하면 진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도 C백화점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무조건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컴플레인들이 많고 뭔가 사고 터지는 거 보면 보통 보면 C백화점이 제일 많아요. 뭐 백화점에서 그때 고객이 앉아 있는데 백화점 직원들이 무릎 꿇고 있는 것도 C백화점였었고. 백화점에서 어느 정도 그런 고객들을 잡아 줘야 우리 직원들도 그런 게 없이 저희는 뭔가 잘못되면 무조건 저희 잘못이에요. 그런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그런 거를 푸는 거는 매니저들은 술로 많이 풀고(이현규, 1-14).

심지어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휴식 시간을 보낼 공간도 마땅치 않다. 특히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진짜 흡연하시지 않는 분들은 거의 계단에서 쉬(이현규, 3-3)”어야 한다.

이현규가 하고 있는 일은 백화점 매장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잘 고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은 본사나 백화점에 고용되어 정해진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을 올려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고 팔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하는 “본사”는 사업자들의 매출 실적에 따라 차별화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매니저인 이현규에게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의 최우선이 된다.

아무래도 지금은 오프라인은 많이 줄었죠. 온라인 생긴 다음에는. 온라인을 많이 해야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회사마다 잘 나오는 매장이 있잖아요. 거기로 가고 싶어 하는 매니저들이 있거든요. 돈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로 가고 싶은 마음에 본사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보고. 안하면 살아남기 힘들니까. 여기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딱 숫자로 봤을 때 신장률이 높다 매출이 올랐다 그러면 이 매니저는 정말 잘하는 매니저고 계속 역신장이다 아니면 마이너스로 매출이 되게 안 좋다 그러면 이 매니저는 못하는 매니저고.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어쨌든 저는 열심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투자를 해서라도 사은품을 사서 뭘 한다던가. 보통 이거는 사은품도 다 매니저들 돈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은품을 안 주면 안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왜냐면 옆에 가면 또 같은 게 있고 또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 가격 차이가 만원 오천원 요건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뭐라고 하나 더 주면 거기서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거죠. 양말을 사건. 아니면 가끔 본사에서 사은품 지원해 드릴게요 하면서 사은품 같은 게 나오면 그걸로 드리고. 아니면 근처에 커피숍이 있으면 커피숍 이랑 연결해서 저희가 한 달에 30만원 정도 미리 사서 쿠폰을 물건 사신 분에게 드려요. (중략) 그럼 또 좋은 매장으로 가고. 아니면 수수료를 올려 준다거나 뭘 더 챙겨준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의류 같은 경우는 행사상품, 기획, 이월 이런 걸 받으려면 뭘 해서 터져야 되는데 받고 아무 것도 못하면 다음부터 주지를 않거든요(이현규, 3-7~8).

이현규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매출을 올려야 한다. 그래서 하루 하루 얼마나 물건을 파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현규는 소비자의 “갑질” 못지 않게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루 중) 제일 힘든 순간은, 매출 안 나올 때. 그냥 멍하니 있을 때. 이 시간이, 멍하니 있는 게 시간이 아까운 거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애네한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뭘 시켜요 계속. 디퓨저 바꾸고, 이게 일주일 동안 있는 건데, 일주일에 아니면 삼일에 한번 씩 바꿔주고, 아님 가방도 청소하고. 근데 그 시간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람이 남잖아요. 효율적으로. 굳이 청소했는데 또 청소하고.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중략) 여기 매니저들은 판매할 때가 제일 좋아요. 아무 힘들게 해도 판매가 되면. 금액이 올라가고. 그때가 제일, 판매직들은 다 좋죠. 아무리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주세요 해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 스트레스는 잠깐이고 판매가 찍히는 거 보면 기분 좋죠. 뭐라도 한 것 같고(이현규, 2-15).

백화점 안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매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이 있어야 한다. 이현규는 백화점 의류 매장으로 가고 싶어하지만, 현재의 2배가 되는 보증금을 구할 수 없어서 못가고 있다.

이현규: 지금은 그렇죠. 옛날에는 스포츠도 해보고 신발도 해보고 했는데 매니저 달고 나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따로 돈이 없으니까. 의류로 가고 싶어도 의류는 보증금이 천만원이에요.

: 더 세구나? 이런 악세사리 이런 것보다.

이현규: 그죠. 단가는 낮은데 재고량이 많으니까. 그게 만약 로스가 나고 이걸 매꿨을 때 천만원까지는 자기가 본사에서 왔다갔다 해줄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중략) 그래서 보증금이 천만원. 근데 저는 그게 없으니까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거예요. 의류를 해보고 싶기는 해요(이현규, 2-8).

이현규에게 현재의 일터는 일하는 과정이 아니라 일의 결과를 중요시하며, 이 결과에 따라 이후 벌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달라지는 곳이다. 돈을 버는 것이 현재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현규에게는 직장에서의 일이 늘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다. 악착같이 일해서 얻은 작은 성공

이현규에게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얻은 크고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있다. 중학교 때까지는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뒤늦은 공부를 통해 대학 입시 준비를 하면서 현규에게는 성실하게 노력하는 습관과 특성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매장의 매니저 일 또한 현규에게는 이 노력과 성실성으로 접근해야 할 일로 여겨진다.

진짜 악착같이 1200에서 그 다음 달은 1300, 1400, 1500 해서 2000까지 매장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때쯤 직원이 그만뒀거든요. 두 번째 달 됐을 때, 800 다음에 1200 됐을 때.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형, 힘드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만 둘게요” 라고 얘기를 해줘서. 원래는 제가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마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중략)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밥도 안 먹고 그냥 혼자 계속 일을 했었어요. 매장에서 벗어나는 일은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10시간을 혼자 계속 있었어요, 매장에서. 그렇게 해서 제 나이에겐 좀 큰돈을 벌었었죠. (한 달에) 400-500. 그땐 어머님한테 200, 300씩 드리고 나머지, 저도 보험 이런 걸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대출 빚도 조금 조금씩 갚고(이현규, 1-5).

이 성공의 방식은 “악착같이”에 있다. 현규는 매상을 올리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다. 그 결과 그는 1개월 배상이 800이었던 매장을 2000까지 끌어올린다. 25살 나이에 일찍 백화점 매장 매니저가 된 그는 성실과 근성으로 지금까지의 작은 성공을 만들어온 것이다.

제 나이 또래에서 제가 좀 매니저를 빨리 단 경우라서. 최연소로 달아서. 제가 지금 5년 차니까. 거의 없죠. 서른다섯 돼야지 매니저 다니니까, 보통. 저도 그게 좀 있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매니저들은 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밉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악착 같이 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괜히 어린 애가 와가지고서는 책임감 없이 군다 이런

듣기 싫었고. 엄마도, 저희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가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피해 안 주게끔 제 할 것만 딱 정해져서 하고 남들 도와주고. 그래서 워낙 사람들에게 많이...사람들도 되게 많이 알게 되고. 이 일을 하면서 사람을 알게 되니까 그런 게 있더라구요(이현규, 1-11).

이러한 성공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이 일이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생계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해요.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들어주는 걸 되게 좋아해서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조언을 해주되 많은 조언은 안 해주는데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아서 이 직업이 괜찮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이현규,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일하는 현규의 일상은 팍팍하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공무원의 꿈은 때때로 현규가 현재의 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갖도록 만들기도 한다.

IV. 비진학 빈곤 청년의 빈곤 경험

1. 수진의 빈곤 경험

가. “엄마 아빠 주고 싶은데”

수진은 가족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서도 아버지에게 늘 미안함을 느낀다. 조금이라도 덜 미안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해서 집에 보태고, 대학에 가고 싶던 막연한 바람도 접었지만, 미안함은 여전하다.

: 엄마도 아파서 쉬고 있으니까. 아빠만 일하고. 아빠가 가장이니까. 오빠도 군대에 있고. 그래서 아빠 맨날 너 왜 이렇게 쉬냐고 그러면서 일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아 애 아픈데 그냥 냅두라고.

연구자: 아빠는 수진씨가 일 했으면 좋겠구나.

한수진: 네. 일하면서 집에 이자 낼 거 있다고 해서 거의 30인가 그렇게 주고. 아빠 용돈 주니까 좋아하더라구요.(한수진, 2-1)

수진의 아버지는 중학교를 졸업 후, 지금까지 22년째 우체국에서 택배 업무를 맡고 있다. 하루에 할당량을 채워야하는 택배 업무 자체가 매우 고된 작업이기도 한데다 다른 택배업체와 달리 우체국택배의 경우에는 택배를 받는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고 택배를 놓아 둘 곳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른 택배에 비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과도한 업무량과 비효율적인 업무의 특성 상 수진의 아버지는 퇴근 후 술로 괴로움을 푸는 날이 잦았고 술을 마신 후에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푸는 일이 많았다.

한수진: 엄마 아빠가. 아빠랑도 원래 말을 안했어요. 일하고 오면 힘드니까. 지금은 장난도 잘치고.

연구자: 지금도 아빠가 힘드실 거 아니에요?

한수진: 더운데 하루에 한 240개 정도인가 180개 정도 택배 가지고 다니고. 우체국이 그렇대요, 다른 데는 그냥 전화해가지고 어디 냅두겠다고. 전화 안 받으면 그냥 냅두고 가면 되는데 우체국은 게 아니래요. 전화를 받아야지만, 어디다 냅뒀주세요 해야지만 냅두는 건데 전화를 너무 안 받는다고 싫어해요.(한수진, 2-9)

한수진: 아빠도 가끔가다 울어요. 힘드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죽으면 보험료 다 나올 텐데. 그래서 그랬어요 아빠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연구자: 택배 일 하시는 게 힘들어서?

한수진: 아니, 그냥 돈 버는 게 힘들대요. 쉬지도 못하고. 추석이나 설날 때 택배가 엄청 많아

.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고.(한수진, 2-11)

역시 중학교 졸업 후 이따금씩 몸이 아파서 쉴 때를 빼고는 식당에서 홀 서빙이나 주방보조 일을 계속해서 해 오던 어머니는 현재 아파서 잠시 일을 쉬고 있다. 수진의 오빠가 사고를 내서 사고비를 갚아야 했을 때도 아파서 쉬고 있던 어머니가 다시 일당직에 나가 사고비를 마련해야 했다.

연구자: 그때 사고비로 천만원 정도 나온 것 중에서 500 넘게 갚으신 거잖아요. 엄마가 일해서 갚으셨다고 했잖아.

한수진: 네. 엄마가 그냥 갚아줬어요. 아빠는 신경 안 쓰고. 엄마가 이것 때문에 일했어요. 그 전에도 일했는데 쉬고 있다가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일 시작하고.

연구자: 그때는 왜 일을 쉬고 있으셨더라? 아프셨었나?

한수진: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몸이 힘들다고.

연구자: 그래서 다시 하게 된 일이?

한수진: 고기집.(한수진, 3-21)

수진은 아버지에게 ‘미안함’이 드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어머니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나가서 일하고 집안일 하는 것 외에는 편하게 자기 속 이야기를 나누며 놀 수 있는 친구관계가 엄마 가까이에 거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연구자: 엄마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한수진: 좀 안타깝긴 한데. 그냥 편하게 나가서 못 놀고. 다른 아줌마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엄마는 그런 게 없어요.

연구자: 왜 그럴까?

한수진: 이모도 대구에 있잖아요. 가끔 놀러 와요. 오면 같이 시내 가서 놀다가 오긴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집안일 하고 자고 아빠 밥 차려주고 그러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저는 다른 데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엄마도 좀 그랬으면 좋았을텐데.(한수진, 3-14)

수진의 고등학교 졸업을 누구보다 바랐던 수진의 어머니는 지금 수진의 나이인 열아홉 살에 결혼을 하고 수진의 오빠를 낳고 길렀다. 그래서인지 수진의 어머니는 일찍 결혼했던 자신과 달리, 수진은 마음껏 놀러도 다니고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해보고 싶은 것을 다양하게 경험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길 바란다.

한수진: 엄마가 일찍 결혼을 해서. 일찍 가고는 싶은데 엄마가 일찍 가면 안 좋다고 너 해볼 거 다 해보고 가라고. 그래서 스물 다섯 살 정도.

연구자: 어머니가 몇 살에 결혼하셨더라.

: 열아홉. 오빠 낳고 나서 결혼했어요.

연구자: 어떤 걸 더 해보래요?

한수진: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보래요. 놀러도 많이 가보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거 저거 해보다가 맞는 게 있으면 하나에 꽂혀서 하라고.(한수진, 4-1)

오빠는 군대에 있기 때문에, 수진의 집은 현재 아버지의 수입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수진은 일을 구할 때 하루에 12시간 일할 수 있는 일을 선호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아버지에게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연구자: 12시간 일하는 정직원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근데 그 이유에 돈을 많이 받는 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한수진: 돈을 많이 받는 걸 떠나서요 집에만 있으면 눈치보여가지고. 그래서 알바 했다가 풀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연구자: 어떨 때 집에 눈치가 보여요?

한수진: 아빠가 힘들다고 할 때요.

연구자: 요즘도 힘들다고 하세요?

한수진: 최근에 아파가지고, 허리 다쳐서 쉬었어요.(한수진, 3-9)

중학교 때까지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용돈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수진은 받은 용돈 중 일부만 쓰고 모아두었다가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리곤 했다. 고등학교 때는 가끔 버스비를 받을 때 빼고는 자신을 위해 큰돈을 쓰는 일은 거의 없다. 사야 하는 게 있을 땐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버스비로 받은 돈 역시 모아두었다가 (어머니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한 비용을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돌려드리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자: 어렸을 때는 돈 번 건 아니지만 용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용돈을 실제로 받았어요? 아니면 용돈을 주기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 말하면 준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한수진: 말하면 5만원씩 줬어요. 그 중에서 한 1-2만원 정도 쓰고 모아가지고 다시 또 드렸어요.

연구자: 5만원은 고등학교 때?

한수진: 중학교 때인가?

연구자: 고등학교 때는? 일하니까 일해서 쓰고?

한수진: 가끔 받았어요. 버스비로만.

연구자: 그럼, 수진씨는 자기를 위해서 사고 싶은 건 없어요?

한수진: 없어요. 사면 휴대폰 결제로 해요, 엄마 걸로. 그래서 모아놨다가 엄마 다 주고 그래요.(한수진, 3-10)

나. “미안하죠”

수진에게 빈곤은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들게 만드는 것이다. 일을 쉬고 있을 때 “성실하게” “꾸준히” 다니지 못한 것에 미안함을 느끼는 것 외에도 몸이 약하다는 것 역시 수진에게는 미안한 일 중 하나였다. 아버지는 수진이 대학에 가는 대신 일을 하거나, 집도 얻고 안정적으로 돈도 벌 수 있는 직업 군인이 되길 바랐다.

: 아빠가 그 3분 거리에 있는 애랑 엄청 친해요.

연구자: 왜?

한수진: 군인 되는 과가 뭐였더라, 글로 빠져서. 그래서 아빠가 엄청 좋아해요. 만나면 “야, 군발이, 군발이” 이러면서.

연구자: 그 친구는 어느 대학 다니는데요?

한수진: 개가 어디지? ○○대인가 그럴 거예요. 3분 거리에 사는 애.

연구자: 근데 아빠가 그 친구가 그런 과를 간 거를 왜 좋아하시지?

한수진: 모르겠어요. 저도 군대 가라 하는데 저는 못가잖아요.

연구자: 왜? 직업군인 하라고?

한수진: 집 주고 그런다고.

연구자: 아빠 꿈이 군인이셨어요?

한수진: 아빠 원래 꿈이 경찰이었는데요. 첫째 큰 아빠가 공무원 쪽으로 밀어줘가지고 그리로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군인으로 가면 집 주고 그러고 하는데 제가 못 가잖아요.(한수진, 3-7)

5층 아파트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에 사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수진 역시 아버지의 바람대로 일을 하며 집도 얻을 수 있는 직업군인이나 경찰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해서 달리기 같은 걸 할 수 없는 수진은 직업 군인이 되지 못했다. 수진에게 가족은 진로나 꿈에 대해 상의하는 존재가 아니다. 대신 대학 진학을 말리거나 경제적 측면을 기준으로 수진의 진로와 직업을 제한하기도 한다. 대학에 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에도 수진은 고등학교 때 성실하지 못했던 것을 미안해했다.

연구자: 수진씨가 진로를,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일을 할 건지, 대학을 갈 건지 말 건지 이런 거를 상의하는 사람이 아빠인건가, 그러면?

한수진: 대학가지 말래요, 아빠는.

연구자: 엄마는?

한수진: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고등학교) 졸업만 해라. 졸업하고 나서는 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라고.

: 아빠는 대학 가지 말라고?
 한수진: 네. 너 학교 다니는 꼬라지 보면.
 연구자: 수진씨는 그런 아빠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수진: 미안하죠.
 연구자: 뭐가 미안해? 왜?
 한수진: 제대로 다닐 걸. 고등학교 때 잘 다닐 걸.(한수진, 2-20)

이처럼 수진은 면담 줄곧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실제로 수진이 학교에 제 시간에 잘 안 나가기 시작한 때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부터였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 때까지는 버스를 두 번 타고 두 시간 넘게 가야 하는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오빠와 함께 등교시간에 맞춰 성실하게 다녔다.

연구자: 고2 때까지는?
 한수진: 잘 다녔어요. 봉고도 잘 타고. 한 한 달에 한 2-3번 놓칠까 말까.
 연구자: 되게 성실했구나.
 한수진: 근데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연구자: 그래도 고2 때까지 계속 일어나서 잘 다닌 거잖아요.
 한수진: 오빠랑 같이 다녔으니까. 오빠도 같은 봉고 타고 다녔으니까.(한수진, 2-6)

그러다가 오빠가 고등학교를 한 해 먼저 졸업하고 난 후 3학년이 된 수진은 가뜰이나 먼 거리에 때문에 등교시간에 맞춰 가기 힘들었던 학교에 오빠도 없이 혼자서 다녀야 할 만한 동기를 잃었다. 또한 대학진학준비에 맞춰진 수업과 학교 분위기 때문에 수진은 학교에 더더욱 흥미를 붙이기 어려웠다. 그런데도 수진은 고등학교 때의 자신을 줄곧 ‘불성실함’으로 설명했다.

2. 성호의 빈곤 경험

가. 일상적인 포기과 참기

최성호의 아버지는 서울의 한 대학 평생교육원의 교수였고, 어머니는 최성호가 초등학교 3학년즈음부터 시골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했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학원은 처음에는 학생수가 많고 잘됐지만 지방의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점점 학원생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와 맞물려 어머니는 학원 운영을 위해 빚을 지게 되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미국 대학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려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함께 사업을 하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최성호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지게 되었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은 최성호의 가족이 야기한 문제는 아니다. 최성호의 아버지가 제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 그의 잘못은 아니다. 최성호의 빈곤은 통제불가능한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우연하게 발생했다. 또 모순적이게도 가족과 좀 더 잘 살아보려는 부모님의 노력이 빈곤을 야기했다.

: 그러니까 학원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크고, 이제 막내도 초등학교 3학년이고 그러니까, 일을 해 보시려고?

최성호: 원래 이 직장이 있으셨는데, (응) 돈을 더 벌라고, 엄마랑 아빠랑 둘 다 욕심을 부려서, 욕심을 부려서 엄마가 학원을 하고 아빠는 학교를 차린건데, 학교에서 아빠가 생각보다 잘 안 되고, 학원은 처음에 진짜 잘 됐었어요. (아) 증평에 학생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저희 저 초등학교가 없어진대요.

연구자: 지금 없어진다고?

최성호: 저 나온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합쳐서 30명이 안 된대요.

연구자: 지금? 응.

최성호: 그만큼 애들이 없으니까. 엄마는 그걸 빨리 아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인수를 하고, 중국으로 넘어 간 거죠. 잘 되길 바랐지만.(최성호, 3-17)

연구자: 엄마가 학원,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언제쯤 일인 거예요?

최성호: 언제쯤...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연구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접으신 거예요?

최성호: 네, 힘들어가지고. 엄마는 계속 학원에서 일은 하는데 이제 인수만.(최성호 3-2)

연구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대학을 새로 하나 만드셨었다고...그거는 언제쯤이에요?

최성호: 그게 아마 저 중학교 1학년 때.

연구자: 음...그렇구나. 그 학교는 어디에 있었어요?

최성호: 서울에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한국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연구자: 거기도 가 본적 있어요?

최성호: 네, 처음에 만들 때. 문제가 생겼어가지고.

연구자: 어떤 문제인지 물어봐도 돼요?

최성호: 음...(4초 후) 뭐랄까, 아빠가 거의 가족처럼 지내던 제자랑 만든 건데 그 제자가 아빠한테 사기를 친 거죠.

연구자: 어...어떤 종류의?

최성호: 학교에 아빠 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연구자: 없었대구요?

최성호: 아빠가 그 학교 만들 때 아빠를 이용해서 학교를 만들고 아빠를 그냥 내쫓은 거예요.

(, 2-1)

최성호는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것이 돈이 드는 일이라면 일상적으로 참고 포기했다. 최성호는 면담과정에서 부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철없어 보일지라도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보고 싶다고 했다. 지금까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애써 “사고 싶다”는 마음을 눌러오면서 “다음에 돈 생기면”이라고 욕구를 미뤄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최성호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못했으며, “다음”은 아직 오지 않았다.

최성호: 돈...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전 진짜 좀 부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돈이 있으면 좋죠.

연구자: 부자로 살아보고 싶은 건 왜?

최성호: 그냥 너무 좀...솔직히 저도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말을 못했잖아요, 그 동안에. 그런 거....좀 철없어 보이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도 해보고 싶고. 어렸을 때 못했으니까.

연구자: 뭐 사고 싶은 거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어쨌든 나름대로 해소하는 방법 같은 거?

최성호: 그냥 그렇게 막 해소하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사고 싶다’ 이런 생각 하다가 못 사니까 다음에 돈 생기면 살 수 있겠지 그냥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고.(최성호, 2-10)

최성호는 고등학교 때,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식당에서 이름이 불린 적이 있다. 당시 최성호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교감이 점심시간에 식당에 와서 급식비가 밀린 학생들을 호명하고 그들을 식당 밖으로 불러낸 적이 있었다. 교감에게 호명된 학생중에 한 명이었던 최성호는 밥을 먹지 못하도록 한 사실보다도 전교생 앞에서 급식비를 내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것이 더 괴로웠다고 했다. 한 달에 3만원에 불과한 급식비를 세 달 동안이나 내지 못했던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는 부모님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했다.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최성호는 빈곤 때문에 겪는 수치를 참을 수밖에 없었다.

최성호: 고등학교 1학년 때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이제 교감 쌤 앞에서 막. 이름을 불러요. 나오라고. 제 이름이 불러서 나갔는데, 급식비를 안 내서 밥을 못 먹었어요. (어) 근데 그게 밥을 못 먹는 게 서러운 게 아니라 너무 쪽팔린 거예요. 굳이.

연구자: 식당에 먹으려고 줄 서있는데?

최성호: 굳이 그걸 애들 앞에서 불러내고. 몇 명 있었는데. 왜 저렇게 하나. 저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요 짜증나서. 그리고 행정실에 불러 갔는데, 그때 막 엄청 울었어요. 왜냐면, 이제 급식비 못 낸 걸 보는데, 세 달치가 밀렸대요. 봤는데 11만 얼마가? 한 달에 3만원이 없어서 엄마가 못 낸 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막 눈물이 엄청 나는

(최성호, 3-14)

최성호는 가정 형편이 나빠지기 전까지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어머니의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었다.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최성호는 누나들의 사적 공간인 방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거실에서 주로 생활해왔다.

연구자: 이사한 집은?

최성호: 그냥 아파트. 좁죠, 여섯 명에서 살면. 옛날 집은 그래도, 좀 넓었는데.

연구자: 애들이 많아 가지고, 자녀가 많아 가지고, 방은 어떻게 썼어?

최성호: 누나들이 진짜 이기적인 게. (하하하하) 사실 여자끼리 쓰고, 남자끼리 쓰고, 그러면 세 개면 충분한데, 근데 여자들은 따로 따로 써야 된다. 형이랑 저는 거실에서 자는 거죠.

연구자: 아 방 없어? 이사하기 전에도? 어렸을 때도?

최성호: 저희가 없는 거죠. 그게 또, 뭐 싸우다 보면 아빠가 이제 너네가 참아라. 여자애들인데 어떡하냐. 솔직히 개네가 방에서 하는 게 휴대폰 밖에 없는데 그냥 쓰면 되잖아요. 우린 아예 방이 없는데. 여기 이사온 집도, 제가 엄청 따졌어요. 방을 만들어 줄 줄 알았는데, 거실에다가 제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연구자: 책상 갖다 놓고 이렇게?

최성호: 침대 하나 펴 주고, 끝.(최성호, 3-16)

최성호는 고등학교 1,2학년 시절에 방황을 했다고 했다. 소위 노는 친구들과 함께 방탕한 생활을 했었다고 자신의 삶을 회고했는데, 그즈음엔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열일곱이라는 나이는 질풍노도의 시기이며, 독립성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그런 때에 개인적인 공간이 없는 집은 최성호에게 아늑한 공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최성호의 방황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른다.

최성호는 자신의 방이 없는 불편한 생활을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다가 얼마 전이야 어머니께 불편함과 서운함을 털어놓았다. 최근에도 최성호는 집에 잘 들어가지 않았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생산공장이 근처 조부모택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사실은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는 집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그런 최성호의 마음을 알고 방앗간 창고를 개조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줬다.

최성호: 그러다보니 저는 이제 점점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방이. 제가 요번에 엄마랑 얘기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요즘 왜 이러냐고, 이유 좀 알자고.

연구자: 요즘에? 요즘에 왜?

최성호: 그러니까 엄마도 참다 참다가, 왜 자꾸 집을 안 들어 오냐고.

연구자: 최근에도?

: 엄마가 중국 가기 전에.

연구자: 그러니까. 최근에도 집에 잘 안 갔어요? 어디서 자, 친구 집에?

최성호: 할머니네 집에. 왜 그러냐. 얘기를 하다가. 엄청 울면서 나중에 누나들이랑 집 둘러보라고. 진짜 내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공간도 하나도 없고, 내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집에 오기가 싫다. 그러다가 엄마가 얘기하다가 그 날도, 울다가 잤어요. 잤는데, 누나가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누나가 자는데 편지를 써 줬어요. 손 편지를.(최성호, 3-6)

최성호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창고 방을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자신의 집을 가지고 싶은 욕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창문이 없어서 햇볕이 들지 않고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공간에 대한 만족한다.

최성호: 그죠. 할아버지가 아예 집을 하나를 줬어요. 그게. 상가인데, 되게 하얀, 아파트 같은, 조그만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할머니 집이 있고, 그 할머니 방앗간 같은데, 할머니 집이랑 방앗간이랑 이어져 있어서 뚫어 뉘가지고. 계단 내려가면 방앗간이에요. 거기 방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옆에 나가면은 통로에 할아버지 방이 또 있어요. 집이. (응) 집이 하나 있어요, 방 하나 있고, 화장실 있고, 주방이 있고 이런 방이 하나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거기서 살으라고. 집에서 그러지 말고 그냥, 너 여기서 살라고 티비도 놔 주고 그랬거든요.

연구자: 거기가 훨씬 좋네.

최성호: 좋은데 막 햇빛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게 있었죠.

연구자: 답답한 거.

최성호: 어둡고, 냄새나고. 그런 거는. 방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한 동안 거기서 맨날 혼자 살았었어요.(최성호 3-17)

대학을 일종의 소비재로 여기는 최성호는 대학생인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가진 친구로 여겼다. 가지고 있으면 어딘가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갖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연구자: 혹시 대학생 친구들 부러웠던 적 있어요?

최성호: 저 다니는 대학교요?

연구자: 아니, 뭐, 여기 대학교든지.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대학 다니는 친구들.

최성호: 부러웠던...(2초 후) 전 남이 막 부러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4초 후) 부러웠던 적은 없어요. 그냥 뭐 제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개가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막 딱히 막 부럽다 이런 적은 없어요.(최성호, 2-15)

나. 가족 모두가 애쓰고 있지만 넘지 못하는 빈곤이라는 벽

최성호의 가족은 모두 여섯이다.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2명의 누나가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식구가 많다는 것은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책임져야 하는 가족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가정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는 점에서 지지기반이 되기도 한다.

특히 형의 삶은 아버지의 사업 몰락과 함께 무너졌다. 최성호의 형은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유치하려고 했던 미국 대학의 첫 해 입학생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면서 형도 그 대학에서 함께 나왔다. 그리고 형은 줄곧 어머니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20대를 보냈다. 큰 누나의 경우에는 서울에 소재하는 한 사립대학에 합격했지만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휴학하고 어머니의 학원 일을 도왔다. 큰 누나는 결국 대학을 중퇴했고 학위는 사이버대학에서 땀다. 큰 누나는 지금 26살인데 두 달 전까지 어머니와 같이 학원에서 일했다. 큰 형도 줄곧 어머니의 학원이 다른 사람에게로 인수된 이후에도 그 학원에서 계속 일하다가 지금은 군대에 갔다. 성호의 형과 누나는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집안의 빚을 갚는데 동원되었다.

: 형은 아빠 땀에 자기 인생 망했다고. (응)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형 말로는 그런 게 다 도움이 됐다고는 해요.

연구자: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애.

최성호: 그죠. 저도 뭐, 저도 막 그랬잖아요, 저희 힘들었던 게 그렇게 싫지는 않았다고. 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경험을 더 한 거잖아요. 힘든 거를. 형은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때보다 힘들었던 게 없을 것 같다고.(최성호, 3-18)

성호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정의 빈곤을 극복하는데 동원되었다. 성호의 집이 어려워진 것은 성호가 중학교 1학년 때,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가 대학을 설립하는 일에 뛰어들었다가 그 일을 같이 시작한 제자에게 크게 사기를 당하면서 대학에서 쫓겨나면서부터이다.

아버지의 대학 설립의 꿈이 좌절되면서 생계는 어머니의 학원 운영으로 감당해야 했다. 당시 학원을 운영하면서 진 빚도 있었다고 했다. 큰 형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성호는 어머니의 학원에 다녔다. 큰 형은 성호에게 무척 엄하게 공부를 시켰는데, 그 이유는 성호가 공부를 잘해야만 학원에 수강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성호가 살던 지역은 사람이 적은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학원 원장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 그 학원에는 학생이 모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나서 형과 누나는 학원 강사로 일했고, 성호는 학원의 이미지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중학생이었던 성호의 일은 공부였다.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집에서 아침이었는데, 일요일이었어요. 진짜 막 영화에서 보는

어떤 남자 둘이 와가지고 집에 있는 가구에 다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 거 딱 보는 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막 ‘우리집 망했나보다’. 무서웠는데...좀 엄마 아빠 더 힘들어할까봐, 저희가 네 명이거든요 애가, 다 같이 괜찮다고. 그랬던 거 생각...그러다가 형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 엄마 아빠 앞에서 울진 않았는데 딴 데 가서 혼자 우는 걸 그때 처음 봐가지고 형이 울 정도면 진짜 심각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 되게 무서웠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 힘들어지니까 모든 기대가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너가 잘 해야 된다.” 학원이니까 학원 아들이 공부를 잘 해야 학생들이 올 거 아니예요. 증평은 그런 게 좀 커요. 학교 1등하는 애가 다니는 학원으로 다 가고.(최성호 2-6)

형은 최성호에게 엄한 선생님이었다. 형은 “너가 잘해야 된다”고 무섭게 말하고 성적이 떨어지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때 때렸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에게 맞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했다.

최성호: 형이 학원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었는데 집이 힘드니까 형이 학원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도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모든 기대가 저한테 온 거죠, 형 입장에서. “너가 잘해야 된다.” 형이 되게 무섭게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사춘기 때도 보통 애들이면 반항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혼날 때도 제가 너무 억울해서 말하면 오히려 더 화내고 이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못하게...

연구자: 때렸어요, 형이?

최성호: 많이 맞았죠.

연구자: 음...7살 차이인가?

최성호: 네. 진짜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최성호, 2-2)

최성호는 중학교를 다니는 내내 학원 선생님이었던 형과 엄마에게 맞아가면서 공부를 했으며, 성적은 중상위권이었다. 한때 외고를 진학해볼까를 고민한 적이 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공부와는 답을 쌓고 지내게 되었다. 최성호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공부에 손을 놓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더 이상 형이 학교성적에 간섭하지 않았던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연구자: 그러면 엄마한테도 맞고 아빠한테도 맞고 형한테도 맞았네, 공부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최성호: 형은 영어 선생님이었고, 아빠 아 엄마는.

연구자: 수학 선생이었는데.

최성호: 수업 시간에 엄마한테 맞고 형한테 맞고 학원 다 끝나고 나서 아빠가 책 검사 그것도.

(허허허허) 항상 그랬어요. 담배를 피다가 걸렸을 때도 아빠가 먼저 때리고, 엄마가 때리고, 형이 때리고.

연구자: 셋이 합의해서 한 번만 때리지.

: 그니까 아빠가 먼저 때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잔소리하면서 일로와 좋아리 걷고. 형이 그거 보고 있다 애는 그렇게 하면 말 안 듣는다고 따라와. 형이 때리는 게 진짜 제일 무섭죠. 엄마가 짹 때리고. (허허허) 주먹으로 얼굴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최성호, 3-21)

최성호의 가족들 모두가 가게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달렸다. 어머니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고 학원 운영이 녹록치 않아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인수했다. 그렇지만 그 학원에서 강사로 줄곧 일해왔으며, 형과 누나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같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다.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는 대학의 시간강사를 전전했고, 생계를 위해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막내였던 최성호는 나이가 어려 직접 돈을 버는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학원 홍보를 위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했다.

최성호: 근데, 아, 근데 딱 그런 것 같아요. 엄마는 막, 아빠는 아빠. 형은 형. 그냥 딱 그게 느껴지는 게. 아빠가 막, 떨어져 있고, 그런 막, 솔직히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이렇게 판을 벌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다 해주려고 하다가. 그래서. 제가 막 아빠 자리였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왜 아빠는 포기 안 했, 안 했잖아요. 그래서,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빠를 좀 롤 모델로 삼는 게 약간은 있어서. 아빠, 보면은 어쩔 때는 바보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존경스러울 때가 많죠.

연구자: 그, 대학, 만들었다가 사기 당하신 이후에는 아버지는 어떤 일, 하셨어요?

최성호: 엄마한테 들은 바로는 당장은 이제 편의점 알바하고, 저희 모래 그냥. 학교 온다고 하고서. 썸. (응) 하다가 남예종이라고 남서울 예술 종합대학교? 막 연예인들이 교수 하는데, 윤민수도 있고. 아빠 거기서 좀 하시다가.(최성호, 3-20)

가족 모두가 동원되어서 가게의 빚을 갚으려고 지난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아직도 빚은 남아있다. 얼마전에 최성호의 형이 최성호에게 지난 10년 동안 갚은 빚만큼 빚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연구자: 아직 해결 안 된 빚이 있어요?

최성호: 많대요.

연구자: 얼마인지는 모르고?

최성호: 옛날, 저희가 들었을 때, 재작년 때까지도 형이 맨날 그랬어요. 네가 우리 집이 너 삼학년 때부터 너 고등학교 이학년 때까지 갚아온 만큼 한 번 더 갚아야 한다고.

연구자: 중3때부터 고2까지?

최성호: 초등학교 3학년.

연구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엄청 많이 그러면?

최성호: 그런 거죠. (어) 이제는 형하고 첫째 누나가 돈을 많이 보냈죠. 저도 그래야 되는데.

보면 이기적인 거죠, 제가. 제 통장에 돈을 모으고 싶고. 물론 부모님도 그걸 원하지만. 특히 형 누나들은 집에 돈 좀 보태라 그런 게 있죠. 요즘에는 형이 너 네 돈 모으라고. 형이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좋기도 하고 후회가 된다. 네 돈 모으라고.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거라고. 쯤. 뭐, 돈을 모아두면 힘들면은 그 때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일단은 모아보고 싶어요. 일단은 돈이라는 걸 모으고 싶어요.(최성호, 3-19)

최성호의 가족 모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지만 빚은 쉽게 줄어들지가 않는다. 최성호는 부모님뿐 아니라 형과 누나가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아버지가 가족회의에서 지난 시절이 죽고 싶었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자식들 생각에 겨우 마음을 다잡았다는 고백을 한 이후로 최성호는 가족에 대한 애뜻함이 더욱 커졌다.

최성호: 형이랑은 진지하게 얘기하면 눈물 날 것 같아요. 형이랑 얘기하면. 아빠는 아빤 아직도 롤모델. 교수가 롤모델이 아니라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연구자: ‘아빠처럼’은 여기서 뭐예요?

최성호: 진짜 너무 솔직히 아빠가 힘든 일 많이 겪었는데 포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 일했는데 포기했잖아요. 후회 중이고 그래서 아빠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연구자: 책임감 있게?

최성호: 포기 안 하고. 아빠가 되게 일이 많았어요.

연구자: 그거 말고도요?

최성호: 꼭 무슨 일을 하면 누구한테 사기를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아빠가, 저희 집은 항상 가족회의를 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저 같은 경우는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아빠가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대학교 망했을 때 진짜 죽고 싶었다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강을, 한강 다리를 건너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신 거예요. 막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때 저희한테 전화가 왔대요, 딱 그 찰나에. 네 명에서 다 돌아가면서 괜찮다고, 언제 오냐고. 그때 아빠가 막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저희는 그걸 몰랐다가 요번에 안 거죠, 아빠가 그랬다는 걸.(최성호,2-13)

최성호의 가족애는 남다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업을 하기 이전으로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버지를 롤모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아버지처럼 자신의 삶을 버텨내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보겠노라고 다짐을 한다. 빈곤은 최성호의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묶었다.

최성호: 저는 솔직히 다시 다 그 자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연구자: 그 자리?

최성호: 엄마도 원래 하시던 학원하시고, 아빠도 세종대학교 교수님으로.

: 응. 왜?

최성호: 그 때가 저희 가족이 제일 행복했을 때예요. (어) 부모님들도 아무런 걱정도 없었고.
엄마 아빠도 시간적 여유도 많았고. (하략) (최성호, 3-18)

다. 흩어지는 가족

최성호의 부모님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중이다. 중국에서 학교와 연맹을 맺고 운영하는 영어학원을 새로 시작해보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현재 집에는 최성호와 둘째누나만 남아있고, 아버지, 어머니, 형과 누나는 모두 중국에 가 있다.

연구자: 중국에 간 거는, 부모님? 부모님이랑 누나랑? 큰 누나? 뭐 하러 갔어?

최성호: 이제, 아빠가 거기서 학원을 하실 것 같아요.

연구자: 영어 학원 하실, 하실 거라고. 지금 이제, 이걸 뭐라고 하지? 개업? 오픈?

최성호: 10월 달부터는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연구자: 아, 실제로 문을 열고.

최성호: 그렇죠. 이제, 학교랑 연맹을 해갖고, 학교 학생들을 학원으로 보내주면.

연구자: 응, 그 가능, 가능할까요?

최성호: 중국은 그런 게 많대요. 학교랑 학원이랑 연맹을 해갖고, 학원생을 보내 주는.

연구자: 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최성호: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아, 아빠 혼자 사업 하시는 거?

최성호: 동업자가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 했으면 좋겠는데.

연구자: 응. 왜 혼자 했으면 좋겠어?

최성호: 그런, 전에 그런 일도 있었고.

연구자: 걱정 돼서? 그럼 누나랑 엄마는 뭐 도와주러 가시는 거예요?

최성호: 누나는 이제 수업 진행표 같은 거. 중국 선생님들한테 인수인계 같은 거 해 주고. 엄마도 뭐, 엄마는 그냥 학원 운영하는 거랑. 좀 그런 거 아빠랑 그런 거 생각해 보려고.
(최성호, 3-3)

최성호는 가족들이 중국에 갔기 때문에 둘째누나와 둘이서 지내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가 있는 어머니와 누나가 돌아온 이후에도 아버지는 당분간 중국에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덕에 최성호에게도 드디어 꿈에 바라던 방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도 최성호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아쉬워했다.

최성호: 아마도 작은 누나가 혼자 쓰고, 엄마랑 큰 누나랑 쓰고.

연구자: 아빠는 어디 가고?

최성호: 아빠는 중국에 있으니까. (아) 형이, 형이랑 제가 아마 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누

쓰든지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방에서 막, 저희 집은, 저희 집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방이 막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잠잘 때 편하게 잘라고 혼자 쓸라고 그런 거지 뭐 (최성호, 3-17)

최성호는 아버지와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정서적으로도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보고 싶지만 중국에 계시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가 없다. 점점 보고 싶은 마음이 무뎌지는 것에 대한 씁쓸함이 묻어났다.

최성호: (상략) 가족들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엄마도. 아빠는 계속 중국에 계시고. 솔직히 막 점점 잊혀지고 있죠.

연구자: 아빠라는 존재가?

최성호: 어떻게 보면.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도. 생각도 안 날 때도 많고. 진짜 어쩔 때는 막 아빠 얼굴도 생각 안 나고.

연구자: 아빠는 언제 가셨어요. 중국에? 언제쯤에?

최성호: 올해 가셨는데. 몇 달 지금 계속 못 보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아빠가 엄청 보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최성호, 3-18)

최성호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가족들과 여행을 다녔던 기억을 떠올렸다.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놀았던 시간이 빈곤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빈곤은 최성호의 가족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앗아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쉬지 않고 빈곤을 극복하려는 노력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시간도 뺏어갔다.

최성호: 저희 집은 진짜 가족 여행을 되게 많이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갔어요. 제 생각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어렸을 때 드라이브도 엄청 많이 하고.

연구자: 주말에?

최성호: OO 호수공원 같은 데. 아빠 휴가 내면 바다 같은 데도 무조건 가고. 그리고 주말에는 주말에도 맨날 계곡이라도 갔다 오고. 겨울에는 썰매장 가고. (응) 온천 가고 맨날 그랬는데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형도 솔직히 27이면 군대 갔다 오고, 직장에서 일 하고 있을 나인데, 지금 이제 전역하니까. 형도 마음이 얼마나 참, 갑갑하겠어요. 자기 스물일곱 살에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형도 요번에 나오면 중국으로 갈 것 같아요.(최성호, 3-18)

최성호는 가족 구성원 여섯명이 완전체가 된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다면서 속상해했다. 가족 모두가 모여서 무언가를 함께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서로에게 멀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면서도 “다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좋다면서 애써 현재 상황을 긍정하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최성호가 원하는 것은 빚을 전부 갚고 가족이 모두 모여서 함께 사는 것이다.

: 가족끼리 여섯 명이 완전체가 된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응) 너무 오래됐어요.

연구자: 마지막이 언제쯤이었어? 완전체로? 초등학교 3학년?

그건 아니고, 중학교 때 까지는 그래도 있었는데, 그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거의 없었어요. 저 스무 살 되고는 한 번도 없었고. 고3, 고3 때도 거의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가족, 가족이라는 게, 점점 잊혀지는 것 같고.

연구자: 그냥 다 각자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최성호: 속상하죠. (응) 다 보고싶, 보고 싶긴 한데, 짬. 볼 시간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엄마가 맨날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나중에 너희 크고 나면 못 만난다고. (응) 싸우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응) 근데 진짜 현실이 돼 버려가지고. 짬. 근데 서로 미워하고 그런 건 없어 가지고. 얼른 빨리 모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빠가 하필이면 중국에다가 그런 걸 하시니까. (중략)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응) 그냥 엄마가, 엄마 아빠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확실하게 중국에 있을 것 같고. 형은, 형도 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인진 모르겠고, 저랑 같이 뭘 하려고 계획을 짜 났대요. 열심히 돈 모아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진짜로 가족 여섯 명이. 다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좋아요.

연구자: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최성호: 그렇죠. 얼른 빨리 다 같이 돈 벌어가지고 빚도 한 번에 확 갚아버리고,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최성호, 3-19)

최성호는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돈을 모으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백만원이 넘는 돈을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 최성호는 “통장에 백만원만 있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최성호의 ‘백만원이 있으면’이라는 상상은 ‘천만원이 있으면’이라는 상상으로 커졌는데, 자신은 돈을 쓰는 걸 잘 할 줄 모른다고 했다. 한 번도 큰돈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큰돈의 소유를 지키는 게 어려울 것처럼 느껴진 듯하다.

연구자: 얼마쯤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질까?

최성호: 글썄요 저는 백만 원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연구자: 통장에 백만 원만 있어도?

최성호: 진짜 천만 원 있으면. 또 그걸 흥청망청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돈을 모으다 보면.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쓰는 걸 아직 잘 못해요. 확 쓰고. 그런 게 좀 걱정스럽긴 하죠. 나중에 천만 원 있는데 주식 한 번 해 볼래? 이러다가 저는 할 것 같고. 저는 유혹에 좀 약하거든요. 괜히 걸었다 몽땅 잃어버리면. (흐흐) 제가 그런 유혹에 좀 약해가지고.(최성호, 3-20)

최성호의 아버지는 중국에서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한 기대를 가족들에게도 보여주는데, 중국에서 새로 시작할 학원이 잘되면 세 자녀에게 분점을 하나씩 내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최성호는 아버지의 그 말을 믿고 싶은 듯 했다.

말로는 잘 되면은 진짜 학원도 잘 되면, 몇 개를 차리자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하나씩 준다고. (허허허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부끄러운 듯 기침) (최성호, 3-22).

최성호의 가족은 톨톨 뭉쳐서 빈곤을 이겨내려고 노력해왔다. 각고의 노력으로 빚의 상당부분을 갚기는 했지만 빚은 여전히 엄청나다. 월급 노동자로 그 많은 빚을 갚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버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새로운 사업이 잘만 된다면 지금까지의 가족들의 고생을 뒤로하고 최성호의 여섯가족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의 영어사교육 시장은 커지고 있고 그만큼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다(kotra, 2017.10.17.). 그 치열한 경쟁에서 최성호의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미지수이다. 중국에서의 영어 학원 사업이 성공한다면 가게 빚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만, 이번에만 저 실패한다면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견잡을 수 없는 늪으로 빠질 수도 있다.

3. 현규의 빈곤 경험

가. 가난의 역사=빚의 역사

이현규의 빈곤 경험은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된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성인이 된 후 그에게 있어 빈곤의 경험은 대출이 늘어나는 것과 그 빚을 갚기 위해 계속 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현규가 일을 해서 갚으려고 했던 빚에는 본인이 낸 대출뿐만이 아니다. 부모명의로 대출금은 현규가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현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부모의 빚은 현규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엄마가 그것 때문에 노래방을 그만두고, 접고. 거기서 아버지가 또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다쳤다고 하더라구요.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엄마 말로는 사람이 크게 다쳤다고. 그래서 합의금을 해줘서 빚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1억 얼마 정도 있었다고 (4초 후) 그래서 원래 학교도 그만둘 생각도 했었는데(이현규, 2-3).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아버지의 “사고”와 그로 인해 생긴 빚의 규모는 현규가 고등학교를 그만 두고 일을 해야 하나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던 당시 현규 부모는 1억원 가까이 되는 빚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 빚이, 집에 빚이 많았어요?

이현규: 네.

연구자: 그 4천만원으로는 안 되는데?

: 한 1억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아버지가 한 거?

이현규: 네. 그때는 그래도 이혼 안하시고 있었으니까 엄마한테도 그 빚이 있었던 거죠.

연구자: 같이 갚아야 되는?

이현규: 네(이현규, 3-4).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군 입대를 했던 현규는 자신이 군대에 있는 동안 부모의 빚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은 제대 후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제대 후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더 열악해져 있었다.

연구자: 근데 그러면 군대 입대 할 때는 제대 하고 나서 경찰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간 거예요? 어땠을까?

이현규: 원래 군대 가서 할 생각이었어요, 조금 조금씩.

연구자: 그런데? 군대 가서 좀 했어요?

이현규: 네, 했죠. 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딱 아빠가 사고를 하나 또 치신 거예요.

연구자: 군대 가 있는 동안?

이현규: 네.

연구자: 뭘 하신 거예요?

이현규: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엄마가 또 빚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원래는 알바하고 공부할 생각이었는데

연구자: 나와 보니까 빚이 얼마였어?

이현규: 2억 좀 넘게 있었죠. 그거에 플러스가 좀 됐는데. 많이 된 건 아닌데.

연구자: 4천만원 준 걸로 좀 갚으라고 했잖아. 근데 그거 보다 더 생긴 건가보다.

이현규: 네. 4천을 갚긴 했는데 또 추가로 생긴 게 있으니까 붙어났는데...근데 걱정인거죠. 제가 나왔을 때 공부만 한다 그러기에는(이현규, 3-5).

이렇게 불어나는 부모 명의의 빚은 이현규가 공부만 하며 지낼 수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현규는 스포츠 매장의 직원이 되어 본격적인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이후, 현규에게는 본인 명의의 대출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처음은 그 스포츠 매장에서 당한 사기 때문이었다.

연구자: 근데 그 스포츠 매장에 계속 일할 때도 집에는 빚이 있었고 엄마 명의로. 근데 800만 원을 사기 당했으니까 대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현규: 500만원이요.

연구자: 500만원?

이현규: 300만원은 제가 1년 동안 모은 게 300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원래 엄마 주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매니저 형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거죠. 형을 믿으니까 바로 갚

그리고 매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연구자: 매일 얼굴 보는 사람이니까.

이현규: 네. 솔직히 도망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가 2년차 넘어갔을 때,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랬으니까. 형이 그러더라고요. 1년만 딱 빌려달라고. 자기가 이자 쳐서 주겠다고. 알겠다고. 바로 급한 건 아니니까.

연구자: 그럼 500만원 대출은 어디서 받았어요? 대출 받을 때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애.

이현규: 아니요. 그때 스포츠 매장에 있으면서 4대 보험 되고 이래서 F캐피탈? 제가 F회사 카드를 쓰고 있었거든요. F캐피탈에서 된다는 거예요.

연구자: 제1금융권은 안되고?

이현규: 1금융권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급하니까 저도. 어떤 형이 그러더라고요. “카드 쓰려면 거기로 전화 한 통화 하면 될 걸?” 그래서 말을 했죠. 가능하다고.

연구자: 스포츠 매장 직원이니까?

이현규: 네. 그리고 근무 횟수도 2년이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 주세요” 하고 받아서 그 형한테 넣어주고. 그날 갑자기 잠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알고 보니 다 사기(이현규, 3-6).

이 빛은 이현규가 그 이후로도 일을 계속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앞서 이현규에게 일의 의미가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돈을 버는 것이라고 서술한 것과 연결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현규가 부모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은 불어나기만 하는 것이다.

연구자: 근데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월급을 못 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 다른 데서 대출 받았어?

이현규: 네. 다른 데서 대출 받았죠. 그때는 급하게 해야 되니까 대출 받고. 또 이자가 높아지니까. 저는 그 전에도 두 건이 있었으니까 한 번에 묶어서 좀 저렴한 데로 알아보고. 또 그걸 받아서 갚고. 하여튼 기간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돈을 주긴 주는데 조금 조금씩 어쨌든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러다가 한 반 정도 갚았다 싶을 때쯤, 총 천만원 빚을 졌었는데 한 500도 안 남았었어요. 한 400? 그리고 여기 B백화점에 와서, 다 갚고 A백화점에서...

연구자: 맞아, 그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이현규: A백화점에서 돈을 다 갚았어요. 반쯤 남았던 걸 다 갚고 여기 B백화점에 왔는데 여기서 빚을 많이 졌었어요.

연구자: 여기서?

이현규: 네. 여기서 거의 2천 좀 넘게.

연구자: 왜?

이현규: 매출도 안 나오는데.

연구자: 여기는 퍼센테이지는 낮게 주고.

: 네. 낮게 주고 거기에 여기가 잘 나올 줄 알고 경력 있는 직원을 쓰다보니까 애 월급이 180 정도 됐었어요. 경력은 되게 좋아요. 애가 일도 잘하고 했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오니까 첫 달이 마이너스였어요. 애 월급 주고 마이너스였어요. 첫 달은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둘째 달은 좀 만회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때 다 안됐어요(이현규, 3-7).

이러한 상황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현규가 하고 있는 일의 형태와 관련이 있다. 겉으로는 본사 혹은 백화점에 고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사업자로서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그 위험은 오롯이 이현규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일을 성실하게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현규는 더 늘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3년 전 대출금이 2000만원을 넘자 현규는 개인회생을 받게 된다.

연구자: 그리고 그때 2천만원 빚 있는 거 개인회생 하고.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빚은?

이현규: 네, 없어지고. 다달이 나라에서 어느 정도 정해줘요. 5년 동안 갚으라고. 그걸 이제 갚고 있는 중이고.

연구자: 그럼 그건 한 달에 얼마 내야 돼요?

이현규: 26만원.

연구자: 5년 동안 26만원씩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이현규: 네. 두 번까지는 안 내도 된다는데.

연구자: 그렇지만 매달 내긴 내야 돼, 그죠?

이현규: 네. 어차피 낼 거 빨리빨리 내고 없애는 게 좋으니까. 그 많이 생각하고 계속 열심히. 1만원 2만원이라도 더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더 담아둬요. 일부러. 그래야 제가 빨리 끝나니까.

연구자: 근데 엄마는 돈을 다 갚으셨어요?

이현규: 네. 엄마는 이제 따로 빚은 없으시고.

연구자: 그거를 다 현규씨가 갚아준 거야? 아니면 엄마가 또 벌어서?

이현규: 그렇죠. 조금 조금씩 하신 것도 있고 제가 드린 것도 있고. 갚고 지금은 이제 집 대출.

연구자: 집이랑 자동차?

이현규: 그것만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연구자: 근데 엄마 연골 수술하고 그랬을 때 수술비도 되게 많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현규: 네.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연구자: 그건 또 뭘로 했어?

이현규: 아, 그게 좀 있구나. 그게 좀 있을 거예요. 그게 2천만원이 넘었으니까. 얼마는 카드로 하고 얼마는 대출 받아서 하고. 제가 딱 이자랑 대출이랑 이런 거 다 해서 내는 걸 보니까 280? 한 달에 무조건. 아, 180. 180을.

연구자: 한 달에? 이자로 내야 돼?

: 이자랑 원금 다.

연구자: 매달 나가는 돈이?(이현규, 3-9)

현재 현규는 매달 180만원을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쓰고 있다. 그가 한 달에 본사로부터 보장받는 수입이 250만원임을 고려하면,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대출 상황에 쓰고 있기 때문에 현규는 일을 쉬거나 관둘 수 없다. 그에게 빚은 가난의 역사이며, 일을 쉬지 않고 해야만 하는 이유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에게 대를 이은 가난의 굴레는 곧 빚의 굴레다.

나. 빈곤한 몸, 아픈 몸

조금이라도 많이, 조금이라도 빨리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 “악착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현규의 몸은 조금씩 손상당하고 있고, 몸의 회복을 위한 시간과 공간은 거의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길고 긴 출퇴근 시간과 오랫동안 서있어야 하는 노동 조건은 현규의 신체를 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조건들이다.

이현규: 본사에서 G쇼핑몰로 가라 해서 H시에서 G쇼핑몰로 출퇴근 하게 된 거죠.

연구자: 힘들었겠다, 그죠? 1시간 넘게 걸리지 않나?

이현규: 2시간 정도.

연구자: 버스타고?

이현규: 네. 저희 집이 I동이라고 J놀이동산 가기 전에 있는데, 거기서 5002번 타면 강남역에 내려서.

연구자: 지하철타고?

이현규: 네, 지하철타고 또 가니까. 버스타고 가면 40분, 50분 정도 걸리더라구요. 내려서 또 지하철 타고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G쇼핑몰에 가서 맨날, 거기는 맨날(이현규, 1-4).

특히 오래 서 있는 이 일을 하면서 현규는 무릎 인대가 파열되기까지 했다. 피로가 풀리지 않고 계속 쌓이기만 하는 상황에서 건강 유지를 위한 투자는 사치스러운 일이다.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는 하지정맥류에 걸리기도 하고, 현규의 경우는 무릎 인대가 파열된 것이다. 그러나 재활과 치료를 위한 시간을 내기는 어렵다.

이현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 서 있으면 하지정맥류 걸리는 분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인대가 많이 파열돼서.

연구자: 어디 인대가?

이현규: 무릎 인대요. 왜냐면 계속 서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앉았다가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하니까.

연구자: 그러면 무릎인대 파열되고 그런 거는 어떻게 치료를? 치료했어요?

: 아니요. 재활을 해야 된다는 데 재활을 하려면 1년을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더라
구요. 그래서 안했죠.

연구자: 아프지는 않아요? 평소엔?

이현규: 아프지는 않은데 가끔씩 부어올랐다가 무릎에 물 차듯이 크게 부어올랐다가 다시 또
붓기 빠지고.

연구자: 치료 받아야 될 것 같애. 그죠?

이현규: 여유가 되면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물리치료는 가끔씩 가서 해요. 너무 힘들 때는(이
현규, 3-2).

만 30세가 되지 않은 현규에게 7년간의 직장생활이 남긴 것은 무릎 인대 파열이라는 신체적 손상이다. 이 손상이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빛으로 대표되는 그의 빈곤 경험은 아픈 몸을 낳았다. 앞으로 긴 기간 동안 빛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아픈 몸의 굴레도 현규에게 큰 고통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가족을 위해 포기하는 것들

빛을 갚기 위해 설 새 없이 벌어야하는 이현규가 현재 처한 상황은 삼포세대, 오포 세대라는 말을 재현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과업은 현규에게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다.

A백화점에 있을 때 여자 친구 한 번 2년 정도 만나고 헤어지고 지금 이제 여기 와서 좀 안정적으로 하면서 지금 이제 만나고 있긴 한데. 집이 어려우니까 결혼은 못 하겠더라구요. 남자니까 그래도 어머니를 월세 방에...제가 결혼하면 나와야 될 테니까 어머니를 월세 방에 모시고 저기하기가 좀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다 해결하고 집을 샀어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어머님 해드리고 차 바꿔 드리고 그걸 이제 계속 갚아 나가는 거죠. 결혼은...(웃음)(이현규, 1-6)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의지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생활비를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의지를 하시니까 드릴 수밖에 없죠. 이것 때문에 여자 친구들이랑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다들 결혼 생각을 2년까지 만났을 때 결혼생각을 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걸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얘기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제가 지금 모아 둔 돈도 없고 딱히. 모으고 는 있는데 그걸 쓰기에는 좀 지금. 빼서 또 쓰면 또 이자도 안 붙고 이러니까 그냥 계속 계속 저축 중이긴 한데 어쨌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냥 일단 지르고 봤어요. 그 때는. 어쨌든 집을 사는 건 제 노력이고 그 중에서 갚을 월급도 들어오고 하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월 해도 갚아 나가면서 제가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니까(이현규, 1-6).

현규와의 결혼을 원하는 여자친구에게 그는 이렇다 할 약속이나 계획을 보여주지

못한다. 자기 나름으로는 결혼 준비라고 여기며 어머니에게 집과 차를 사주었는데, 이 대출금 때문에 결혼은 오히려 늦어지고, 여자친구와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현규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것은 결혼만이 아니다. 그의 생애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서사 중 하나는 가족을 포기할 수 없어 일을 계속 해야 하고, 그 결과 자신의 꿈을 좇지 못한다는 스토리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년째 되니까, 매니저 달면서 2년째 되니까 좀 권태기처럼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왔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정말 내가 목표로 할 만한 일인가. 아니면 가족을 포기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원래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게 제일 경찰이 꿈이니까. 포기를 못해서 맨날 공부하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8시에 끝나서 집에 오면 11시, 12시가 되니까 씻고 뭐하고 자면 1-2시인 거예요(이현규, 1-7).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꿈인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 그에게는 심리적 고통이다. 실제로 이현규가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정도의 시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현규: 1년이면 생활비를 그만큼 벌어야 제가 여유 있게 쓸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공무원시험...제가 네 번은 봤었거든요. 독학으로 공부해서 봤는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연구자: 학원 다니고 막 그래야지, 그죠?

이현규: 네.

연구자: 인강 듣고.

이현규: 네. 책으로만 하는 게...저는 그냥 영어 I 이랑 경찰학개론랑 뭐 이런 거 보면서 풀다가 도전해보자, 처음에는 도전 한 번 해보자, 그래야 뭔지 알겠지 하고 했는데. 그때 진짜 가자마자 (너무 황당하다는 어조로 웃으며) 너무 어려워서 판례가 나오는데 그걸 풀어서 이런 법이 맞는지 해서. 시험 보는 이유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몰라고 갔는데 역시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었죠(이현규, 1-9).

이러한 그의 상황은 다른 청년들과의 비교를 통해 억울함으로 경험되기도 한다. 다른 친구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이 주어지는데, 자신에게는 그런 여건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현규: A백화점에 있을 때는 너무 머니까 6시에 딱 버스 타야 거기에 도착하는 게 9시 반에 도착을 하니까. 출퇴근시간에 차가 너무 많아서 차가 막히니까.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버스에서 맨날 쪽잠 자고. 그러다보니까 맨날 순간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스물다섯 여섯이니까 친구들은 유학 가거나 아니면 어학연수 가거나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계속 공부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좀 부러워서 그때 한창 사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한테 반항도 많이 했었고.

: 원망되는 마음도 생기고.

이현규: 네, 약간. 근데 또 한 번 또 확 지르고 미안한 거 있죠. 그렇게 막 우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걸으로는...제가 일부러 더...걸으로는 말로는 강한 척을 하는데 저도 아직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나이니까(이현규, 1-8).

“아직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나이”이지만, 그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고 싶은 일들을 참고 일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그의 삶은 현규에게 “나에 대한 것이 없는 삶(이현규, 1-8)”이기도 하다.

이현규는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 노력을 하기는 한다. 왜냐하면 여전히 꿈을 위한 삶과 가족을 위한 삶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건데.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물론 재미있으면 좋지만 재미가 없으니까. 미련한 거잖아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제 적성에 맞는 걸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죠. 이 일도 그렇게 오래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다하다 보니까, 5일 있고, 기회가 오고 이렇게 빨리 매니저도 되고(이현규, 2-8~9).

그래서 퇴근하여 집에 오면 현규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영어공부를 한다. 시간도 돈도 넉넉지 않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영어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을 현규는 “미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현규: 할 게 있으면 업무적인 거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제 거 하고 싶은 거 하죠.

연구자: 하고 싶은 거 뭐해요?

이현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책도 많이 읽고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영어 같이 하자고 해서 영어.

연구자: 영어공부해요?

이현규: 하는 데 잘 안되더라구요.(웃음)

연구자: 어떻게 해? 둘이 각자 하고 만나서 스터디?

이현규: 만나는 건 좀 힘들어서 전화통화로 물어보죠(이현규, 3-2).

이번에 이사 가면서도 책을 다 버렸는데 한 두 개만 남겨놨어요.(웃음)

연구자: 왜 버렸어요?

이현규: 이제 서른 딱 되니까 (7초 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나서부터는 좀 많이 변하더라고요, 생각이. 어쨌든 은행에서 빌려서 산거긴 하지만 안 갚으면 어쨌든 차압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낼 사람이 저 밖에 없으니까 제가 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두 권은 약간 미련. (웃음) 다 버리기엔 좀 그래서 행정학개론이랑 두 가지만 남겨 놓고(이현규, 2-5).

빛을 갉을 사람이 자신밖에 없는 상황은 그가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지 않게 만든다.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어머니와 책임감이 없는 동생을 대신해서 그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서른 살 이현규의 어깨 위에 부모 때부터 시작되었던 빈곤의 무게가 여전히 얹혀져있다.

라. 그럼에도 계속되는 불안

이현규의 이십대는 “나에 대한 것이 없는” “툽니바퀴 같은” 시간이었다. 무릎 인대가 파열될 만큼 열심히 일했고, 그 안에서 작은 성공을 이뤄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빛이 있고, 앞으로의 삶은 안정적이지 않다. 지금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을 떨치기 어려운 것이다.

: 허,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큼, 이 직업이 좀. 나이가 좀 서른이니까 비전이 없잖아요. 오십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힘든데, 유통 자체가. 이쪽. 그 고민 좀 많이 해요.

연구자: 전망과 관련해서?

이현규: 네, 미래를 봤을 때, 직장 옮겨, 보는 거를 해야 하나? 늦은 게 아닐까 생각되고 지금 안 하면 늦을 것 같고(이현규, 2-9~10)

네. 그래서 다들 이게 남자들이 서기가 힘든 직업이라고. (응) 뭐 젊은 남자들이야, 많이 뽑아요. 요즘엔. 옛날에는 잘 안 뽑았는데 요즘은 젊으면 뽑고. 일 잘 한다고 생각하면 뽑아요. 옛날부터 여자를 많이 더 선호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특성상 남자 매니저를 많이 뽑는 데는 남성 쪽, 아니면 스포츠. 그것도 캐주얼 라인에서 많이 하시다가 스포츠로 가거나 아웃도어 가거나 남자들. 아니면 아예 아울렛 매장이나 넘어가시거나. 아울렛에서 남자들은 한 그래도 한 이제 여기 사십 넘는 사람 사십오 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지금은 만약에 이 일을 더 하게 되면 아울렛으로 가면은 저도 더 편하니까(이현규, 2-11).

백화점 매장 매니저 일은 비교적 나이가 젊은 남성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직장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가 줄어들다. 그래서 이현규는 한편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기도 하다.

이현규: 왜냐면 지금도...솔직히 늦었으면 늦었겠지만, 아직 30대이고 다른 걸 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코딩?

연구자: 어?

이현규: 코딩. 그게 이제 프로그래머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의무교육이 됐더라구요. 초등학교 때도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쪽 한번 해볼까. 누가 그걸 알려줘서 거기 한번.

연구자: 자격증 따야 되는 거죠?

: 그러니까요. 그거 자격증에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죠. 이거는 최근의 일이에요. 이 얘기는 최근에 그 얘기 듣고. 같이 공부한다는 친구랑 같이 한번. 개는 어차피 시험 봤으니까 그것만 할 거 아니니까 자격증 한번 따볼까?

연구자: 자격증 같이 따볼까?

이현규: 네. 알아보라 그래서 제가 알아본 거죠.

연구자: 부지런히 산다, 정말.

이현규: 그래야죠. 안 그러면. 뭐라도 할라고는 계속 해요. 제가 블로그도 하고. 왜냐면 이 일을 하면 컴퓨터라든지 그런 걸 만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을 올릴 수 있잖아요. 파워블로거 라고.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것도 어쨌든 목돈이잖아요. 그것도 해 볼라고 그것도 꾸준히 1-2개씩 올리고. 이제 누계로 12000명? 엄청 올랐더라구요(이현규, 3-10).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현규에게 가난에서 벗어나는 일은 게으른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 일이다. 그는 아버지가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족의 빈곤이 시작되었고, 자신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현규: 그때 딱 서른 됐을 때 생각이 많아졌다고. 많아지긴 했었어요, 진짜. 어떡하지? 뭘... 뭔가 되게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워낙 집 자체가 어려웠었으니까 성공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어요.

연구자: 성공이 쉽지가 않잖아.

이현규: 그죠.

연구자: 아무한테나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니까.

이현규: 노력 안 하는 사람한테는 근데 노력 안하면 왠지 나태해질 것 같은 거죠. 옛날 아빠처럼 그런 생활을 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더 악착 같이 뭘 할라고 막(이현규, 3-13).

이현규에게는 현재의 삶도, 미래의 삶도 만만치 않게 느껴지지만,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악화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다. 매일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에게 더 이상의 노력은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V. 결론

1. 요약

우리는 이 연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일반고를 졸업하고도 대학에 비진학한 청년들에게 있어서 대학과 일의 의미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빈곤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대학 진학을 전제로 한 일반고를 졸업했지만 대학 ‘밖’에 존재하는 빈곤층 청년들의 삶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개별 연구 참여자의 생애 흐름 속에서 그들의 삶이 한국사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포착하여 사회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그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과정이다. 각각의 연구 참여자에게 대학과 일의 의미, 그리고 빈곤 경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수진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지방 도심에서 나고 자랐다. 올해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열아홉살인 수진은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수진의 어머니는 이따금씩 몸이 아파서 쉴 때를 제외하고는 식당에서 홀 서빙이나 주방보조 일을 계속 해왔으며, 아버지는 22년째 우체국에서 등기와 택배 업무를 맡고 있다. 두 살 위 오빠는 대학 진학 후 현재는 군복무 중이며 제대 후 대학 자퇴를 생각 중이라고 한다.

수진에게 대학은 반드시 가야겠다고 생각한 곳은 아니지만 막연하게나마 한번 가보고도 싶은 곳이었다.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이 있는 수진은 대학에 간다면 사회복지학과에 가고 싶었고, 선택의 자유가 있는 대학의 수업이 궁금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 전 오빠가 낸 두 번의 교통사고 후 수진은 대학에 갈 생각을 접었다. 주변에 대학 진학을 권유하는 사람도 없었고 구체적인 꿈도 원하는 학과에 들어갈 내신성적도 갖추지 않은 데다 온 식구가 함께 사고비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까지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집에 부담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진이 줄곧 해온 아르바이트라는 일이 대학이라는 학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수진은 여전히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다만, 대학에 가면 이력서 학력란을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대학을 안 나오면 취업 할 때나 취업을 해서도 무시와 차별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이다.

수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전세 대출금 이자를 내는 데 보태기도 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왔다. 수진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 곳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거쳐 왔으며 현재는 새로운 일을 찾는 중이다. 지루함을 견뎌야했던 학교와 달리 수진에게 일터는 재밌고 고생한다고 격려해주는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반면 “갑”질하는 사장, 관계와 정보에서 수진을 소외시키는 직원들처럼 어른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수진에게 일의 종류보다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느냐’이지만, 여자인 수진에게는 쉬운 일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수진의 집은 아버지가 우체국에서 버는 고정적인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긴 하지만 수진이 중1이었을 때부터 시작된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금까지도 매달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 수진은 특별히 급한 돈이 아니면 필요한 돈은 스스로 벌어서 해결하려고 하며 집에 보탬이 되는 것이 수진이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저임금과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일당직이라는 불안정한 노동으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진에게 저축은 바람일 뿐이며 가불은 일상이다. 수진은 고정적이고 생계에 필요한 안정적인 수입으로 적금을 넣으며 살 수 있기를 바라지만 아르바이트로는 월100만원을 벌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수진은 “일하면서 집에 좀 보태주면서 웃으면서” 살고 싶다. 그런 수진에게 빈곤은 집과 부모님께 늘 ‘미안함’이라는 감정을 안긴다. 학교에 “제대로” 성실하게 다니지 못해 미안하고, 몸이 약한 것도 미안하다. 대학에 가는 것도 미안하고 일을 쉬고 집에 있는 것도 미안하다. 수진에게 빈곤은 곧 ‘미안함’이다. 그런 수진이 빈곤에 잡아먹히지 않고 가불인생에서 벗어나 꿈을 찾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자기 삶의 독립된 주체로 사는 날을 기대하기란 저임금 불안정 일당직 노동으로는 요원해 보인다.

최성호는 충북의 작은 농촌 지역에서 나고 자랐다. 서울의 한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교수를 했던 아버지와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어머니는 평소 공부를 강조했고, 최성호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했다. 성호는 대학 졸업장이 취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나중이라도 필요가 생기면 그 때 진학하면 되는 곳이라고 여긴다. 즉 최성호에게 대학은 돈과 시간이 있을 때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가는 곳이다. 특히 요리사를 꿈꿔온 최성호에게 대학 졸업장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다.

최성호가 요리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요리사라는 꿈을 꾸면서 최성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 유명 프렌차이즈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했지만 높은 노동 강도, 비인격적인 처우, 낮은 임금 등과 같은 요리사계의 현실 때문에 3개월만에 그만 두었다. 지금은 집 근처 대기업 생산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최성호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편안한 현재의 일자리에 만족도가 높다. 최성호에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일이므로 자연스럽게 요리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최성호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직업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으며, 생계 수단으로서의 일과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구분했다. 현재 최성호에게는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도 사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최성호의 가족들은 지난 10년 동안 모두가 동원되어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빛이 많다. 어머니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다른 사람에게 학원을 인수하고 나서도 그 학원의 강사로 일했다. 형과 누나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같은 학원에서 일을 했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는 대학의 시간강사를 전전했다.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최성호는 참고 포기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용돈을 비롯한 필요한 돈은 스스로 마련했다. 그리고 지금, 최성호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아버지의

새로운 사업에 매달리고 있어 최성호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노동자이다. 최성호의 꿈은 “집이 잘 되는 것”이다.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재 최성호가 유일하게 바라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새로운 사업은 중국이라는 불확실성이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현규는 부모의 가난을 빛이라는 형태로 물려받은 30대 초반 청년이다. 빛이 많았던 경제적 상황 때문에 그는 몇 개 대학의 원하는 학과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학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무렵부터 가족의 빛을 갚기 위한 일을 시작했다. 군 제대 후 그가 시작한 일은 스포츠 매장의 서비스직으로 진로 계획이나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는 무관하게 얻어진 일자리이다. 빛이 늘어나는 가족들의 “사고”는 이현규가 일을 쉴 새 없이 하도록 만들었다. 본격적인 일을 하기 시작한 후로는 현규에게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라는 형태로 일을 하면서 오로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매출 부진의 결과는 이현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빛은 늘어나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 지금도 “악착같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현규의 빛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이현규는 때때로 포기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꿈을 실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한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느라 꿈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그는 “나에 대한 것이 없는 삶”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짙은 회의감을 느끼기도 한다. 결혼 적령기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결혼이라는 과업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다가온다.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직종의 특성 때문에 생긴 무릎 인대 파열은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시간 부족으로 아마도 더 악화될 것이다.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빛’으로 재현할 수 있는 이현규의 빈곤은 쉴 새 없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현실로 다가온다.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인 현규는 이 갑갑한 현실 속에서도 매일 노력을 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럼에도 이 빈곤의 끝은 보이지 않는 것이 서른 살 이현규가 대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2. 연구의 의미와 시사점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일반고 졸업 후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으로 가지 않은 청년들이 어디서 어떤 고민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했다. 지금껏 대부분의 청년 운동은 대학 재학 청년과 대학 졸업 청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청년 이슈도 대학생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정현 외, 2017). 이 때문에 이 연구가 ‘청년’ 정도로 쉽게 묶여서 지워져버린 대학 비진학 빈곤 청년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드러내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청년들이 경험하는 빈곤의 실체에 조금 더 다가가고자 빈곤에 대한 경제주의적 접근을 넘어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소득, 소비지출, 노동과 같은 물질적 차원과 함께 시간,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 및 관계, 삶의 양식, 자아 및 사회에 대한 인식, 학습 및 교육, 건강, 환경, 주거, 문화 등의 비물질적인 차원에서도 대학 비진학

청년들이 경험하는 빈곤의 실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⁵⁾. 이처럼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세 청년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으며, 대학 비진학 빈곤 청년의 삶에 대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대학 비진학 청년들의 빈곤경험과 노동경험 분석 결과가 시사해주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 비진학 빈곤 청년에게 대학진학은 가족의 사고로 포기되기 쉬운, 그리고 포기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후순위의 부차적인 과제이다. 이들 청년에게는 목전에 당면한 경제적 결핍의 문제가 삶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집에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과 어떤 일이든 해서 가족에게 경제적 보탬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고등학교 졸업 전 오빠가 낸 두 번의 교통사고 후 수진은 대학에 갈 생각을 접고 아르바이트의 길로 들어섰으며, 몇 개 대학의 원하는 학과에 합격한 현규 역시 집안의 빚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졸업 무렵부터 현규는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한 일을 시작했다. 성호에게도 대학은 돈과 시간이 있을 때 가는 곳이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없는 성호에게 대학진학은 비현실적인 ‘사치’로 여겨졌다. 지금 성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 비진학 빈곤 청년들에게 가족과는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어려워보였다. 우리가 만난 청년들은 가난한 가족의 굴레 속에 놓여 가족을 책임지거나 가족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집과 가족의 생계유지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느라 청년들은 자신의 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 집과 가족에서 자신을 떼어 내어 생각하고 자신만의 독립된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 이들에게는 낯선 일인 것처럼 보였고 청년들은 그것을 가족에게 ‘미안한 일’로 여겼다. 이들에게 일이 갖는 의미 역시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수진에게 일은 ‘가족에게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었으며 성호의 꿈은 “집이 잘 되는 것”이었다. 현규가 일을 할 수 없었던 것도, 꿈을 포기해야 했던 것도 빚이 늘어나는 가족들의 “사고”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현규에게 자신을 위한 삶이란 없었다.

또한 대학 비진학 빈곤 청년들에게 꿈은 이루기 어려운 그야말로 불가능한 “꿈”이다. 당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꿈과 직업을 분리한다. 꿈을 뒤로 미룬 채 이들이 하는 일은 생계형 일이다. 오늘 하루 일을 해서 얼마를 버는 지가 중요한 이들에게 장기적인 생애계획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만난 세 명의 빈곤 청년들은 당장의 생계유지를 이유로 자신의 꿈과 무관한 직업을 선택했다. 성호가 좋아하고 하고 싶던 요리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것도 성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규 역시 경찰공무원이라는 자신의 꿈과는 무관한 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 그들은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생계가 불가능한 현실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도, 대학 졸업장이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도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당장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꿈과 직업을 일치시키

5) 신명호(2013) 역시 책 『빈곤을 보는 눈』을 통해 빈곤은 항상 동시대 같은 사회 구성원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지 소득이 부족한 것이 빈곤의 전부가 아니라 주거·고용·교육·건강·시민권 및 정치 참여의 기회 등 다양한 차원이라고 폭넓게 정의한다.

기 위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은 그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꿈은 나중으로 미루고 당장은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에 진입하게 된다. 그들에게 꿈을 좇으라는 말은 사치에 불과하다.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보람과 재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보편적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특성화고가 아니라 일반고를 졸업한 그들은 미숙련 노동자로 분류되어 단순 업무 혹은 보조 업무를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안정적인이지 않은 일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고, 임금이나 처우도 대체로 열악하지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과 재미를 경험하기 어렵다. 수진은 저임금의 언제든 사장의 갑질로 해고될 수 있는 일당직이라는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성호 또한 주방보조 일을 하며 높은 노동 강도, 비인격적인 처우, 낮은 임금과 같은 열악한 노동여건을 경험했다.

케이지 워스는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일하는가”라는 책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 생산성의 도구로 전락한 인간이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전제라고 지적하면서 직업을 사랑하도록 하는 노동윤리가 점점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착취하도록 강조하고 있음을 비판했다(케이지 워스, 2016: 117). 즉 온전한 삶의 권리와 일의 문제를 분리해야한다고 보았으며, 생산중심주의적으로 일과 임금을 보는 것으로부터 탈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덜 가진 빈곤층 청년들은 좁은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으므로 임금 노동을 하던 하지 않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기본소득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이때 기본소득은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 생계 보장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네트워크 기본소득 청‘소’년, 2017.4.26.).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이 자기 인생을 빈곤에 저당 잡히지 않고,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볼 기회이자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더 나은 삶의 양식을 꿈꾸고 실험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은 수혜가 아니라 마땅히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접근되고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가 만난 세 명의 청년들을 보며 다시 한 번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빈곤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것이었다. 빈곤이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말은 많은 청년들이 가난해지고, 더 많은 가난한 청년들이 만들어지도록 이 사회가 작동한다는 뜻이다(안미선, 2016). 사회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구조적으로 빈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빈곤화의 ‘과정’에 주목하였는데, 그 결과 한 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빈곤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만난 청년들은 결코 게으르게 살아오지 않았다. 하루하루 악착같이 열심히 일했으며, 매일 더 충분히 노력하고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들은 빈곤이라는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였다(이정현 외, 2017). 이들의 삶을 통해 연구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의 굴레를 목

격했다. 우리가 만난 세 명의 청년 모두 열심히 일해도 빈곤한 근로빈곤을 경험하고 있다.⁶⁾ 그런데도 사회와 국가는 젊을 때 겪는 빈곤은 개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는 허구 담론의 생산과 유포를 통해 빈곤의 책임을 교묘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회피하는 가운데 마땅히 사회와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부끄럽게도 개인에게 떠넘겨왔다. 청년 빈곤층이 겪는 문제를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능력 부족으로 치부해 왔을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취업교육과 같이 임시적이고 근시안적인 방안에 한정해왔다. 그러는 동안 청년들은 열심히 일해도 줄어들지 않는 빚, 아니 일하면 일할수록 오히려 더 늘어나는 빚이라는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처럼 개인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개인 혼자서 해결할 수도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환원하는 것은 빈곤층 청년들을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그들을 사회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부의 절대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도 한국 사회에서 빈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빈곤이 엄연히 사회 구조의 문제이며 정치의 문제임을 말해준다(신명호, 2013). 따라서 청년의 빈곤 문제는 개인적 해법이 아니라 사회적 해법으로 풀어야 하며⁷⁾, 현재는 빈곤하다 하더라도 더 나은 삶을 상상하고 사회와 국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권리가 청년들에게는 있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청년지원 정책이 노동시장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구직 및 실업기간 동안 소득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 안전망으로서 청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긴급 구호망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김태완, 2017).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중에는 ‘대학생’만을 구체적 대상으로 지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청년 지원 정책에서도 대학 비진학 청년들은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빈곤은 곧 ‘사회적 배제’의 형태로 경험된다고 볼 때 누구는 포함하고 누구는 배제하는 ‘조건성’이 아닌 무조건성이라는 취지의 기본소득이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대학 비진학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친구들과의 커뮤니티가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대학 비진학 청년들은 정작 이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나 사업의 정보를 찾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전 과정에서 이들 청년들의 입장과 구체적 여건이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한다(이정현 외, 2017). 그래야만 이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6) 김태완(2017)이 <보건복지포럼>에 낸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을 경험한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2005년에 19~34살이었던 청년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빈곤에서 벗어나는지를 추적 조사한 결과, 2006년(20~35살) 6.7%였던 상대소득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은 이들이 29~44살이 된 2015년에도 6.3%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청년빈곤이 생애 빈곤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해준다(한겨레, 2017.3.3.).

7) 청년들에게서 사라지는 감각이 있다. 사회를 통해 자신의 삶이 보호될 수 있다는 감각이 실종되고 있다. 각자 사적으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공공적 해결이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청년들의 포기의 핵심에는 ‘사회적인 해법’에 대한 포기가 있는 것이다(조한혜정 외, 2016: 14).

참 고 문 헌

- 김민찬(2013). 시민입법-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 필요. *국회보*, 2013년 2월호(2013.02.08).
- 김성례(2002). 여성주의 구술사의 방법론적 성찰, *한국문화인류학*, 35(2), 31-64.
- 김지경·김종성(2014). ‘선취업-후진학’ 정책 도입까지 지난 10년 간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6(2), 255-272.
- 김지경·이광호(201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이광호(2014). 정책대상으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 및 관점에 관한 소고(小考). *청소년학연구*, 21(3), 285-306.
- 김찬호(2014). *모멸감*. 문학과지성사.
- 김태완·최준영(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교육복지포럼*, 통권 제 244호, 6-19.
- 남미자(2013). 초원을 달릴 수 없는 경주마: 대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내러티브. *교육인류학연구*, 16(2), 155-192.
- 남미자·김희연·이수지·이주영(2013).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일치도를 매개로 하여.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6(3), 29-57.
- 네트워크 기본소득 청‘소’년(2017). ‘시민 기본소득 실험 간담회 《이미 시작된 이야기, 기본소득》 간담회 자료(2017.4.26.)’. 네트워크 기본소득 청‘소’년.
- 매튜 데스몬드 지음. 황성원 옮김. *쫓겨난 사람들*. 동녘.
-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2015). ‘*생계형 청년알바*’의 ‘*일*’과 ‘*삶*’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서덕희(2011). 농촌 국제결혼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맥락적 이해: 전남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1(2), 87-120.
- 성태숙(2015). *변방의 아이들: 삶을 돌보는 교사가 들려주는 교육 이야기*. 민들레.
- 신명호(2013). *빈곤을 보는 눈*. 개마고원.
- 신명호(2015). *왜 잘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나*. 한울아카데미.
- 신현석·정주영(2009). 전문계 직업교육의 대안으로서 마이스터고 정책의 방향과 과제. *직업교육연구*, 28(4), 157-182.
- 아네트 라루 지음. 박상은 옮김(2012). *불평등한 어린 시절*. 에코리브르.
- 오준호(2017).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개마고원.
- 오찬호(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괴물이 된 이십 대의 자화상*. 개마고원.
- 울리히 벡 지음. 홍성태 옮김(2014). *위험사회*. 새물결.
- 윤민종·김기현·한도희(2015).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택림(2004).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 이반 일리히 지음. 이한 옮김(2004). *성장을 멈춰라*. 미토.
- 이상준·이수경(2013). 2013 비진학 청소년 근로환경 실태조사. 직업능력개발원.
- 이새암(2010). 사범대학 학생들의 삶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3(1), 95-129.
- 이수정 외(2015). *십 대 밑바닥 노동*. 교육공동체 벗.
- 이정현 외(2017). *빈곤과 고립: 독립생활청년 실태조사보고서*.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 이지혜·정철영(2010).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장벽과 관련 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1), 25-47.
- 이필남(2014). 고졸취업 확대 정책이 고졸취업자 일자리의 질에 미친 영향과 마이스터고졸 취업자 일자리의 질 분석. 고용패널학술대회, 고졸노동시장I, 129-148.
- 임기흥·조인형(2011). 전문계고등학교의 특성화요인이 취업률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경영학회 학술연구발표대회 자료집*, 2011(1), 91-100.
- 장하성(2015). *왜 분노해야 하는가: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헤이복스.
- 정수남·권영인·박건·은기수(2012). '청춘' 밖의 청춘, 그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아정체성. *문화와 사회*, 12, 35-103.
- 정재원(2010). *숨겨진 빈곤*. 푸른사상.
- 조영선 외(2013). *그리고 학교는 무사했다*. 교육공동체벗.
- 조한혜정 외(2016). *노오력의 배신*. 창비.
- 조한혜정(2014). *비진학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조한혜정(2014). *자공공*. 또하나의문화.
- 채창균·양정승(2015). 고졸청년의 취업 추이와 향후 과제. *이슈페이퍼*, 2015-1.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천주희(2016).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사이행성.
- 케이시 워스. 제현주 옮김(2016).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반노동의 정치, 그리고 탈 노동의 상상*. 동녘: 경기도 파주.
-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연보*.
- 한병철 지음. 김태환 옮김(2012).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 황여정(2007).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및 진로정보인지수준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7(1), 131-158.
- Clandinin, D. J.(2007).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Sage Publications, Inc.
- 한겨레21(2014.1.10.). 빈곤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배제'. 한겨레21, 제994호.
- Kotra(2017.10.17.). 과열된 한국의 유아 영어교육시장, 中에서 기회를 찾아라. Kotra 해외시장뉴스.

